

보고서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23. 11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함

연구진

연구책임자

노영희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가나다순)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교수

이경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교수

장인호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영미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차현주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도서관문화연구소장

연구보조원

곽우정 지식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도서관문화연구소

목 차

I. 서론	3
1. 필요성 및 목적	3
1.1 연구의 배경	3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4
2. 수행 전략 및 방법	6
2.1 수행 전략	6
2.2 수행 방법	19
2.3 연구 추진체계도	20
3. 선행연구	21
4. 기대효과	24
5. 용어 정의	25
II.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29
1.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기증·자체수집 현황 및 추이 분석	29
1.1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근거	29
1.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수집 현황 추이 분석	33
2. 온라인 자료 유형별 출판 및 발행 정보 통계조사	45
2.1 웹자료 출판·발행 정보 통계 조사 및 분석	45
2.2 웹사이트 통계 조사 및 분석	48
2.3 시사점	51
3.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대상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53
3.1 납본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53

3.2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 유형의 명확화	54
3.3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지침 확대 근거 마련	55
3.4 디지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선제적 대응	57

III.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서비스 전략61

1. 해외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	61
1.1 해외 주요 국가 및 단체의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분석	61
1.2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특징 분석	67
2. 해외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수집 방향 및 활용 방안	80
3. 국내 온라인 자료 수집 방향 및 활용 방안	87

IV.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93

1.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유형 및 현황	93
1.1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등장과 성장	93
1.2 신매체-플랫폼 기반 산업의 국내 현황 및 특징	94
2.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유형별 기술적 특성	99
2.1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기술적 특성	99
2.2 실감콘텐츠의 기술 분류 및 특성	103
2.3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과 특성	104
3.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 및 관리 사례	106
3.1 국내 사례	106
3.2 미의회도서관	107
3.3 호주의 국가도서관 및 NSW 주립도서관	109
3.4 독일 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 Bibliothek)	112
3.5 영국 국가기록원(UK National Archives)	112
3.6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114
3.7 뉴질랜드국가도서관의 Facebook Archive Project	115

4.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 및 서비스 방안	116
4.1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 개요	116
4.2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	123
V.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납본 연계 방안	131
1. 국제표준도서번호 외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 실태조사	131
2. 우선순위, 활용성 등 심층 분석을 통한 납본 연계 방안	138
2.1 납본의 우선순위 및 활용성	138
2.2 납본 연계 방안 제시	140
VI.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149
1. 도서관법	149
2. 관련 법령 개정 방향	164
VII.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175
1.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 도출 프로세스	175
1.1 정책 도출 프로세스	175
1.2 온라인 자료에 대한 사전적 및 법적 정의	177
1.3 본 연구에서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	179
2.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 개선방안	181
2.1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의 비전과 목표	182
2.2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184
2.3 핵심과제별 세부추진과제	187
3. 단계별 발전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271
3.1 온라인 자료 수집 실천 중장기 로드맵	271
3.2 예산수립 계획	274

3.3 성과지표	276
----------------	-----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283

1. 결론 및 요약	28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3
1.2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의 시사점	283
1.3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서비스 전략	290
1.4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293
1.5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납본 연계 방안	296
1.6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301
1.7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305
2. 정책제언	309
2.1 디지털자료 관련 조직의 재편성	309

참고문헌 317

표 목 차

〈표 I-1〉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현황	7
〈표 I-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자료의 5년 간 자료 수집 현황 추이	7
〈표 I-3〉 수집 범위	12
〈표 II-1〉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	31
〈표 II-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47호)	31
〈표 II-3〉 온라인 자료의 납본 관련 법령 내용	32
〈표 II-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서 등록별 분포 현황(2022.12.)	34
〈표 II-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서 수집내역별 현황(2022.12.)	34
〈표 II-6〉 온라인 자료 수집 대상	35
〈표 II-7〉 온라인 자료 수집 기준	35
〈표 II-9〉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현황 추이(2017~2022)	37
〈표 II-10〉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전자책)	39
〈표 II-11〉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전자저널)	39
〈표 II-1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기증 수집 현황 추이(2017~2022)	41
〈표 II-13〉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자체 수집 현황 추이(2017~2022)	42
〈표 II-14〉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유형별 온라인 자료 누적 수집 현황 (2017~2022)	43
〈표 II-15〉 국립중앙도서관 수집유형별 온라인 자료 누적 수집 현황 (2017~2022)	44
〈표 II-16〉 주요 전자책 플랫폼의 구독서비스 제공 현황	45
〈표 II-17〉 웹소설 플랫폼 3사의 연도별 작품 현황	45
〈표 II-18〉 웹툰 주요 플랫폼 현황	46
〈표 II-19〉 전자책 유형별 등록 종수	47
〈표 II-20〉 웹소설 플랫폼 3사의 연도별 작품 현황	47

〈표 II-21〉 주요 오디오북 출시 연도별 작품 현황(2021)	47
〈표 II-22〉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웹자원 수집 현황(2018~2022)	48
〈표 II-23〉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주제별 수집 현황(2023. 6)	49
〈표 II-24〉 국외자료의 기본 방침 및 수집 방법	49
〈표 II-25〉 국외자료의 수집대상 및 범주	50
〈표 II-26〉 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 원문 디지털화 수집(2018~2022)	51
〈표 II-27〉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관련 소장 현황(2022.6)	51
〈표 IV-1〉 실감콘텐츠의 주요 기술 및 특징(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14)	103
〈표 IV-2〉 미의회도서관의 최근 추가된 매체 유형	108
〈표 IV-3〉 영국 국가기록원에서 수집 중인 소셜 미디어 계정 목록	113
〈표 IV-4〉 온라인 자료 수집 기준	121
〈표 VII-1〉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과정	175
〈표 VII-2〉 온라인 자료 장서관리 정책과제	185
〈표 VII-3〉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과 정책의 수립	188
〈표 VII-4〉 온라인 자료 통계 수집 단계적 전략(이지연 외, 2022)	192
〈표 VIII-1〉 수집 대상 자료	285

그림 목 차

〈그림 I-1〉 수행전략 및 수행방법	19
〈그림 I-2〉 연구의 추진체계 및 흐름도	20
〈그림 IV-1〉 대전컨벤션센터 메타버스 구현 화면 예시 (출처: http://thelikeit.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1)	97
〈그림 IV-2〉 메타버스 서울 구현 화면 예시 (출처: https://youtu.be/-4zCKw0q5dY)	98
〈그림 IV-3〉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	104
〈그림 IV-4〉 NSW State Library의 Social Media Archive	111
〈그림 IV-5〉 Twitter에서의 아카이브 예시(범위 내와 범위 외)	114
〈그림 IV-6〉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특징	118



요약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of Online Data Collection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가문헌의 수집 보존과 이용을 위해 1963년 「도서관법」에 납본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2016년에 온라인 자료의 납본이 반영되어 개정 및 시행되고 있음
-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동향조사,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자료 중장기 수집 전략계획 마련 필요
- 온라인 자료는 빨리 생산하는 만큼 빠르게 소비되고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순식간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소중한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확대 및 적용 방안

□ 연구 범위

-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납본, 기증, 자체수집 등)
- 해외 주요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조사·비교 분석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제시
-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2. 국내외 온라인 수집현황분석기반 개선방향 도출

2.1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과 시사점

- 납본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온라인 자료 납본의 정착을 위한 법률 개정
 - 온라인 자료의 납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 유형의 명확화
 - 구체적인 온라인 자료 유형의 명확화
 - 다양한 신매체 수집의 확대
-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지침 확대 근거 마련
 -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대상의 확보 방안 마련
 - 국내 납본 수집 대상 자료의 발행·제작 현황 파악 기반 조성
- 디지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선제적 대응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매체의 주기적 파악
 -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지속적이고 능동적 수집

2.2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서비스 전략

- 해외 사례 기반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선 방향
 - 인식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미래 국가 정보 자원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 국가 단위의 플랫폼, 오아시스의 위상 강화
-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 이용자의 독서성향과 도서관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도서관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확대 방안
 -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
 - 도서관과 기록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2.3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서관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범주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및 형태는 크게 웹사이트와 웹자료이고 웹자료는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 현재의 자료 유형 구분에서 소셜 미디어는 웹사이트, 웹자료와 따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고 웹자료 내의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에는 실감콘텐츠를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별 수집 지침 개발 및 제시

- 소셜 미디어의 수집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에 제시해야 함
- 웹자료 수집 지침에 실감콘텐츠 항목을 분리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도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소셜 미디어 자료는 특정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 기반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자체 수집을 고려하는 경우, 수집 대상이 되는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과 해당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카이빙 도구 등 플랫폼 특성에 맞는 수집 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고려해볼 만한 수집 도구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대용량 콘텐츠 추가 수집 및 확대를 위한 넉넉한 스토리지 확보
- 추가적인 콘텐츠 수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 소셜 미디어 수집 대상 기관의 수집 허락
-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협력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제고
- 실감콘텐츠 등 e-deposit 시스템의 콘텐츠 확장성 및 사용의 용이성 제고
- 실감콘텐츠 재현 공간 첨단화 및 구축

2.4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 찾아가는 납본 제도 도입

□ 온라인 자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 납본 부담비용 완화를 위한 우편법 개정
- 도서관자료 이용료의 사후정산 제도 도입

□ 자료보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 온라인 자료 열람에 대한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에 명시 방안 연구

□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과 도서관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 도서관자료 수집 관련 협력대상기관 구체화 및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 만화진흥법,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등 개별법과 도서관법과의 연계성 강화

2.5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납본 연계 방안

□ 납본의 우선순위 및 활용성

- 납본과 이용의 상호보완 강화
- 납본의 우선순위 부여
- 납본자료의 활용성: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자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성을 갖고 있으며, 문화, 연구,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

□ 납본 연계 방안 제시

- 한국서지표준센터의 납본 역할 강화
-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연계
-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연계
-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
- UCI와 ICN의 연계 통합
- 납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4.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 온라인 자료 장서관리 정책 도출 프로세스

- 1단계 :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
- 2단계 : 국내외 온라인 자료 현황조사
- 3단계 : 대국민 서비스 방안 및 단계별 도입 전략 제시
- 4단계 : 온라인 자료 장서관리 정책 최종 확정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장서관리정책의 정책개발시 고려 사항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민에게 높은 품질의 온라인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함
- 디지털 자원 확대, 온라인 서비스 향상, 디지털 저작권 관리, 학술적인 정보 제공,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 정보 접근성 강화,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

□ 비전 및 목표 설정의 배경 및 핵심전략

- **비전 설정의 배경:**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 장서관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1) 미래를 위한 지식의 보고로서, 2)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며 3)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온라인 자료 수집을 통해 4) 국민들에게 지식과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5) 지식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목표 설정의 배경:** 1)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현대적이고 다양한 온라인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2)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핵심전략:** 1)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2)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3) 미래형 인프라, 4) 공생의 협력, 5) 재창조를 위한 보존

주제어: 온라인 자료, 중장기 발전방안, 수집전략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 법·제도 개선 방안, 관련 법령 개정, 중장기 로드맵, 온라인 장서개발 정책, 온라인 자료 수집의 기본지침

Keywords: Online resources,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collection strategy, Collection of new media-platform-based data, Online data identification system,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amendments to relevant laws, Mid- to long-term road map, Online book development policy, Basic Guidelines for Online Data Collection

제 I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 국가문헌의 수집 보존과 이용을 위해 1963년 「도서관법」에 납본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2016년에 온라인 자료의 납본이 반영되어 개정 및 시행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자료가 계속 출현하고 있으므로 소멸성, 휘발성이 강한 온라인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는 적극적 수집이 요구됨
-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동향조사,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자료 중장기 수집 전략계획 마련 필요
-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면 관련 법이나 제도의 개선, 출판 현황에 대한 조사 필요
- ISBN 발급 자료의 유형, 실제 출판 유통 여부 등 전자책 출판 현황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 제작, 소비 추세까지도 조사 연구해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이용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전략도 세워야 함
- 온라인 자료는 빨리 생산하는 만큼 빠르게 소비되고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순식간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소중한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추진배경

2016년부터 법령에 따른 온라인 자료 납본 개정 및 시행

- 국가문헌의 수집 보존과 이용을 위해 1963년 「도서관법」에 납본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2016년에 온라인 자료의 납본이 반영되어 개정 및 시행되고 있음
-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동향조사,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자료 중장기 수집 전략계획 마련 필요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자료가 계속 출현

-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자료가 계속 출현하고 있으므로 소멸성, 휘발성이 강한 온라인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는 적극적 수집이 요구됨

빠르게 소비되고 소멸되는 온라인 자료의 국가적 수집 및 보존 요구

- 온라인 자료는 빨리 생산하는 만큼 빠르게 소비되고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순식간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소중한 온라인 자료를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④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면 **관련 법이나 제도의 개선, 출판 현황에 대한 조사 필요**

④ ISBN 발급 자료의 유형, 실제 출판 유통 여부 등 전자책 출판 현황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 제작, 소비 추세**까지도 조사 연구해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이용**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전략도 세워야 함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 연구 목적

- 온라인 자료를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확대 및 적용 방안

□ 연구 범위

-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납본, 기증, 자체수집 등)
 - 우리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기증, 자체수집 현황 및 추이 분석
 - 온라인 자료 유형별 정확한 출판 및 발행 정보 통계 조사
 -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대상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해외 주요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조사·비교 분석

- 해외 주요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 파악
 - 해외 주요도서관 현황 분석을 통한 우리 도서관의 수집 방향성 제시 및 활용 방안 도출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제시**
 - 수집 대상 및 범위, 방법 등 구체적 수집 기준 설정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성 제시
 - 우리 도서관내 서비스 적용 방법 및 서비스 방안 도출
-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국제표준도서번호 외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ECN, UCI 등) 실태조사
 - 우선순위, 활용성 등 심층 분석을 통한 납본 연계 방안 제시
 - 도서관법, 저작권법, 만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디지털콘텐츠 납본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 제안
-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국내외 도서관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개발
 - 단계별 수집 전략 및 중장기 실천 로드맵 수립

2.1 수행 전략



2.1.1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납본, 기증, 자체수집 등)

1) 우리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기증, 자체수집 현황 및 추이 분석

-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확대: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11년 만에 개정하여 6월 1일(수)부터 시행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수집 현황 분석: 온라인 자료 1,800만 건 이상(디지털화 자료 1,000만 건과 납본, 자체 수집, 기증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 800여만 건) 소장하고 있음(국립중앙도서관, 2022)
-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온라인 자료 납본이 의무화(2016년 8월):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를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함. 납본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생산된 전체 온라인 자료 중 3% 수준에 불과함

2)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등 국립중앙도서관의 현 기준 자료 수집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현황

〈표 1-1〉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현황

2020.01. 기준 (단위 : 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계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12,355,019	9,214,666	1,388,675	1,089,083	477,613	184,982

- 전자책의 ISB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ISBN 발급 대비 납본율’은 2017~2020년 기준 약 9.4%~12.0%로 나타남
- 온라인 ISS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2011~2020년의 온라인 ISSN 발급 대비 납본수 및 납본율은 약 30~50%이나 2018년 이후 최근 증가

3)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기증, 자체수집 현황 분석

- 2017~2021년까지 5년간 온라인 자료의 납본 현황을 자료 유형별로 분석

〈표 1-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자료의 5년 간 자료 수집 현황 추이

(단위: 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자책	16,785	16,998	17,001	22,598	23,406
전자저널	5,190	5,285	11,174	132,308	64,025
공공간행물	11,525	24,303	36,635	27,162	27,019
학위논문	34,679	36,103	40,149	35,434	32,883
음성음향	3,013	4,775	6,143	5,207	4,455
계	71,192	87,464	111,102	222,709	151,788

* 2020년 전자저널 납본 건수: 소급자료의 일괄 납본 포함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11호

4) 온라인 자료 유형별 정확한 출판 및 발행 정보 통계 조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출판산업 동향의 방

행 통계 및 심층 분석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함

- 조사 시 웹자료(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유형별 출판 및 발행 정보 통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년도와 올해 2년 간의 현황을 분석하여 증감률을 파악하고자 함

5)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대상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2022) 온라인 자료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집하며, 납본, 자체수집, 수증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이런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는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수집함
- 수집 자료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구분		대상 자료
웹 자 료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음성·음향 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등), 음향자료(효과음 등) 등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내 웹사이트 및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외 웹사이트
기타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2.1.2 해외 주요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조사·비교

1)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 파악

□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납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 납본을 계획하거나 웹사이트의 자동 수집을 실행하는 등 디지털 납본과 관련한 프로젝

트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은 기존의 납본법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실시하고 있음
- 호주, 일본, 미국 등은 개정안을 제출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음

□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추이 분석

- 대표적으로, 미국은 「저작권법(Copyright Law)」 제407조와 제408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발행된 모든 저작물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판(Best Edition) 2부를 미국의회도서관의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납본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무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저작권법(Copyright Law)」 제407조는 납본대상, 납본시기, 불이행시 벌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08조는 저작권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기한 내에 납본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청장은 납본의무자에게 납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납본 청구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납본하지 않으면 저작물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이외,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 아시아권의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온라인 자료 납본에 대하여 최근의 동향 추이를 분석 제시하고자 함
 -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
 - 웨일스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Wales)
 - 옥스포드의 보들리안 도서관(Bodleian Library in Oxford)
 -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Cambridge University Library)
 -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 도서관(Trinity College Library in Dublin)

2)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을 통한 우리 도서관의 수집 방향성 제시 및 활용 방안 도출

□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수집 자료 유형 현황 분석

-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의 미래지향적 정책 및 지침 개정 동향 분석을 통하여 우리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의 문제점 및 방향성을 제시
 - 현재 우리 도서관 온라인 자료의 납본 수입에 있어서, 자료 포맷의 다양화, 수록된 정

보의 가변성과 소멸성, 출판사의 납본 회피 및 오납용, 저작권 보호 장치의 미비 등에 대한 보완점 도출

- 온라인 자료가 납본되더라도 축적과 장기적 보존, 접근 조건과 공정이용, 주기적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정책 가이드라인 분석

-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기존의 납본법령을 개정하여 온라인 전자출판물까지 납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전자출판물 파일럿 프로젝트(EPPP; Electronic Publications Pilot Project)
 - 독일: 전자납본도서관 태스크포스(TF)
 - 스웨덴: Kulturarw3 프로젝트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수집 대상자료 종류와 범위 비교 분석

-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며 전자출판의 가속화 및 인터넷과 웹의 폭발적 증가로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맞물려 여러 국가들도 이러한 온라인 자료의 납본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추세
 - 이에 대한 해외 주요 도서관의 납본 수집 대상 가이드라인 지침 조사 분석

□ 우리 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의 방향성 제시 및 활용 방안 도출

-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의 원칙적인 무보상 제도의 상황과 우리 도서관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에 대한 「도서관법」 제22조의 수정 보완에 대한 방안 도출 필요
 - 보존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서조항으로 신설할 필요성 검토 제시
- 온라인 자료 납본 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부적격한 납본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과도한 행정 업무처리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본 수집의 관리 방향 제시
 - 우리나라 납본 시스템의 악용, 오용 사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규정 보다는 현 온라인 자료 납본의 허점을 방지하는 대안 제시

2.1.3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제시

□ 신매체-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현황 및 유형 조사

- 대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의 부상(영화나 드라마 유통은 OTT 플랫폼, 음악이나 웹툰은 포털 기반 플랫폼, 사용자 제작 동영상(UGC)은 유튜브)
- 개인 유튜브, 웹소설가와 같은 독자적인 동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의 등장(미국의 서브스택, 패트리온 등 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콘텐츠 플랫폼)
- 다양한 신매체-플랫폼의 증가(메타버스, AR/VR, MR 콘텐츠 등)

□ 해외 주요도서관 사례에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매체-플랫폼 기반의 자료 유형 도출

- 미의회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최근 포함되었거나 정책 수정된 신매체 유형은 데이터세트(2022년 개정), 소셜미디어(2021년 11월 제정, 2022년 개정), 개방형 디지털 콘텐츠(2020년 8월 제정, 2022년 개정), 독립출판 및 자체출판 텍스트 자료(2018년 2월 제정, 2022년 개정), 디지털 지리정보시스템 등임(Library of Congress, 2023)

〈표 1-3〉 수집 범위

매체 유형	수집 범위 및 내용
데이터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세트는 일반적으로 기록 또는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의 모음으로 텍스트, 숫자, 이미지, 비디오를 포함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레코드로 구성
소셜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지침과 함께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도 제공함 • 수집 기준(도서관의 웹 아카이빙을 통해 획득한 웹사이트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 계정, 개인 또는 그룹의 독립형 소셜 미디어 계정은 미국 선거 후보 사이트에 대한 현재 방식을 포함하여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에 대한 도서관의 국가/카테고리 권한 구조에 따라 수집될 수 있음) • 주요한 소셜미디어 플랫폼(Facebook, Twitter, Instagram, YouTube, Pinterest, LinkedIn, Reddit, TikTok, Snapchat 등)
독립출판 및 셀프 출판 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인디) 출판 및 셀프 출판 텍스트 자료(비텍스트 자료는 제외) • 셀프 출판 텍스트 자료(저명한 출판사의 도움 없이 저자의 비용으로 책, 연재물 또는 기타 매체를 출판하는 것)에서 저자는 작품을 쓰는

스트 자료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책임(권리, 권한 포함)이 있음
개방형 디지털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연재물 및 도서; 개인 또는 기관이 업로드한 콘텐츠가 있는 디지털 저장소; Wikipedia와 같은 개방형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 인터넷이나 외부 유형 미디어에 있는 출판되지 않았거나 구조화되지 않았은 원시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지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벡터 및 래스터 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디지털 파일 유형 및 형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지리 공간 또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데이터(지리 정보 또는 토폴로지가 내장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아날로그 지도의 디지털 스캔 및 지리 참조 버전; 원격 감지 디지털 이미지; 지리 공간 데이터의 생성, 검색, 분석 및 표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웹 지도 응용 프로그램)

- 호주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는 디지털 지리정보시스템과 표준 웹 사이트 플랫폼에 있는 다른 유형의 온라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일부 소셜 미디어를 수집함. 다만 특정 독점 플랫폼에 의존하는 소셜 미디어에는 웹 사이트 및 웹 문서에 사용되는 수집 이외의 선택적 방법을 사용함(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23)
 -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웹 기반 자원의 선택적·주제별 웹 아카이빙을 수행하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소셜 미디어 컬렉션도 포함함(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23)
- 신매체별 수집 대상 및 범위 정의, 수집 방법 등 기술적, 법적 요소 검토, 수집 기준 설정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수집 정책의 개선 방향성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내 서비스 적용 방법 및 서비스 방안 도출

2.1.4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1) 국제표준도서번호 외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ECN, UCI 등) 실태조사

□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국제표준자료번호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도서 및 연속간행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은 1990년 한국문헌센터를 설

치하고, 국가번호 “89” , “11” 을 배정받아 10자리 또는 13자리 번호로 발행

- 발급대상 : 인쇄 및 온라인 자료, 인터넷상에 서비스되는 전자출판물, 매체에 수록된 전자출판물 (국립중앙도서관, 2018)
 - ISBN이 부여된 도서는 면세의 요건으로 출판사 또는 제작사에 혜택이 부여 됨
- 발급현황 : 전자출판물 3,147,590건(2018년 누적현황)
 - 전자출판물인증센터(KEPA: Korea Electronic Publishing Association)을 통한 UCI 발급도 가능

ISBN발급 종이책 수(2011-2020)	ISBN발급 전자책 수(2011-2020)
1,291,533	652,391

(출처: 출판유통진흥원, 2022)

- 연도별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자책	16,785	16,998	17,001	22,598	23,406
전자저널	5,190	5,285	11,174	* 132,308	64,025
공공간행물	11,525	24,303	36,635	27,162	27,019
학위논문	34,679	36,103	40,149	35,434	32,883
음성음향	3,013	4,775	6,143	5,207	4,455
계	71,192	87,464	111,102	222,709	151,788

*2020년 전자저널 납본 건수: 소급자료의 일괄 납본 포함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21년 연보)

□ 온라인 자료 식별체제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 인터넷을 통한 생산 유통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 표준 식별체제
-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UCI 식별자가 부여되어 유통됨
- 식별체제 구성요소 :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운영절차, 운영시스템 네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
- 활용분야 : 서로 연계된 식별체제는 콘텐츠의 유통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음원, e-book, 유통내역추적, 참조연계서비스(reference linking service)등 콘텐츠 유통에 필요한 실질적인 활용분야에 다양하게 적용

- 연계식별체계 : ISRC, ISBN, DOI 등 타 식별체계와 다양한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표준화 추진
 - ISRC(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CD, 뮤직비디오, 음원과 녹음파일 등 녹음 자료에 부여하는 국제표준 식별체계
 -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체계
 -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
-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부재로 인해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및 저작권 계약 등 문제점 발생



(출처: <https://www.uci.or.kr/?menu=3>)

□ 통합저작권관리번호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

- 국내에서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코드체계
- 저작물 활용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분배, 불법 모니터링, 필터링을 목적으로 함
-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
- 한계점 : 저작물 유통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적인 콘텐츠 유통에 이용되기 어려움. 저작권관리에 집중되어 콘텐츠 자체를 식별하는 데는 부족하며, 변환시스템이 제공되지 않음

2) 우선순위, 활용성 등 심층 분석을 통한 납본 연계 방안 제시

□ 온라인 자료의 우선순위 및 활용성 분석

- 온라인 자료의 신뢰성, 적절성, 접근성, 인기도 등을 통한 우선 순위 기준 결정
- 온라인 자료의 유사성, 적용성, 활용성 평가에 의한 분석

□ 온라인 납본 자료와의 연계 방안 제시

- 온라인 납본 자료의 활용성 극대화 방안 제시
 - － 납본자료와 연계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는 링크 제공
 - － 납본자료와 연계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운영
 - － 납본자료와 연계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3)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취지를 반영한 「도서관법」 개정안 도출

□ 현재 「도서관법」의 제21조와 제22조에 준거해 있는 온라인 자료 납본과 수집 규정에 대한 개정안 모색

- 급변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현행 규정이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자료들을 빠짐없이 포섭하고 있는지 정밀 진단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온라인 자료 납본과 수집이 오프라인 자료 납본과 수집의 비중을 압도한지 오래인데, 여전히 오프라인 자료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법의 조문 구조와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하여, 온라인 자료의 규율 비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립중앙도서관고시로서 4개 조문으로 설정되어 있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등 관련 행정규칙 내용 가운데, 온라인 자료 수집과 납본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 연구 과정에서 과감하게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각각 상향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4) 관계법령 종합적 검토를 통한 개정 여지 발굴 및 「도서관법」과의 연계 방안 등 진단 필요

□ 온라인 자료 관련 관계법령(연계법령) 전체 개정 필요성 진단 필요

- 현재 「도서관법」 외에도 저작권법, 만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이 시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등 새로운 입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바, 온라인 자료 정책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현저히 크거나, 정책적 연계가 충분히 가능한 법률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밀하게 진단하여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정책이 법률 관계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더해갈지라도 최대한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외에도 대학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문학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학술진흥법 등도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온라인 자료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내지 동반 개정(옴니버스 빌) 등의 여지가 없을지 빠짐없이 조목조목 진단해볼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자료에 대한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기능 강화 여부 진단

- 현재 자료 납부와 수집에 관하여는 사실상 「도서관법」이 기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이 관련이 있는 여러 다른 법률(타법)과의 내용적 연계(정책적 연결 등) 장치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율되거나 다른 법률의 집행 분야에서 생성되는 온라인 자료 등에 대하여 「도서관법」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계 하에 기본법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방안도 검토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온라인 자료 관련 관계법령 개정안 발굴과 「도서관법」 개정안 도출 하되, 이를 구체적인 신규조문대비표와 조문별이유서 형태로 작성하여 연구성과물로 제시하고자 함

2.1.5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1) 국내외 도서관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 국내외 현황 분석 기반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개발정책 개선 방안 제시

- 해외 주요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개발정책 개선 방안 제시
- 신매체-플랫폼 등장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향에 따른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은 2022년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
 - ▲웹툰, 웹소설 등 출판 및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 ▲음원, 오디오북 등 수집대상 자료에 대한 상세한 예시 등을 추가하여 온라인 수집 대상을 확대함
- 새롭게 추가된 매체와 수집대상 자료 범위의 상세한 예시에 따라 온라인 개발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함

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개발

□ 국내외 온라인 자료 수집 상황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을 제시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침들과의 일관성 및 호환성을 위하여 시대적 흐름과 업무 절차상에 이상이 없는 기본사항 및 지침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인용하여 작성
- 추가로 실제 업무에서 반영되고 있는 온라인 자료 수집관련 업무 매뉴얼을 반영하여 제시

□ 수집의 기본 원칙, 정의, 수집 범위 및 대상 등 제시

- 수집의 기본 원칙
- (수집 범위 및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개발정책(2012)」에서의 온라인 자료 수집범위는 ‘온라인 자료 영역’ 측면과 ‘주제 분야’ 측면의

두 가지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된 전략 개발 제시

– 수집 대상의 경우 우선순위 수집 대상 자료와 기타수집 대상자료, 수집 제외 자료, 수집 대상자원 기본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온라인 자료 입수 유형과 선정 및 관리 시 고려사항

- 온라인 자료 입수 유형인 구입, 기증, 교환, 기타 등 유형별 방법을 제시

- 온라인 자료 선정 및 관리 시 다른 정책과의 관계, 기술적 문제 등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함

□ 수집 세부지침(안) 마련

- 온라인 자료 수집 기본모형, 국가별 수집 세부지침, 생산기관별 수집 세부지침, 수집유형구분 및 결정, 자료 형태(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기타 등)에 따른 세부지침 제시

- 웹아카이빙, 시스템 이식, 파일 전송 및 교환 등 자료 수집 방법 제시

3) 단계별 수집 전략 및 중장기 실천 로드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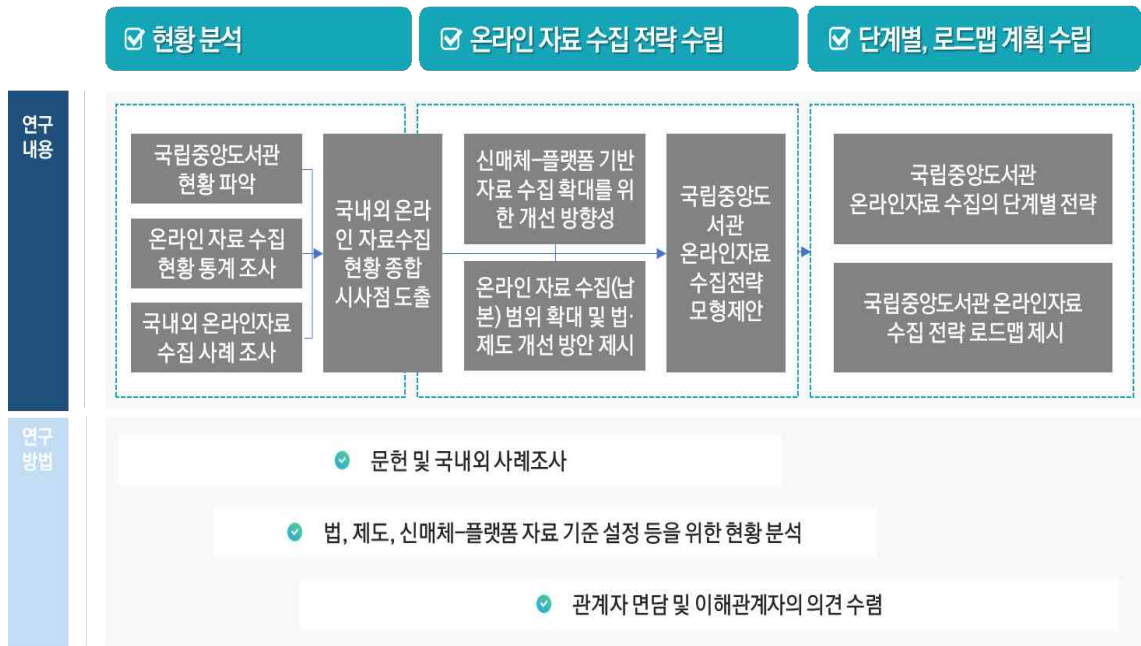
□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에 따른 자료 수집 과제별 시기 선정 이행 로드맵 수립

- 전략적 중요도, 시급성 등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운영 시기를 반영한 이행 로드맵 수립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실천 로드맵은 앞서 제시된 전략을 기반으로 1단계(기반조성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제안 내용) 5년간(2024~2028)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제안 (유형별 수집방안 등)

2.2 수행방법



〈그림 1-1〉 수행방법

□ 문헌 조사: 국내외 온라인 자료 관련 도서, 보고서 등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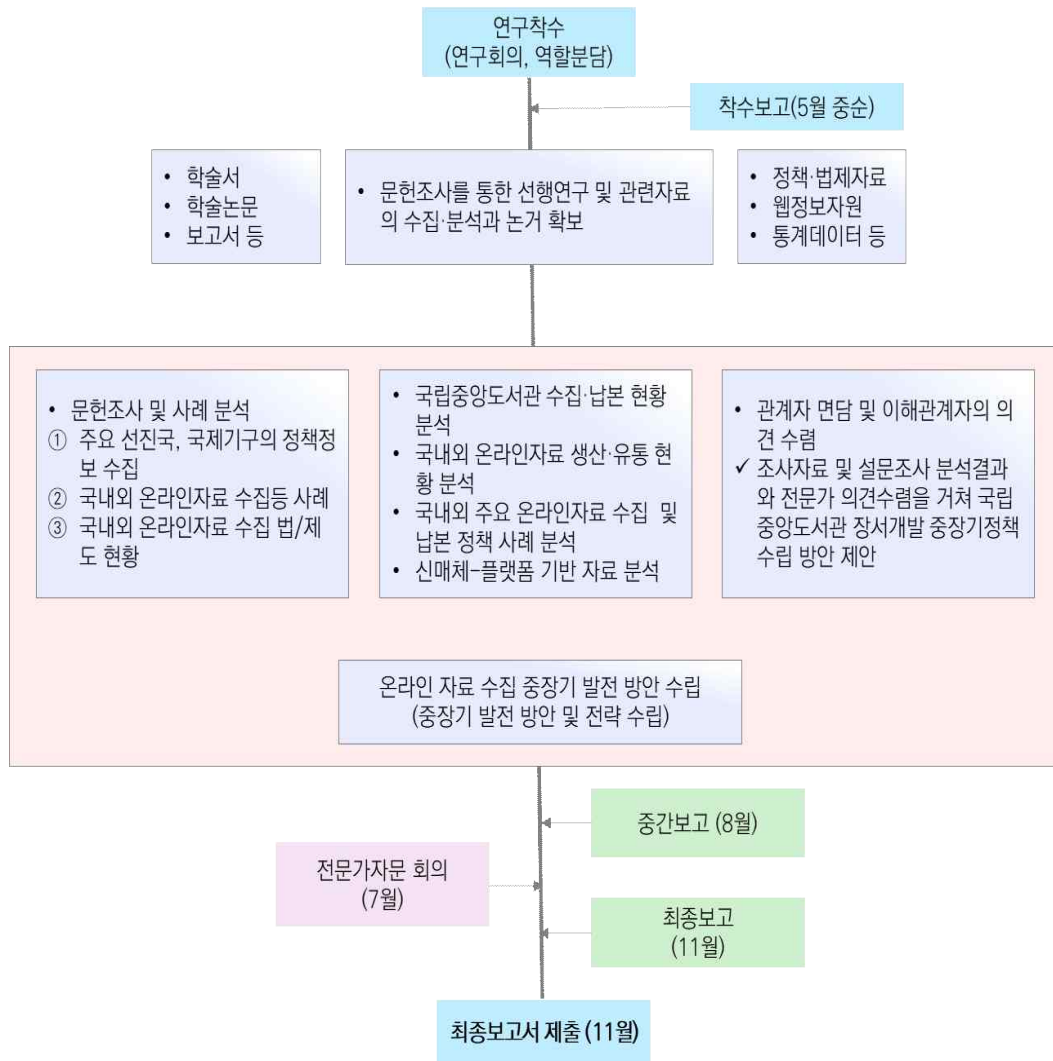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정책 수립에 필요한 제반 조건 이론적 고찰
- 문헌조사 및 국내외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및 온라인 자료 수집 관련 정책 사례 조사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통계 자료 조사
- 해외 주요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조사

□ 관계자 면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조사자료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중장기정책 수립 방안 제안
-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등 5~6인 포함

□ 그 밖에 연구 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방법 활용

2.3 연구 추진체계도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및 흐름도

□ 온라인 자료 개발 정책관련 연구

- 이지연 외(201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개발 정책
 -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온라인 자원을 대상으로 수집범위 및 자료유형별 · 매체별 · 주제별 수집전략 및 지침을 마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의 수준 및 범위를 정비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온라인 자료 수집과 아카이빙 및 서비스의 정책적 근거와 실무적 지침서 제시
- 이지연, 백원근, 이연희(2022) 온라인 자료 수집 보상체계 수립방안 연구
 -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음원의 4가지 온라인 자료의 수집체계와 수집전략을 각 유형별로 수립하고, 가격조사를 통한 정가 및 보상가격의 산정방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손애경, 이은호, 이건웅(2021)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영미권과 유럽권, 아시아권 등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 조사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자료 납본 타임라인 도출
 - 국내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문제점 분석과 방향성을 제시함

□ 수집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윤희윤(2014)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연구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봄. 이에 이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관리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함
- 박승진, 김정택, 박옥남, 최재황(201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

에 관한 연구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의 납본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 단체 및 기업, 이용자, 그리고 납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납본기관이 납본 받아야 할 범위를 규정한 납본 범위에서 납본 불이행 시 납본주체에 대한 제재까지 총 14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최재황, 곽승진, 김정택(200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문화 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납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정연경, 윤택림, 이호신(2019)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후대에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술자료를 주요한 컬렉션으로 구축할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포함하도록 「도서관법」 제19조를 개정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에 구술자료 생산과 수집에 대한 지원 확대 조항을 추가 필요
 - 더불어 구술자료를 하나의 컬렉션으로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 제작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지침 개정 필요
 - 구술자료를 수집할 때, 구술자료의 수집, 관리·보존, 활용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 주체에 따른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구술자 및 면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또한 온라인 서비스 단계에서는 제3자에 대한 익명 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 온라인 보존 관련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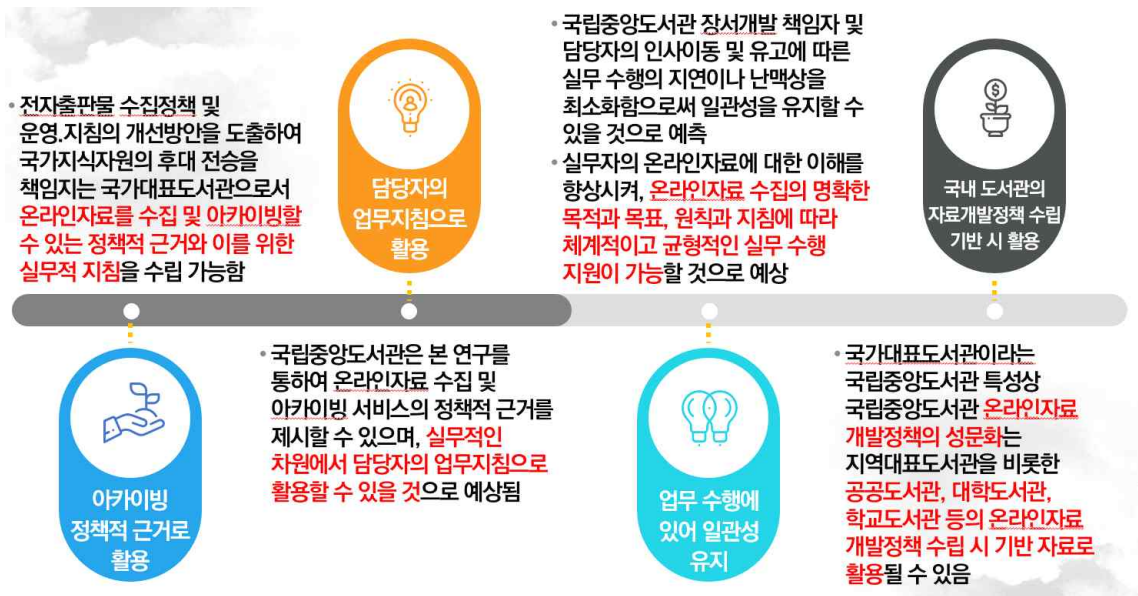
- 이치주(2007) 온라인 연속간행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연구
 -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연속간행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운영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 공공기관, 단체,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 연속간행자료 보존에 따른 운영 모형 개발에 필요한 68개 세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적합성 및 시급성을 조사·분석하여 적합성 분석에 최종 선정된 57개 세부항목을 제시함
- 장보성, 남영준(2010)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이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책의 보존을 위하여 최근 개정 및 개정 준비 중인 주요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과 관련된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 한국의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은 첫째,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 대상 자료로서의 전자책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이 필요, 둘째, 국내 온라인 전자책 제작환경을 고려한 납본 주체의 구체화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함, 셋째, 납본 포맷, 납본 부수, 시기, 방식, 보상과 제재조치, 납본자료의 이용과 매체변환과 같은 법률적 조항의 내용 보완이 필요
- 서은경, 최상희, 박희진, 윤소영, 김지성(2018)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원 보존전략 수립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에 적합한 디지털 보존 정책, 디지털 보존 실무 개선방향, 디지털 보존을 위한 조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이 제시
 - 디지털 보존 정책에는 기술기반의 단기적 보존전략보다는 국가 차원의 비전과 목적달성을 위한 장기적 디지털 보존 개발전략 수립이 개발되어야 할 것
 - 웹사이트와 웹자료는 현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2개의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파일 단위의 웹자료는 납본자료와 유사하게 처리하고 웹사이트는 자동으로 수집하여 메타데이터가 생성되어 원문저장소에 저장이 완료되면 특정 시점을 설정하여 연단위로 추가된 데이터베이스본을 장기보존저장소에 백업형태로 저장하며 웹사이트 구성요소의 포맷을 포맷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원에 적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핵심요소들로만 구성된 PREMIS 개선(안)을 제안
 - KOLIS II와 장기보존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서로 연계하도록 설계하여 확실한 관리 주체에 의해 일관성 있게 운영·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콘텐츠 메타데이

터인 MODS와 METS를 이용하여 패키징하는 장기보존시스템 제안

- 마이그레이션, 인캡슐레이션 등 적절한 보존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성되는 기술 메타데이터를 포맷 레지스트리에 등록, 관리하는 체제의 구축을 제안
- 디지털 장기보존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3단계에서는 장기보존 컬렉션에 기반 한 콘텐츠 재생산, 장기보존 컬렉션 서비스 방안 수립, 장기보존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영역으로 장기보존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로드맵과 장기 전략 수립 제안

4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온라인자료를 중장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집범위 및 자료유형별 · 매체별 · 주제별 수집지침을 마련하여 자료수집의 수준 및 범위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자출판물 수집정책 및 운영.지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가지식자원의 후대 전승을 책임지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온라인 자료를 수집 및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와 이를 위한 실무적 지침을 수립 가능함

-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외 주요 온라인 자료 수집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모형 및 세부 지침을 제안하는데 있음
-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서비스의 정책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담당자의 업무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실무자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온라인 자료 수집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 원칙과 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실무 수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책임자 및 담당자의 인사이동 및 유고에 따른 실무 수행의 지연이나 난맥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국가의 대표도서관이라는 국립중앙도서관 특성상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개발정책의 성문화는 지역대표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온라인 자료 개발정책 수립 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5

용어 정의

□ 디지털 자원(서은경 외, 2018)¹⁾

- 디지털 자원이란 정보를 디지털로 인코드하고 컴퓨터를 통해 접속, 인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배포된 자료로, 디지털자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오프라인 자료와 온라인 자료로 나눌 수 있음
- 오프라인 자료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매체에 고정된 것으로 패키지형 전자출판물이라고도 한다. 오프라인 자료는 복본을 제작하여 배포한다는 점에서 인쇄자료와 유사하다. CD-ROM, 컴퓨터디스켓, DVD 등이 대표적임
-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 PC통신 등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되고 이용되는 것이므

1) 서은경 외 (2018).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원 보존전략 수립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리적 형태가 없다. 온라인 자료는 호스트컴퓨터(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이용자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함으로써 배포되므로 네트워크형 전자출판물이라고도 한다.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각종 웹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온라인 자료는 다시 정적(static) 온라인 자료와 동적(dynamic) 온라인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파일의 내용이 일정하게 고정된 것인데 비해 후자는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속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디지털자료는 처음부터 디지털형태로만 만들어진 자료와 다른 포맷으로 만들어져있던 자료를 디지털 변환한 자료로 구분할 수도 있음(서혜란, 2003)²⁾
- 도서관에서 다루는 디지털자원에는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 스틸 이미지, 사운드레코딩, 동영상, 디지털자료의 편집물(compilations), 멀티미디어자료(multimedia works), 웹사이트, 데이터세트, 지리정보 등이 있음

2) 서혜란 (2003)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20(1), 373-399

제 II 장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1.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 기증 · 자체수집 현황 및 추이 분석**
- 2. 온라인 자료 유형별 출판 및 발행 정보 통계 조사**
- 3. 온라인 자료 납본 · 수집 대상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기증·자체수집
현황 및 추이 분석

1.1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근거

1)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목적과 지침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

- **(목적)**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는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를 국가 디지털 지식 문화유산으로 수집 및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며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자료 수집을 통한 대국민 디지털정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을 제정함
- **(법적 근거)**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22-2호)
- **(기본 방향)** ①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한다. ②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와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은 납본 수집하고, 그 외에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는 자체수집, 수증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수집한다. ③ 해외 소재 자료는 한국관련(북한 포함)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④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조사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수집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2023 제3판)

- 장서개발지침의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생산·제작되는 도서·비도서 중심의 일반자료와 디지털 콘텐츠를 포괄하는 온라인 자료(하이브리드형 도서관자료)를 포함함

- 온라인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함
- 5가지 수집단계 중 혼합수집(Hybrid Collection): 장서개발의 중심은 인쇄자료에 두되,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라이선스 비용, 접근·검색의 편의성, 요구도와 이용 가능성, 보존력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반자료와 온라인 자료를 혼합하여 소장기능과 접근 패러다임의 균형을 추구함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수집하고, 그 외에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는 자체수집, 수증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수집함
-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조사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함

2) 온라인 자료 수집의 법적 당위성

□ 도서관법 제21조, 제22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름

- 「도서관법」 제3조(정의)에서는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되는 자료”라고 정의하였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와 공공간행물의 디지털 파일은 납본으로 수집하고 그 외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서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지정함

□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행태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행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행태에 대하여 지정함

〈표 II-1〉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따름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47호)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발행·제작되는 도서관자료임에도 납본제외자료가 되는 온라인 종류에 대하여 규정함

〈표 II-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47호)

제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발행·제작되는 도서관자료를 납본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료(이하 "납본제외 자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가. 복본자료, 재쇄(중쇄)자료, 원문DB 구축자료
 - 나. 일반적인 자료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내용이 거의 없는 자료
 - 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창작적 요소가 미미한 자료
 - 라. 한 저작물 내에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복사하거나 편집하여 제작한 자료
 - 마.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출판(제작)한 학습·수험·활동 관련 자료
 - 바.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출판물
 - 사. 통상적인 자료의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고가(高價)인 자료
 - 아. 주로 광고정보, 판촉정보, 상품정보를 게재한 자료
 - 자. 그 밖에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온라인 자료

- 가. 출판물 자체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표시하지 않은 자료
- 나.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하는 체험판 또는 웹상에서 연재 중인 자료
- 다. 동일한 내용을 합본과 분책으로 발행한 경우 가독성과 보존·이용가치가 낮은 자료
- 라. 짧은 주기로 연속 발행되어 일반적인 개정판으로 볼 수 없는 자료 (이하 생략)

3) 온라인 자료 납본 대상 및 방법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디지털 파일을 납본 수집함

□ 납본대상과 납본 방법

- 「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 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납본하는 공공간행물은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해 3부로 함
- 대상자료에 해당하는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 자료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며, 구체적인 납본 방법은 <표 II-3>과 같음
- 「도서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함

<표 II-3> 온라인 자료의 납본 관련 법령 내용

구분	내용
대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파일(이하,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납본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국내에서 발행·제작한 개인 또는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납본 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2부 •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3부
납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납본 보상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에 납본되거나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
제출 기한	•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

1.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수집 현황 추이 분석

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수집 현황

□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은 1,300만 오프라인 장서, 1,800만 온라인 장서 확보

- 이는 1965년 우리나라에서 납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얻은 성과로 오프라인 자료 외에 온라인 자료도 1,800만 건 이상(디지털화 자료 1,000만 건과 납본, 자체 수집, 기증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 800여만 건) 소장하고 있음(국립중앙도서관, 2022)
- 2016년 8월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온라인 자료 납본이 의무화되면서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를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함
- 하지만 2016년 8월 온라인 자료 납본이 시행된 직후 납본율은 전자책 2.59%, 전자저널 3.62%에 그쳤으며 2022년 기준 전자책 납본율 16.44%, 전자저널 납본율 48.36%로 전반적으로 납본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자료의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수집 현황을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기증, 자체수집 실태 및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추이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자료의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의 2022년 12월 기준 전체 도서·비도서 장서(누계)는 13,805,208권임
- 등록별 분포 현황에 따르면 국내서가 9,994,972권으로 전체의 72.4%에 달함. 국내서 다음으로는 비도서 1,841,423권, 해외서 1,667,343권, 고문헌 301,470권 순으로 많음

〈표 II-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서 등록별 분포 현황(2022.12.)

(단위 : 권)

계	국내서	비도서	해외서	고문헌
13,805,208 (100%)	9,994,972 (72.4%)	1,841,423 (13.3%)	1,667,343 (12.1%)	301,470 (2.2%)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수집내역별 분포 현황에 따르면 **납본이 10,316,372권으로 전체의 74.7%에 달함**. 납본 다음으로는 구입 1,641,726권, 기증 1,173,760권, 교환 487,500권, 자체생산 185,850권 순으로 많음

〈표 II-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서 수집내역별 현황(2022.12.)

(단위 : 권)

계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13,805,208 (100%)	10,316,372 (74.7%)	1,641,726 (11.9%)	1,173,760 (8.5%)	487,500 (3.5%)	185,850 (1.3%)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2) 국가서지의 수록매체 유형 분석

- 국가서지의 수록매체 유형은 대한민국국가서지의 자료유형, 도서관법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 따른 수집 대상 자료유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국가서지의 수록매체 유형에 따르면, **온라인 자료는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에서도 데이지자료, MP3 등을 온라인 자료로 간주함**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는 2022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 중 온라인 자료 부분, ‘국립중앙도서관 웹자원 수집지침’을 통합하여 새로운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지침을 제정함

3)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추이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납본

-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함. **1)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및 공공간행물의 디지털 파일은 납본 형태로, 그 외에 2)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는 자체수집, 수증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수집함

- ‘납본’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자는 해당 자료를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함
- ‘자체수집’은 도서관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함
- ‘수증’은 도서관자료를 기증받아 수집하는 것을 말함
- 온라인 자료의 수집 대상 및 수집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II-6〉 온라인 자료 수집 대상

구분		대상 자료
웹 자 료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음성·음향 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등), 음향자료(효과음 등) 등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내 웹사이트 및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외 웹사이트
기타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표 II-7〉 온라인 자료 수집 기준

구분	대상 자료	참고
웹자료	대상에 따라 언어, 주제, 내용, 기능성, 파일형식, 이용자유요구, 출판사·저자 권위, 선정도구, 접근성, 기술적 문제, 유지와 갱신 등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선정 기준
웹사이트	신뢰성, 유일성, 적합성, 유용성, 가치성, 대중성, 언어, 시급성,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웹사이트 선별 수집 평가표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은 2022년 12월 기준 전체 18,589,753건의 온라인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중 디지털화자료가 10,041,998건으로 전체의 54%에 해당함
- 그 다음으로 전자저널 5,301,229건, 전자책 1,300,129건, 웹사이트 1,014,135건 순으로 많으며 웹사이트의 경우 오아시스 사업을 통해 수집하고 있음

〈표 II-8〉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소장 현황(2022년 12월 기준)

(단위: 건, %)

자료 유형	소장 수	비율	자료 유형	소장 수	비율
디지털화자료	10,041,998	54.02	장애인대체자료	58,458	0.31
전자저널	5,301,229	28.52	해외기록물	41,207	0.22
전자책	1,300,129	6.99	영상	52,393	0.28
웹사이트	1,014,135	5.46	국외고문헌	17,983	0.10
음성·음향	527,661	2.84	전자신문	2,253	0.01
이미지	232,307	1.25	계	18,589,753	1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및 공공간행물의 디지털 파일을 납본 형태로 수집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자료 유형은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 공공간행물, 학위논문이 있음. 이중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의 경우는 기증 및 자체수집 방법으로도 수집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이전 미수집된 주요 출판사의 소급자료를 납본으로도 수집하고 있음. 2022년 온라인 자료의 납본에는 소급자료 78,920건이 포함되어 있음
- 납본된 온라인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열람용 1부를 제공함. 저작권법을 근거로 동시접속은 1명까지 가능하며 저장, 복사, 인쇄, 화면 캡처 등이 불가능하도록 DRM이 적용된 전용 뷰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도서관 외부에서 이용할 경우는 외부에서 이용하도록 이용 동의를 받은 공공간행물, 학위논문 등에 한해 서비스되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됨. 저장, 인쇄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 허락 범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이함.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을 통해 수집된 온라인 자료를 다양한 보안 방법으로 관리, 보존하고 있음
-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2016년 8월 처음 온라인 자료 납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루어짐. 오프라인 자료의 납본이 1965년 3월부터 현재까지 50여년 동안 시행되며 제도적으

로 안정화된 것과는 달리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그 수가 차츰 증가하고 있음에도 많이 미흡함

－ 도서·비도서 장서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전체 13,805,208책·점 수집되었고 이 중 10,316,372권(74.7%)이 납본 방식으로 수집된 장서지만, 온라인 자료는 2022년 12월 기준 총 18,589,753건이 수집되었음에도 **납본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가 전체의 약 4%밖에 되지 않음**(2017~2022년 납본 수집 현황 기준)

-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을 받은 전자책, ISSN을 받은 전자저널(학술지),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등을 납본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음성 파일 형태의 오디오북은 ISBN을 받은 자료에 한해 시범적으로 납본 받고 있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 방식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의 수집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9〉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현황 추이(2017~2022)

(단위: 건)

수집 방법	자료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납본	전자책	16,785 (14.4%)	16,998 (14.6%)	17,001 (14.6%)	22,598 (19.5%)	23,406 (20.1%)	19,391 (16.7%)	116,179 (14.9%)
	전자저널	5,190 (1.9%)	5,285 (1.9%)	11,174 (4.0%)	132,308 (47.7%)	64,025 (23.1%)	59,372 (21.4%)	277,354 (35.5%)
	음성·음향	3,013 (12.7%)	4,775 (20.1%)	6,143 (25.9%)	5,207 (21.9%)	4,455 (18.8%)	157 (0.7%)	23,750 (3.0%)
	공공간행물	11,525 (7.6%)	24,303 (16.0%)	36,635 (24.1%)	27,162 (17.8%)	27,019 (17.7%)	25,682 (16.9%)	152,326 (19.5%)
	학위논문	34,679 (16.4%)	36,103 (17.0%)	40,149 (19.0%)	35,434 (16.7%)	32,883 (15.5%)	32,617 (15.4%)	211,865 (27.1%)
소계		71,192	87,464	111,102	222,709	151,788	137,219	781,474 (100%)

*2020년 전자저널 납본 건수: 소급자료의 일괄 납본 포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 방식으로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유형은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 공공간행물, 학위논문이 있음
- － **전자책의 경우** 2017~2022년 누적 116,179건이 납본으로 수집되었으며, 가장 많은 전자책이 수집된 해는 2021년으로 총 23,406건(20.1%)의 전자책이 납본 수집됨. 전자책은 2017년 16,785건(14.4%)에서 2021년 23,406건(20.1%)으로 꾸준히 납본량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 19,391건(16.7%)으로 다시 감소함
- － **전자저널의 경우** 2017~2022년 누적 277,354건이 납본으로 수집되었으며, 가장 많은

전자저널이 수집된 해는 2020년으로 총 132,308건(47.7%)의 전자저널이 납본 수집됨. 전자저널은 2020년 이후로 수집량이 증가함

- **음성·음향의 경우** 2017~2022년 누적 23,750건이 납본으로 수집되었으며, 2017년 3,913건(12.7%)부터 2019년 6,143건(25.9%)로 증가하다 2020년 5,207건(21.9%), 2021년 4,455(18.8%)로 감소하더니 2022년 157건(0.7%)으로 대폭 감소함. 음성·음향은 전체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중 가장 적게 수집된 자료유형임
- **공공간행물의 경우** 2017~2022년 누적 152,326건이 납본으로 수집되었으며, 가장 많은 공공간행물이 수집된 해는 2019년으로 총 36,635건(24.1%)의 공공간행물이 납본 수집됨
- **학위논문의 경우** 2017~2022년 누적 211,865건이 납본으로 수집되었으며, 2017년 34,679건(16.4%)에서 2019년 40,149건(19.0%)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35,434건(16.7%), 2021년 32,883건(15.5%), 2022년 32,617건(15.4%)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수집량의 증감폭이 크지 않아 매해 일정한 수준의 학위논문이 납본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납본 유형으로 가장 많이 수집된 온라인 자료 유형은 전자저널(35.5%)으로, 학위논문(27.1%), 공공간행물(19.5%), 전자책(14.9%), 음성·음향(3.0%) 순으로 많음

□ 전자책의 ISB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 전자책은 개정 도서관법 시행(16.8.4)에 따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전자책+오디오북)에 한해 납본 대상에 포함됨
- 납본대상은 연재중인 자료를 포함한 ISBN 부여 건수를 말하며, 납본건수는 연재중인 자료를 제외한 납본 완료 건수를 말함
- 2022년부터 오디오북 등록 및 서비스 방법의 변경으로 통계기준이 건에서 종으로 변경됨
- **전자책 납본**은 개정 도서관법 시행 직후에는 전체 납본대상 70,070건 중 납본건수 1,818건으로 납본율이 2.59%에 그쳤으나 2017년 납본대상 136,334건 납본건수 19,798건으로 납본율이 14.52%로 증가함. 이후 2018년 16.23%, 2019년 19.98%, 2020년 23.98%, 2021년 24.01%로 매해 **증가 추세를 보임**
- 2022년 납본대상 118,391건, 납본건수 19,548건, 납본율 16.51%로 전년 대비 납본율이 약 7.5%p 감소하였으나, 2023년 8월 기준 전체 납본대상 87,784건 대비 납본건

수 17,663건으로 납본율 20.12%로 다시 납본율이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평균 전자책 납본대상 건수는 116,683건으로 11만 건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납본건수는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표 II-10〉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전자책)

구분	전자책		
	납본대상	납본건수	납본율
2016.8	70,070건	1,818건	2.59%
2017	136,334건	19,798건	14.52%
2018	134,187건	21,773건	16.23%
2019	115,872건	23,144건	19.98%
2020	115,961건	27,805건	23.98%
2021	116,044건	27,861건	24.01%
2022	118,855건	19,548건	16.51%
2023.8	87,784건	17,663건	20.12%
소계	894,643건	159,410건	17.24%

□ 전자저널의 ISS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 전자저널은 개정 도서관법 시행(16.8.4)에 따라 국제표준도서번호(ISSN)을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전자잡지, 전자신문 등)에 한해 납본 대상에 포함됨
- 납본대상은 현재 간행 중인 ISSN 부여 건수를 말하며 종 단위를 사용, 누적됨
- 납본종수는 납본 완료 건수로,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2021년도부터 당해연도 납본 종수를 누적 납본종수로 통계기준 변경하여 집계함
- 전자저널의 납본대상과 납본종수의 단위는 종으로, 통계가 누적되기 때문에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해는 2020년 29.90%에서 2021년 39.71%로, 전년대비 355종이 추가로 납본되어 납본율이 9.81%p 증가함

〈표 II-11〉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전자저널)

구분	전자저널		
	납본대상	납본건수	납본율
2016.8	1,350종	49종	3.62%
2017	1,493종	98종	6.56%
2018	1,694종	131종	7.73%
2019	2,131종	393종	18.44%
2020	2,943종	880종	29.90%
2021	3,110종	1,235종	39.71%
2022	3,394종	1,633종	48.11%
2023.8	3,643종	1,983종	54.43%
평균	2,469종	800종	26.06%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외 수집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 22조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를 납본 외의 방법인 기증과 자체수집을 활용해 수집하고 있음.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수집으로는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협력으로 음원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력으로는 웹툰을, 한국연구재단과의 협력으로는 전자저널을 수집하는 등의 방식임
-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수집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자료 납본율의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온라인 자료 수집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온라인 자료의 선정과 수집을 위한 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기도 함(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온라인자료분과,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수집 실무 TF팀 구성 및 운영 등)
- 또한 오아시스(OASIS) 사업과 연계하여 텍스트 파일 중심에서 동영상, 이미지 파일 등으로 수집 범위를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웹사이트도 오아시스(OASIS) 사업을 활용해 웹수집기로 자동 수집하며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해당 자료가 있는 누리집에 들어가 직접 수집하거나 오프라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기증을 받기도 함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 외의 방식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의 수집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증)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증을 통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유형은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이 있음
 - 음성·음향 자료는 2020년 이후로 수집되지 않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2022년 12월 기준 전체 18,589,753건의 온라인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기증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의 2017~2022년 누적 건수는 1,594,057건으로 이는 전체의 8.57%에 해당함
 - 기증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전자저널(1,471,998건)이며, 전자책(67,746건), 음성·음향(54,313건) 순으로 많음

〈표 II-1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기증 수집 현황 추이(2017~2022)

(단위: 건)

수집 방법	자료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기증	전자책	43,679 (64.5%)	1,018 (1.5%)	3,743 (5.5%)	18,837 (27.8%)	321 (0.5%)	148 (0.2%)	67,746 (4.2%)
	전자저널	1,285,804 (87.4%)	45,955 (3.1%)	49,832 (3.4%)	41,939 (2.8%)	25,303 (1.7%)	23,165 (1.6%)	1,471,998 (92.3%)
	음성·음향	16,684 (30.7%)	19,791 (36.4%)	17,838 (32.8%)	-	-	-	54,313 (3.4%)
소계		1,346,167	66,764	71,413	60,776	25,624	23,313	1,594,057 (100%)

- (자체수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체수집을 통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유형은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 장애인 대체자료, 웹사이트, 해외기록물이 있음
 - 자체수집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국가 도메인(.kr, .한국 등) 웹사이트 수집을 포함함
 - 자체수집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 해외기록물은 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 원문 디지털화 수집을 말함. 2022년의 경우 810건 전부 러시아국립도서관 소장 북한자료 등의 디지털화 수집 건임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소장 현황에 따르면 자료 유형은 디지털화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웹사이트, 음성·음향, 이미지, 장애인대체자료, 해외기록물, 영상, 국외고문헌, 전자신문으로 나뉨.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는 온라인 자료의 대부분의 유형은 자체수집 방식으로 수집되는 자료들임
 - 국립중앙도서관은 2022년 12월 기준 전체 18,589,753건의 온라인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체수집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의 2017~2022년 누적 건수는 1,571,545건임. 이는 전체의 8.45%에 해당함
 - 자체수집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웹사이트(1,048,081건)며, 전자저널(150,338건), 전자책(122,865건), 음성·음향(94,247건), 장애인 대체자료(73,192건), 영상(47,724건), 이미지(25,286건), 해외기록물(9,812건) 순으로 많음
 - 전자책, 영상, 웹사이트, 해외기록물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수집하고 있으

며, 전자저널과 이미지자료는 2020년 이후부터 수집하고 있음. 음성·음향의 경우 2017년에 자체 수집을 하고 2018~2019년은 수집하지 않고 2020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자체 수집하고 있음

〈표 II-13〉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자체 수집 현황 추이(2017~2022)

(단위: 건)

수집 방법	자료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자체 수집	전자책	7 (0.0%)	20,265 (16.5%)	20,537 (16.7%)	36,390 (29.6%)	21,037 (17.1%)	24,629 (20.0%)	122,865 (7.8%)
	전자저널	-	-	-	56,884 (37.8%)	47,592 (31.7%)	45,862 (30.5%)	150,338 (9.6%)
	음성·음향	16,684 (17.7%)	-	-	27,653 (29.3%)	25,348 (26.9%)	24,562 (26.1%)	94,247 (6.0%)
	영상	5,246 (11.0%)	5,986 (12.5%)	6,093 (12.8%)	11,236 (23.5%)	9,205 (19.3%)	9,958 (20.9%)	47,724 (3.0%)
	이미지	-	-	-	23,840 (94.3%)	19 (0.1%)	1,427 (5.6%)	25,286 (1.6%)
	장애인 대체자료	7,149 (9.8%)	36,523 (49.9%)	16,030 (21.9%)	-	7,068 (9.7%)	6,422 (8.8%)	73,192 (4.7%)
	웹사이트	242,623 (23.1%)	220,247 (21.0%)	195,372 (18.6%)	133,354 (12.7%)	128,438 (12.3%)	128,047 (12.2%)	1,048,081 (66.7%)
	해외기록물	3,684 (37.5%)	1,930 (19.7%)	1,172 (11.9%)	760 (7.7%)	1,456 (14.8%)	810 (8.3%)	9,812 (0.6%)
소계		275,393	284,951	239,204	290,117	240,163	241,717	1,571,545 (100%)

• 자료유형별 자체수집

- 전자책은 2020년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외의 년도는 16.5%~20% 정도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전자저널은 2020년부터 자체수집이 이루어졌고 2020년 37.8%, 2021년 3.17%, 2022년 30.5%로 비슷한 수준으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음성·음향은 2017년(17.7%) 수집이 되고 2018년~2019년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음. 그 이후 2020년(29.3%), 2021년(26.9%), 2020년(26.1%)으로 비슷한 비율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상은 2017년~2019년까지 11.0%~12.8% 수준으로 수집되다가 2020년(23.5%), 2021년(19.3%), 2022년(20.9%)로 비슷한 수준으로 수집이 이루어짐
- 이미지는 2020년(93.4%) 자체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크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장애인대체자료는 2018년(49.9%) 자체 수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근 2021년(9.7%), 2022년(8.8%)로 수집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웹사이트는 매년 꾸준히 자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기록물은 2017년 37.5%로 가장 많이 수집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임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유형별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유형 중 납본, 기증, 자체수집으로 모두 수집되는 유형은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 자료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납본, 기증, 자체수집으로 수집된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 자료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14>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유형별 온라인 자료 누적 수집 현황(2017~2022)

(단위: 건)

자료유형	납본	기증	자체수집	계(100%)
전자책	116,179(37.9%)	67,746(22.1%)	122,865(40.0%)	306,790
전자저널	277,354(14.6%)	1,471,998(77.5%)	150,338(7.9%)	1,899,690
음성·음향	23,750(13.8%)	54,313(31.5%)	94,247(54.7%)	172,310
계	417,283(17.5%)	1,594,057(67.0%)	367,450(15.5%)	2,378,790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 기증, 자체수집 방식을 통해 수집한 전자책은 306,790건으로 2022년 12월 기준 소장 중인 전체 전자책 1,300,129건의 약 23%임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 기증, 자체수집 방식을 통해 수집한 전자저널은 1,899,690건으로 2022년 12월 기준 소장 중인 전체 전자저널 5,301,229건의 약 35%임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 기증, 자체수집 방식을 통해 수집한 음성·음향 자료는 172,310건으로 2022년 12월 기준 소장 중인 전체 음성·음향 자료 527,661건의 약 32%임
-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 자료를 누적 수집으로 보면, 기증 방식이 가장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고(1,594,057건 67.0%) 납본(417,283건 17.5%), 자체수집(367,450건 15.5%) 순으로 많음
 - 전자책은 자체수집이 40.0%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납본 37.9%, 기증 22.1%로 나타남
 - 전자저널은 기증이 77.5% 가장 높고, 다음은 납본 14.6%, 자체수집이 7.9%로 나타

남

- 음성·음향은 자체수집이 5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증 31.5%, 납본 13.8% 순으로 나타남

□ 국립중앙도서관 수집유형별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의 2017~2022년 기준 수집유형별 온라인 자료의 누적 수집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15〉 국립중앙도서관 수집유형별 온라인 자료 누적 수집 현황(2017~2022)

(단위: 건)

수집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납본	71,192 (9.1%)	87,464 (11.2%)	111,102 (14.2%)	222,709 (28.5%)	151,788 (19.4%)	137,219 (17.6%)	781,474 (19.8%)
기증	1,346,167 (84.4%)	66,764 (4.2%)	71,413 (4.5%)	60,776 (3.8%)	25,624 (1.6%)	23,313 (1.5%)	1,594,057 (40.4%)
자체수집	275,393 (17.5%)	284,951 (18.1%)	239,204 (15.2%)	290,117 (18.5%)	240,163 (15.3%)	241,717 (15.4%)	1,571,545 (39.8%)
합계	1,692,752 (42.9%)	439,179 (11.1%)	421,719 (10.7%)	573,602 (14.5%)	417,575 (10.6%)	402,249 (10.2%)	3,947,076 (100%)

- 가장 많은 자료를 수집한 방식은 기증으로 1,594,057건(40.4%)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함. 이는 2022년 12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온라인 자료 18,589,753건의 8.57%에 해당함
 - 기증 다음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한 방식은 자체수집으로 1,571,545건(39.8%)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함. 이는 2022년 12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온라인 자료 18,589,753건의 8.45%에 해당함
 - 납본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중 가장 적은 자료를 수집한 방식으로 787,474건(19.8%)의 자료가 납본 방식으로 수집됨. 이는 2022년 12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온라인 자료 18,589,753건의 4.20%에 해당함
- 온라인 자료 납본법이 2016년 8월에 시행되어 기증, 자체수집보다 늦게 시행되었으나 이미 오프라인 납본 제도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서의 74.7%를 차지하는 수집 방식이 납본인만큼 온라인 자료의 납본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1 웹자료 출판·발행 정보 통계 조사 및 분석

1) 웹자료(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유형

- 콘텐츠를 제공하는 매체 특성을 기준으로 크게 전자책, 앱북, 오디오북, 웹소설, 웹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자책의 경우 기존 출판시장과의 연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작가를 발굴해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서비스

〈표 II-16〉 주요 전자책 플랫폼의 구독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교보문고sam	리디셀렉트	밀리의서재	예스24북클럽
서비스 개시일	2013년 2월	2018년 7월	2017년 10월	2018년 11월
회원 수	미공개	미공개	약300만 명	약 30만 명
보유도서	약15만권	미공개	약10만권	약1만권
제휴출판사	약 4,000개	미공개	약 1,000개	584개

* 출처: 독서신문(2021.03.16.), “전자책 급속 확장에 국내외 출판계는 기대반 우려반”

- 웹소설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창작자와 이용자가 매개되는 형태이며 국내 주요 3대 웹소설 플랫폼인 네이버시리즈, 리디북스, 카카오페이지 3사의 Page View 점유율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17〉 웹소설 플랫폼 3사의 연도별 작품 현황

연도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카카오페이지		연도별	연도별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작품	누적 작품
2016	5,056	21,210	365	649	3,280	7,873	8,701	29,732
2017	5,378	26,588	1,197	1,846	3,488	11,361	10,063	39,795
2018	6,958	33,546	1,181	3,027	3,940	15,301	12,079	51,874
2019	8,519	42,065	1,368	4,395	4,991	20,292	14,878	66,752
2020	9,519	51,584	1,791	6,186	5,531	25,823	16,841	83,593
합계	35,430	174,993	5,902	16,103	21,230	80,650	62,562	271,746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1.12) “전자출판 산업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 웹툰 역시 웹소설과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작자와 이용자가 매개되는 웹콘텐츠 유형임. 웹툰 플랫폼 양대 플랫폼이 전체 트래픽의 73.2%를 차지함

〈표 II-18〉 웹툰 주요 플랫폼 현황

순번	이름	PV(Page View)	비율(%)	순번	이름	PV(Page View)	비율(%)
1	네이버 웹툰	14,100,398,604	41.8	10	무툰	155,484,699	0.5
2	카카오 페이지	8,345,392,001	24.7	11	버프툰	92,513,137	0.3
3	리디북스	3,066,990,774	9.1	12	배틀코믹스	77,401,901	0.2
4	레진	1,723,585,234	5.1	13	미소설	73,080,620	0.2
5	다음웹툰 (카카오웹툰)	1,434,729,496	4.3	14	미스터블루	56,632,501	0.2
6	탑툰	1,406,422,572	4.2	15	코미코	53,220,310	0.2
7	투믹스	1,152,911,720	3.4	16	케이툰	50,993,334	0.2
8	네이버시리즈	794,824,977	2.4	17	피너툰	37,763,272	0.1
9	봄툰	573,836,438	1.7	18	기타	536,402,801	1.6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1.12) “전자출판 산업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 오디오북은 온라인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플랫폼은 교보문고와 같은 오프라인 출판사나 YES24, 밀리의 서재 등이 있음

- 오디오북 시장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13년 ~ 2016년까지 매년 400~600개의 오디오북이 출시됨. 2018년에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총 6,395개의 오디오북이 출시되었고, 2018년~2020년 3개년동안 19,649개(77.6%) 출시됨

2) 웹자료(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출판 및 발행 현황

- 웹자료 출판 및 발행 정보 통계 조사 및 분석

- 전자책 유형별 등록 종수를 일반 단행본, 장르 단행본, 웹소설, 웹툰,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19〉 전자책 유형별 등록 종수

구분	평균 등록 종 수
일반 단행본	179,025
장르 단행본	165,875
웹소설(독점작품기준)	588
웹툰(독점작품기준)	1
기타(만화/코믹스/학술논문 등)	21,143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웹소설 장르별 등록 종수

– 최근 5개년 등록 작품 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20〉 웹소설 플랫폼 3사의 연도별 작품 현황

연도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전체	
	등록 작품수	비율(%)	등록 작품수	비율(%)	등록 작품수	비율(%)	등록 작품수	비율(%)
2016	3,280	15.4	5,056	14.3	365	6.2	8,701	13.9
2017	3,488	16.4	5,378	15.2	1,197	20.3	10,063	16.1
2018	3,940	18.6	6,958	19.6	1,181	20	12,079	19.3
2019	4,991	23.5	8,519	24	1,368	23.2	14,878	23.8
2020	5,531	26.1	9,519	26.9	1,791	30.3	16,841	26.9
합계	21,230	100.0	35,430	100.0	5,902	100.0	62,562	100.0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1.12)

• 오디오북 유통사 출시 연도별 작품 현황

– 주요 유통사 7곳이 서비스하고 있는 오디오북의 출시연도별 작품 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21〉 주요 오디오북 출시 연도별 작품 현황(2021)

연재시작 연도	등록 작품 수(개)	비율(%)
2006~2017	5,660	22.4
2018	6,395	25.3
2019	6,636	26.2
2020	6,618	26.1
합계	25,309	100.0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2 웹사이트 통계 조사 및 분석

1) 오아시스(OASIS) 사업을 통해 수집된 웹사이트 정보 통계

□ 웹자원 수집 현황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보존 프로젝트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웹자원 수집 현황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표 II-22〉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웹자원 수집 현황(2018~2022)

자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웹사이트	126,383	120,058	133,354	128,438	128,047	502,926
웹자료	93,864	75,314	75,809	103,201	99,128	573,699
계	220,247	195,372	209,163	231,639	227,175	1,076,625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오아시스(OASIS) 홈페이지

□ 자료유형별 수집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이 오아시스 사업을 통해 수집하는 웹자원의 자료 유형은 웹사이트와 문서, 동영상, 이미지가 있음. 이중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웹페이지, 블로그, 온라인잡지, 뉴스, 보도자료, 카드뉴스를 포함하여 수집하고 있음
- 자료유형별 수집 현황에 따르면, 웹사이트 650,069건, 웹문서 1,066,904건, 동영상 11,350건, 이미지 30,143건임(오아시스 누리집 서비스 기준 (2023.8.31.))

□ 주제별 수집 현황

- KDC 주제별 수집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23〉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주제별 수집 현황(2023. 6)

(단위: 건)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54,940	10,037	16,983	518,664	34,948	316,328	60,461	11,011	31,722	40,886

□ 웹트렌드 분석

- 오아시스 웹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웹 사이트에서 나타난 특정 단어의 관심도(웹 페이지에 나타난 특정 단어의 출현율) 변화 추이와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 2012년 이후의 웹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검색과 시각화 분석도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임

2)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본 방침 및 수집 방법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기본 방침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II-24〉 국외자료의 기본 방침 및 수집 방법

대상	내용
기본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는 디지털화 하여 수집한다. • 외국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한국 관련 자료는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 북한 자료는 그 형태나 발행연도, 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자료 등 동북아 지역의 발간자료 중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 있는 정책자료는 중점 수집한다.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및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 등과 상호협력한다.
수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등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자료 중 도서관 미소장본으로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 • 북한 관련 자료 • 기타 도서관장이 디지털화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	--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수집대상 및 범주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대상 및 범주는 다음과 같음

〈표 II-25〉 국외자료의 수집대상 및 범주

대상	범주	내용
도서	한국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발행 한국관련 자료(북한자료 포함) 및 한국인이 집필한 자료 • 한국의 영토·영해와 관련된 지도, 세계지도집 등 • 한국인의 외국 박사학위논문 자료 • 일본의 독도관련 자료, 중국의 대외정책관련 자료 등 동북아 국가의 전략적 자료
	주제별 학술 연구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심의 주제별 최신 개론서, 학술서, 실용서 등 •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주제자료 • 세계 고전 및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수상작품의 원본 자료 • 서지류, 백과사전, 편람, 연감, 통계 인명사전, 용어색인 등 참고자료 • 다양한 매체로 발행되는 자료에 대해 당관 이용환경, 보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매체를 선택하여 수집
	국가별 정책지원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대륙별 문화, 풍습, 풍물, 지리, 통계에 관한 자료 • 국가의 제도나 정책에 관한 자료 •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국가 등 인접국가 및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관련 자료 우선 수집
	다문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다문화인 해당국의 역사, 문화, 문학, 언어 등과 관련된 자료
연속 간행물	학술지/잡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특성상 계속성 및 일관성 유지 • 주제분야별 학술지, 시사지 등 중점수집·구독 • 이용률이 낮은 자료는 구독 중단 • 구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 : 국제교환·기증수집자료 및 CD-ROM으로 수집되는 자료, 전자저널과 중복되는 자료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 주 교역국의 중요 신문 구독

- 외국에서 발생하는 한국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주요 국가에서 발간하는 주제별 학술연구자료의 체계적 수집이 이루어져야 함

〈표 II-26〉 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 원문 디지털화 수집(2018~2022)

자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한국관련 기록물 원문 디지털화 수집	1,930	1,172	760	1,456	810	6,128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 해외 한국 관련 자료 디지털화 수집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생산자료와 연계하고 있음

〈표 II-27〉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관련 소장 현황(2022.6)

국가	기관	건		면		해제현황
		N	%	N	%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NARA)	39,301	95.19	3,135,036	95.29	일부 문서군 해제 (59,84,242)
미국	중앙정보국 (CIA)	1,456	3.53	29,350	0.89	주요 자료 해제 (자료집 없음, 파일 형태)
독립국가 연합	CIS 지역 생산 자료	92	0.22	22,140	0.67	목록집/해제집 발간, 카드뉴스 제작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3 시사점

□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새로운 유형 자료 발굴 확대

- 방송, 강의, 인터뷰 등 보존가치가 있는 다양한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및 웹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여 납본 및 자체 수집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자료 등록 및 관리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기증, 자체 수집된 자료와 신규 콘텐츠 발굴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수집 확보를 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자료를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오아시스(OASIS) 고도화 필요
- 공개된 웹자료 및 회색문헌 등 수집 강화(eISSN 미부여 학회지, 대학부설연구소 OA자료 등 보존가치가 높은 학술지 원문 및 서지정보 수집). 그리고 웹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자료 유형에 대한 분류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필요

□ 온라인 자료가 적시에 수집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온라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변동성이 크고 휘발성이 있음. 이에 웹사이트의 폐쇄 등으로 인한 디지털 자료의 소멸로 수집·보존·전송되지 않는 자료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온라인 자료의 빠른 생산 속도를 따라가고 소멸 전 적시에 수집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수집 대상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온라인 자료 수집 지침이 수립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함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의 확대

- 현재 미국 중심의 한국 관련 문서가 대부분이며, 타 국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임. 이에 다양한 국가로 자료 수집의 확대를 넓힐 필요가 있음

3.1 납본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1) 문제점 및 필요성

-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2016년 8월 처음 온라인 자료 납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루어짐. 온라인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이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우선, 수집 대상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온라인 자료 수집 지침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
- 도서 · 비도서 장서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전체 13,805,208책 · 점 수집되었고 이 중 10,316,372권(74.7%)이 납본 방식으로 수집 되었지만, 온라인 자료는 2022년 12월 기준 총 18,589,753건이 수집되었음에도 납본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가 전체의 약 4%밖에 되지 않음(2017~2022년 납본 수집 현황 기준)

2) 개선방향 및 정책

□ 온라인 자료 납본의 정착을 위한 법률 개정

-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개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납본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현실적인 정의 및 개념화,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 ISSN 등 표준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이후 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납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납본 받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제시하고, 현실을 반영한 납본 비용 및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영구소장과 이용범위)에 대한 기준 등 납본 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률 개정 및 법제화 필요

□ 온라인 자료의 납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온라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변동성이 크고 휘발성이 있음. 이에 ISBN · ISSN · 납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납본이 안된 자료는 자동으로 출판사 및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 ISSN 등 표준식별체계를 부여받아 콘텐츠를 생산하는 출판

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이후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납본될 수 있도록 안내(1차, 2차, 3차)

- 웹사이트의 폐쇄 등으로 인한 디지털 자료의 소멸로 수집·보존·전송되지 않는 자료 발생. 온라인 자료의 빠른 생산 속도를 따라가고 소멸 전 적시에 수집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납본은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30일 이내에 납본을 해야하는데 영상자료, 음성·음향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납본 등록 기간을 현실화하여 납본율을 높여야 함

3.2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 유형의 명확화

1) 문제점 및 필요성

-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환경 변화에 따라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 변동성이 큰 온라인 환경과 신매체-플랫폼 자료가 증가하고 있어 주기적 점검 필요함
- 웹자료의 유형의 경우 1인 출판사를 통한 제작 및 유통, 멀티미디어 삽입(동영상, 음악 등), 쌍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유통 및 서비스하는 플랫폼 또한 다양하게 존재함. 이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자료 유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2) 개선방향 및 정책

□ 구체적인 온라인 자료 유형의 명확화

-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의 개정 시행을 통해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집대상 자료에 대한 상세한 예시를 추가하는 등 온라인 자료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자료유형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연이어 신매체가 등장하고 활용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온라인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을 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수집 지침이 필요함

□ 다양한 신매체 수집의 확대

- 현재 지침은 납본, 기증, 자체수집으로만 온라인 자료 수집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매체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대해서는 자체수집 방식의 수집을 제시하고 있음

- 자체수집은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납본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를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집하는 방식이며, 기타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자체수집을 통한 수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만 신매체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그 속도와 양을 따라가는 데에 한계가 있음. 신매체를 통해 생성되는 온라인 자료의 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침에 명시하고 자체수집 외에 납본 및 기증 방식으로 최대한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3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지침 확대 근거 마련

1) 문제점 및 필요성

-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통해 납본, 자체수집, 수증의 3개 방법으로 수집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 중 납본 수집 지침에 따르면 납본을 통한 수집 자료의 대상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파일로 정함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중에서 납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 ① 파일 내 전자출판물에 대한 ISBN 미기재자료
 - 파일 검증(서지사항, 파일 상태 등 판별)을 위해 ISBN 필수 기재
-
- ② 일반적인 자료의 형태 및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
 -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하는 체험판
 - 웹상에서 연재 중인 자료
 - 50면(본문) 미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분량(글자수 등)에 상응하지 않는 자료
 - 특정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OS) 환경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표지 및 판권지(면) 없이 본문만 있는 자료
-
- ③ 출판사항, 형태사항, 파일형식 등은 다르면서 내용이 동일한 자료(복본자료)
 - 도서관 소장자료 또는 원문 구축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자료
 - 표지의 서명만 약간 다르고 내용이 동일한 자료
 - 합본으로 발행된 자료를 분책하여 재발행한 자료(개별자료로 나누어 중복제작)
 - 납본 시행일 이전에 발행제작한 전자책을 내용 개정 없이 ISBN만 바꾼 자료
 - 발행주기가 짧거나 내용 수정이 미미하여 일반적인 개정판으로 볼 수 없는 자료
-
- ④ 내용을 반복적으로 복사하거나 편집하여 제작한 자료
 - 특정내용 또는 페이지를 반복 복사하여 자료의 전체 분량을 늘린 자료
 - 다른 저작물의 내용을 단순 반복적으로 편집하여 창작적 요소가 미미한 자료
-

⑤	납본 시행일 이전에 발행·제작한 일반도서를 납본 시행일 이후에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료
⑥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제작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 액세스 자료 - 문학작품(국내외), 성경, 불경 등 저작권 만료 자료 - 사전류, 명언집, 속담집, 댓글모음 등 - 법률, 조례 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³⁾ -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생성된 자료
⑦	죽보, 영인자료, 단순 스캔자료
⑧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출판(제작)한 학습·수험·활동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수강생 및 특정 집단만을 위해 제작한 학습 교재, 수험 자료, 활동 결과물, 강의 자료, 방문 학습 교재 등
⑨	통상적인 유통경로나 판매 방식에 따라 판매·유통·제공되지 않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만 판매·유통·제공하는 자료 - 소수의 특정대상(회원, 가족, 지인 등)에게만 판매·유통·제공하는 자료
⑩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기사, 노래가사 모음집, 논문초록 모음집 등 - 인터넷상 공개된 인물사진, 작품사진 등
⑪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한 반려 처리 자료 및 그와 유사한 자료
⑫	그 외 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제3조제2항 및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의 납본 제외 기준을 준용한다.
⑬	단, 납본 제외 자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을 우선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전체 온라인 자료 소장 건수 18,589,753건에 비해 납본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4% 수준에 불과함. 반면 기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체의 8.57%, 자체수집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체의 8.45%로 납본의 약 2배임
- 납본을 우선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나, 온라인 자료의 경우 전자책 출판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으며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출판되고, 더 나아가 게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의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ISBN, ISSN 발급 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본으로는 수집할 수 없음
- 그러나 납본의 기준이 되는 ISBN은 납본 제외 대상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출판이나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료도 다수로, 현재 지침에서 규정된 내용만으로 납본 수집을 진행하기에는 정확한 수집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가 다소 어려움을 겪음

3)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 개선방향 및 정책

□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대상의 확보 방안 마련

- ISBN의 발급 대상 자료에는 인터넷상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전자출판물과 인터넷상 또는 물리적 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오디오북 등이 포함됨. 그러나 전자출판물과 오디오북 등 전자책 출판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수집 대상 파악이 어려움
- 믿을만한 전자책 출판 통계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 대상과 근거 마련 시 필요함. 믿을만한 전자책 출판 통계를 근거로 온라인 자료의 수집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을 모색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국내 납본 수집 대상 자료의 발행·제작 현황 파악 기반 조성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의 대상을 각각 세분하여 발행 또는 제작현황을 분석하거나 세계전자책출판물 현황, 최근 5년간 전자출판물 발간 현황 등 통계 기반 현황을 통해 납본 및 수집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납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3.4 디지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선제적 대응

1) 문제점 및 필요성

-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더이상 책에만 국한되지 않음. 이에 맞게 다양한 매체(이미지,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서비스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이용률은 238%(2021년 5월)로, 온라인 자료에 대한 요구는 교육·문화 분야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이용자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 매체로 제공 받고자 함
- 개정 도서관법 시행(2016.8)에 따라 전자출판물(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전자신문 등)이 납본 대상에 포함이 됨. 그러나 ISBN, ISSN을 부여 받지 않은 다양한 웹자료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출판 및 서비스 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수집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양한 온라인 자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2) 개선 방향 및 정책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매체의 주기적 파악

- 국제 표준식별체계, 국내 표준식별체계 등을 부여 받은 자료 및 받지 않은 웹자료(문자 자료,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를 1년 단위로 파악하여 온라인 자료 유형별 및 발행정보 제공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작품현황을 1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신고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양한 매체의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한,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등의 콘텐츠의 범위를 제공(1편 또는 1책)할 수 있도록 공식화 및 형식화된 규칙을 제공하고 통계 사이트를 제공하여 쉽게 현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지속적이고 능동적 수집

- 국립중앙도서관은 방송, 강의, 인터뷰 등 보존가치가 있는 다양한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디지털 장서로 활용하여야 함
-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디지털 장서를 다양하게 수집·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음
- ISSN 미부여 학회지, 대학부설연구소 OA자료 등 보존가치가 높은 학술지 원문 및 서지정보 수집 등 공개된 웹자료 및 회색 문헌 등의 수집을 강화하여 디지털 장서에 활용할 수 있음
- 온라인 자료의 보존 가치에 대한 기준을 온라인 자료의 유형별로 수립하여 웹툰, 웹소설, 음원, 오디오북 등의 새로운 유형의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함

제 III 장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서비스 전략

1. 해외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
2. 해외 주요 도서관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수집 방향과 활용 방안
3. 국내 온라인 자료 수집 방향 및 활용 방안

III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서비스 전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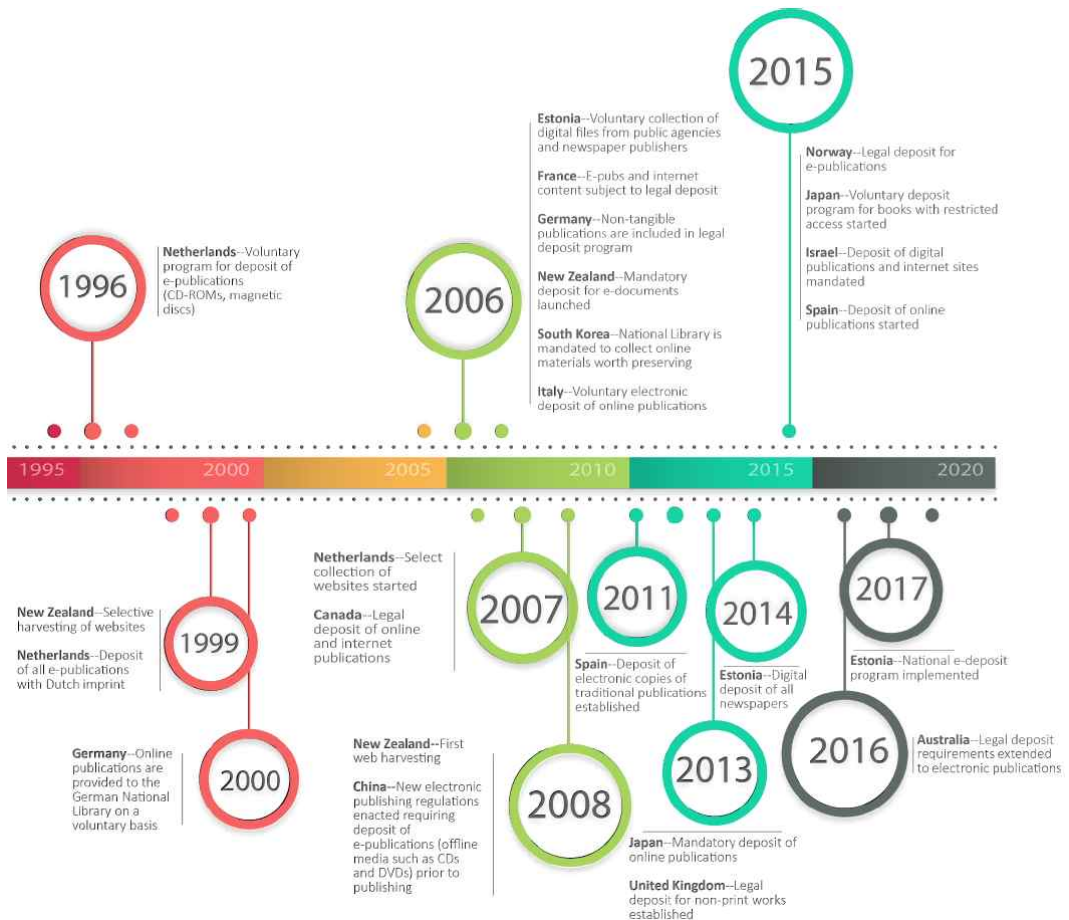
해외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

1.1 해외 주요 국가 및 단체의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분석

1)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자료 납본 제도

-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온라인과 디지털 자료 납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무적 혹은 자발적으로 납본을 계획하거나 웹사이트의 자동 수집을 실행하는 등 디지털 납본과 관련한 법률을 가지고 있음
- LLC(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자료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납본은 필수
- 디지털 납본은 네덜란드 출판사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에 처음으로 전자출판물을 납본한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에서 웹사이트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함.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0~15년 동안 디지털 납본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함
 - 국립도서관에 납본: 호주,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 국가기록보관소 및 정부기관에 납본: 캐나다, 중국
 - 의회도서관에 납본: 일본
 - 학술기관을 포함한 도서관 네트워크에 납본: 영국
-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자출판물을 생산하는 출판사에게 납본의 책임을 부여하고 지정된 기관에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여 납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납본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캐나다, 독일: 전자출판물을 발행 후 1주일 이내에 지정도서관에 제공
- 뉴질랜드: 전자출판물을 발행 후 20일 이내에 지정도서관에 제공
- 호주, 영국: 전자출판물을 발행 후 한 달 이내에 지정도서관에 제공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판사가 무료로 디지털 납본을 수행하지만 일본, 네덜란드, 한국은 규정에 따라 납본 비용을 상환 받고 있음



(출처: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Digital Legal Deposit in Selected Jurisdictions”, July 2018)

-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 납본의 대상을 웹사이트, 온라인 간행물(디지털 작품 포함), 인쇄 자료의 디지털 사본까지도 확장하고 있음.
 - 영국: 인쇄 버전을 디지털 사본으로 대체하여 납본 가능
 - 일부 국가: 소리, 시각, 청각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인정하고 납본 지정

- 에스토니아, 프랑스: 영화 납본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정의
-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웹사이트와 온라인 자료들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은 비합리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포함된 라이브 스트리밍 및 웹 출판물의 경우 수집하지 않고 있음

2) 온라인 자료의 납본(legal deposit)에 관한 각국의 접근 방식 분석

□ 미국

- 미국은 온라인 자료에 대한 연방 법적 납본 요구사항이 없음
 - 그러나 미국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웹 아카이빙(web archiving) 등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

- 영국은 디지털 출판물을 포함한 **법적 입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2003년 법적 입수 도서관법 (The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은 출판사가 전자 출판물의 복사본을 영국 국립도서관 (The British Library)과 다른 5개의 법적 입수 도서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부분에는 전자책 (e-books), 웹사이트 (websites), 기타 디지털 콘텐츠(other digital content)를 포함함

□ 독일

- 독일의 납본시스템은 "Pflichtexemplarregelung" (납본 규정)에 따라 운영됨
 - 관련 법규에는 독일 국립도서관법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및 주별 규정이 포함됨
 - 독일의 납본 요구사항은 인쇄물과 디지털 출판물 모두에 적용됨
 - 출판사는 일반적으로 독일 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이나 지정된 지역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 작품의 사본을 제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디지털 출판물의 경우, 출판사는 전자 사본이나 메타데이터를 지정된 도서관에 제공해야 할 수 있음

□ 프랑스

- 2006년 프랑스 의회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이 통과, BnF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적 납본을 인터넷으로 확장한 것
 - 납본은 모든 출판사가 자신의 작품을 도서관에 보내야 하는 의무로서, 인쇄물을 위해 1537년에 처음 설립된 법적 납본은 판화에서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 게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로운 지적 창작물에 대해 수세기 동안 확장되어**옴
 - World Wide Web 인터넷이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됨에 따라 프랑스 유산 기관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 납본 법적 틀을 제정
- 프랑스는 인쇄물과 디지털 출판물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납본 시스템을 가지게 됨
 - 프랑스 법률은 출판사가 전자책, 웹사이트, 기타 온라인 콘텐츠를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 캐나다는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제 10(2)항에 의거하여 출판물 법적 기탁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캐나다 출판사와 제작자는 캐나다 국립 도서관에 다음 디지털 출판물의 최종 버전을 납본 제출해야 함
 - 단행본(책, 오디오북, 지도, 악보)
 - 연재물(잡지, 저널, 뉴스레터, 연례 보고서, 신문)
- 웹 콘텐츠 수집은 2004년부터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하위 섹션 8(2)에 따라 LAC의 임무의 일부로 규정됨⁴⁾

□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Deposito Legale"이라는 이름으로 납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이탈리아의 납본시스템은 법적 입수에 관한 법률(Legge sul deposito legale)과 그 후의 조례에 의해 규제됨
 - 현재 법률적으로는 2013년 115호 법령인 Legislative Decree No. 115이 적용됨
 - 인쇄물과 **디지털 출판물 모두 납본대상에 해당**됨
 - 출판사, 포함하여 자체 출판물도 일반적으로 작품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디지털 출판물의 경우, 출판사는 전자 사본이나 작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할 수

4) <https://library-archives.canada.ca/eng/Pages/Home.aspx>

있음

- 로마 국립 중앙 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Centrale di Roma)이 이탈리아의 납본을 담당하는 중앙 기관임

□ 스페인

- 스페인은 "Depósito Legal"이라는 이름으로 납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법적 입수에 관한 법률(Ley de Depósito Legal)과 이에 관련된 규정, Royal Decree 635/2015에 따라 규제됨
 - 스페인의 납본 요구사항은 인쇄물과 디지털 출판물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 출판사와 자체 출판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작품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스페인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은 스페인의 법적 입수를 담당하는 중앙 기관이지만 국립 도서관 외에도 지역 도서관도 납본 시스템에 참여함
 - 이탈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판사는 인쇄물의 실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디지털 출판물의 경우, 출판사는 전자 사본이나 작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할 수 있음

□ 스웨덴

- 스웨덴은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납본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출판사는 전자책, 웹사이트 등 디지털 출판물을 스웨덴 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Sweden)에 제출해야 함
 - 스웨덴의 납본 요구사항은 비상업적인 온라인 출판물도 포함함

□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는 법적 납본 복사법에 따라 출판사는 각 인쇄물의 사본 4부를 에스토니아 국립 도서관(에스토니아 국립 도서관, 에스토니아 문학 박물관 기록 보관소, 탈린 대학교 학술 도서관 및 타르투 대학교 도서관 등)에 납본해야 하며, 4개의 사본 외에도 출판사는 출판물의 출판 준비 파일도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출판 준비 파일은 국립 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DIGAR에 보관되며 출판사는 제출된 출판물을 재사용할 수 있음
 - 디지털 법적 납본 사본은 승인된 작업장에서 액세스할 수 있음
- 2017년 에스토니아 법적 납본법은 법적 납본 사본법으로 대체됨

□ 호주

- 호주에서는 1960년 호주 국립도서관법(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ct 1960)에 따라, 출판된 모든 사본을 국립 도서관에 무료로 납본해야 함
- 2016년에는 법적 납본에 관한 법률이 전자 출판물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출판사는 전자책 및 온라인 자료를 호주 국립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및 기타 명시된 도서관에 제출해야 함
 - 법적 납본은 판매 또는 무료로 대중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는 호주의 모든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적용됨

□ 일본

- 일본에서는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납본 시스템이 운영됨
 - 출판사는 책,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을 일본 국회도서관(国立国会図書館)에 제출해야 함
 - 이 시스템은 디지털 자료도 포함하며, 출판사에게 디지털 출판물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중국

- 중국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납본 시스템이 운영됨
 - 출판사는 책, 기간간행물, 신문, 영상자료 등의 인쇄물을 중국 국립도서관(中国国家图书馆)에 제출해야 함
 - 전자책 및 온라인 자료와 같은 디지털 자료도 법적 입수 요구사항에 포함됨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국립도서관법 (The National Library Board Act)에 따라 납본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출판사는 책, 기간간행물, 신문 등의 인쇄물을 싱가포르 국립도서관(with the National Library Board)에 제출해야 함
 - 현재 이 법률은 주로 인쇄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나중에 디지털 출판물도 포함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출판인 및 인쇄업자 등록법(the Akta Pendaftaran Penerbitan dan Percetakan: Registration of Printers and Publishers Act)에 따른 납본시스템이 있음
 - 출판사는 책, 잡지, 신문 등의 인쇄물을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Malaysia)에 제출해야 함
 - 현재 이 시스템은 주로 인쇄물에 초점을 두고 있음

1.2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특징 분석

1) 웹 아카이빙의 환경 변화

- 인터넷 등장 이후 급속도로 폭증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환경은 웹 자원을 수집하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수집 이용 정책이 필요하게 만들
 - 수집하는 채널 역시 웹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새로운 다양한 유형과 경로로 무한 확장되고 있음
 - 특히, 양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갱신되고 변화하는 동적 자원인 웹 자원을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
- 웹 자원은 수집 및 보존, 이용에 한계가 있으며, 무결성 보장이 어렵고 진본성을 판별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
 - 디지털 자원 및 문화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웹 아카이빙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 전세계 도서관은 다자간 협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

2)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의 동향 및 특징

□ 미국 의회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동향 및 특징⁵⁾

-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은 미네르바(MINERVA)⁶ 웹 보존 프로젝트를 통해 2000년부터 웹 아카이빙을 시작함
 - 1) 컬렉션 기반의 이벤트 또는 테마 관련 웹사이트의 선별적 수집과 2) 정부기관 웹

5)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수집을 병행하고 있음

- LC는 전 세계 11개 국가도서관과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IA)⁶⁾와 함께 IIPC 초기 창립 회원으로 웹 아카이빙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웹 아카이브를 포함한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이용 접근성 개선 및 다양한 연구와 디지털자원 수집 확대, 대규모 웹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 및 정보 제공을 위해 LC LAB⁷⁾을 설치함
- 미국 의회 도서관(LC)은 연간 11억 개의 웹 자원(511TB)을 수집하여 현재까지 217억 개의 웹 자원을 수집·보존(2.827PB)하고 있으며, LC 웹 아카이브(Library of Congress Web Archive, LCWA)⁸⁾를 통해 **9·11 테러, 이라크전쟁, 선거 등 웹 컬렉션 3만 건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데이터랩을 통해 미국선거 및 미국문화 관련 대용량 웹 아카이브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 국립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동향 및 특징

-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은 2005년부터 웹사이트를 수집해왔으며, 2013년부터 **국가 도메인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하고 있음⁹⁾
- 납본 규정에 따라 매년 영국 도메인 웹사이트 전체(수십억 개 파일을 포함한 4백만 개의 웹사이트)를 수집하고, 영국 웹 아카이브(UK Web Archive, UKWA)¹⁰⁾를 통해 웹사이트 검색은 물론 영국의 생활 및 사건, 연구 관련 100개 이상의 주제 및 테마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음
- 컬렉션 대부분은 6개의 법정 납본 도서관¹¹⁾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영국 국립도서관 역시 IIPC 창립 회원으로 초국가적인 사건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보존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공동 컬렉션을 구축하는 데 참여하고 있음
- 특히, 1996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인터넷 아카이브(IA)에서 수집한 UK 웹사이트에 대한 전문(full-text) 검색과 단어 및 문장 흐름에 대한 시각화, 파생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샤인(SHI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글

6) 1996년 최초로 인터넷 보존을 시작, 2001년 웹페이지 재생 도구인 웨이백 머신을 개발하였으며 7,350억 개의 웹페이지 등 전 세계 온라인 디지털자원을 보존 및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7) <https://labs.loc.gov/work/experiments/webarchive-datasets/>

8) <https://loc.gov/web-archives/collections/>

9) <https://bl.uk/collection-guides/uk-web-archive>

10) <https://webarchive.org.uk/en/ukwa/>

11) British Library,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National Library of Wales, Bodleian Libraries, Cambridge University Libraries and Trinity

램 워크벤치(GLAM Workbench)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동향 및 특징

-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은 2002년 **프랑스 선거 관련 웹사이트** 수집을 시작함
 - 2004년부터 인터넷 아카이브(IA)와 협업을 진행하고 2006년부터 온라인 자료 납본을 시행하면서 프랑스 도메인 웹사이트를 수집하기 시작함
 - 현재는 프랑스 도메인 웹사이트에 대한 포괄적 수집과 주제 및 이벤트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선택적 수집을 병행하고 있음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IIPC 창립 회원으로 현재 85명 큐레이터와 프랑스 지역 도서관, 연구소, 협회, 전문기관 등 20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과 협업을 통해 웹 아카이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온라인 일기, 웹의 역사를 기록하는 활동가 웹사이트, 블로그, 문학 웹사이트 등 테마 컬렉션과 국가, 지역 및 유럽의 다양한 선거 컬렉션을 구축하였음
 - 연간 400만 개 사이트와 20억 개 웹페이지를 수집하여 분산보존시스템(SPAR)에 저장하고 있음
 - 2021년에는 디지털 컬렉션의 디지털 코퍼스 제공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 세트 제공을 목표로 데이터랩을 신설하여 웹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일본 국립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동향 및 특징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인터넷자료수집보존사업(Web ARchiving Project, WARP)으로 2002년부터 웹사이트를 수집하기 시작함
 - 2010년 시행된 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라 정부, 국회, 법원, 공립대학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수집하고 있음
 - 재단, 협회, 정당 등 사립기관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문화 및 국제 행사 관련 웹사이트를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수집하고 있음
- 현재 122억 개 파일, 2,600TB에 달하는 웹자원을 수집 및 보존하고 있음
- 데이터 마이닝에 적합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웹 아카이브에 특화된 강력하고 정확한 전문검색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호주 국립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동향 및 특징

- 호주 웹 아카이브(Australia's Web Archive)는 판도라(PANDORA) 프로젝트로 시작됨

- 1996년 호주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LA)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
 - 현재 호주 전역의 9개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 협력을 통해 웹사이트를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주로 호주 및 호주인과 관련된 웹사이트와 웹 간행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호주의 역사와 문화, 사회, 정치 관련 웹사이트와 국가 중요 사건 관련 웹사이트를 수집하고 있음
- 1960년 제정된 국립도서관법, 1968년 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매년 호주 도메인 웹사이트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있음
- 판도라(PANDORA)를 통해 수집된 웹 콘텐츠를 포함해서 80억 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트로브(TROVE) 검색 서비스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음

□ 해외 디지털 웹 아카이빙 개발 자료 제공 기관

-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의 웹 아카이빙 in Libraries¹²⁾ : IFLA의 “A Review of Current Practices and Challenges” 보고서는 전 세계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관행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
- 국립 디지털 보존 동맹 (National Digital Stewardship Alliance, NDSA)의 웹 아카이빙¹³⁾ : NDSA는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침 및 모범 사례를 포함하여 디지털 보존을 위한 계획 개발 안내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
 - NDSA는 2010년 미국 의회 도서관의 국가 디지털 정보 인프라 및 보존 프로그램(NDIIPP)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됨
 - 미국 의회 도서관은 NDSA에 사무국 및 회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 전문성 및 행정 지원에 기여함
 - NDSA의 기관 본거지는 도서관 및 정보 자원 협의회 (CLIR)의 디지털 도서관 연맹(Digital Library Federation, DLF)으로, 이 기관에서는 디지털 컬렉션 전략 개발을 위한 안내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
 - NDSA는 원래 미국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되었지만 이후 국경을 넘어 수행되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업을 인정받아 국제 참여에 회원 자격을 개방하여, 현재 NDSA는 디지털 정보의 장기 보존에 전념하는 조직의 컨소시엄으로 확장
- 미국 의회 도서관(Library of Congress) Web Archiving in Library¹⁴⁾ : ‘Strategies

12) https://www.ifla.org/files/assets/hq/publications/ifla-journal/ifla-journal-44-3_2018.pdf

13) <https://ndsa.org/activities/web-archiving/>

14) <https://www.loc.gov/programs/web-archiving/>

for Capturing Web Resources’ 리소스는 Library of Congress의 웹 아카이빙 관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웹 아카이빙 전략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British Library의 "Web Archiving at the British Library"¹⁵⁾** : 영국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페이지는 확립된 프로그램 및 협력을 포함하여 영국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호주 국립 도서관 웹 아카이빙¹⁶⁾** : 호주 국립 도서관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웹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음
- **인터넷 아카이브(The Internet Archive)¹⁷⁾** : The Internet Archive는 1996년부터 웹을 아카이빙해 온 비영리 단체로, 웹 아카이빙에 대한 안내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
- **웹 아카이빙 연합¹⁸⁾** : 웹 아카이빙 연합은 웹 아카이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서관 및 문화 유산 기관 그룹임

3) 국가 기록보존기관으로서의 자료 보존 등록 제도¹⁹⁾

- 세계 주요 국가 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컬렉션의 희귀하고 독특한 자료와 웹 아카이빙 자료에 대한 보존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 및 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점점 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 디지털화 및 장기 보존과 활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일부 국가에서는 자료 보존 등록제도 등을 통하여 기관간 공동 자료 보존과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함

□ 미국 의회 도서관의 국립 녹음자료 및 영화 등록제도²⁰⁾

- 미국의 경우, 미국 의회도서관(LC: Library of Congress)에서 운영하는 ‘미국 국립 녹음자료 등록제도(National Recording Registry, National Film Registry)’는 문화적 · 역사적 · 미학적으로 중요한 녹음자료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15) <https://www.bl.uk/projects/uk-web-archive>

16) <https://www.nla.gov.au/collections/building-our-collections/australian-web-archive>

17) <https://blog.archive.org/2017/01/25/see-something-save-something/>

18) <https://www.dpconline.org/events/digital-preservation-awards/dpa2020-ukwa>

19) 국립중앙도서관(2022). 국가 중요 도서관 자료 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3』, 2022. 7

20)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Board. Available: <https://www.loc.gov/programs/national-recording-preservation-board/about-this-program/>; 법제처 (2021. 6. 7.).

「국내녹음자료보존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생성된 지 10년 이상 지난 실물이 존재하는 녹음자료를 대상으로, 일반 대중, 녹음자료 기록관, 녹음산업의 대표자, 예술인 등이 후보작을 추천하면, 이를 녹음자료보존위원회(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Board)와 도서관 큐레이터가 검토한 후 자료를 선정해서 등재한 녹음자료는 관보에 게재됨
- 또한, ‘미국 국립 영화 등록제도’는 문화적·역사적·미학적으로 중요한 영화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6년에 「국내영화보존법」으로 제정됨
- 최초 발행 이후 10년 이상 지난 실물이 존재하는 영화 자료를 대상으로, 배우·감독·각본가·촬영감독, 창작 예술인·제작자·영화평론가, 기록관 및 영화 보존 단체, 영화산업 대표자, 일반인 등이 후보작을 추천하며, 이를 국내영화보존위원회(National Film Preservation Board)와 도서관 큐레이터가 검토 및 선정함

□ 미국 도서관협회 및 미국대학연구도서관협회의 자료이관 및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 기타 국외 유사 제도로는 『ALA-ACRL 일반 컬렉션에서 특별 컬렉션으로의 자료 이관 및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음
-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 Library Association)의 산하 분과 중 하나인 미국대학연구도서관협회(ACRL: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에서 제작 배포함
- 희귀자료의 선정 기준과 이관(transfer)에 필요한 절차와 정책을 명시하고 있음

□ 일본 중요과학기술사자료 등록제도²¹⁾

- 일본의 경우,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중요 과학기술사자료 등록제도’는 일본의 모든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의 보존과 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여, 2021년까지 총 325건 등록됨
-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발달사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자료와 국민 생활, 경제, 사회, 문화 방식에 현저한 영향을 준 것을 대상으로 선정함

□ 국립 뉴질랜드 도서관과 국가자료보존국

- 국립뉴질랜드도서관(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은 국립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21) 国立科学博物館 (2021. 9. 1.). 2021(令和 3)年度国立科学博物館「重要科学技術史資料愛称: 未来技術遺産」24件の登録について. 출처: <https://www.kahaku.go.jp/procedure/press/pdf/696105.pdf>;

産業技術史資料情報センター. 研究活動. 출처: <http://sts.kahaku.go.jp/research/index.html>

달리, 많은 국가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1997년 국가자료 보존국(National Preservation Office)을 설립함

- 보존국은 국립도서관 외 다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컬렉션을 관리하고자 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자료 보존에 관심이 있는 도서관 직원이나 전문가들에게 수시로 교육도 실시함

4) 해외 주요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²²⁾

□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이슈

- 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이슈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
 - 첫째, 도서관 소장 자료 측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의 서비스를 제한하면 이용자의 지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발생
 - 둘째, 도서관 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해야 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 수집된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해야 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도서관 이용 이력과 같은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함

□ 미국 의회도서관의 개인정보정책

- 웹사이트 이용자와 온라인 컬렉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대한 개인정보정책에는 수집 정보의 유형, 자동 수집 정보, 평가나 개인화를 위해 수집된 정보, 개인정보의 취급, 어린이를 위한 개인정보정책 등이 수록됨
- 이용자 정보 관리가 도서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강조, 개인화 서비스를 목적으로 자동화 도구들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도 강조함
- 수집된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되 이용자 분석이나 웹사이트 개선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온라인 컬렉션 일부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등의 법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음

22)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 2021.1

□ 영국 국립도서관의 개인정보정책

- 영국 국립도서관은 ‘정보 접근의 자유’와 더불어 미국보다 더 상세하게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기술되어 있음
 - 일반적인 규정이나 규칙에서 나타난 표현보다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친절하고 친숙하게 안내하는 점이 특징적임
 - 구성 내용은 수집 정보의 유형, 수집 방법, 개인정보 활용, 비개인화 및 익명처리 방식, 제3자와의 공유, 개인정보의 관리, 이용자의 권리 등 (British Library, ‘Privacy policy’ 4)임
- 투명성 안내 (Transparency notices)라는 메뉴에서 CCTV, 이용자 계정 및 쿠키 관리, 상용 서비스 등 도서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취급이나 관리, 활용과 세부 지침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도서관 장서에 관한 투명성 안내’에서는 도서관 소장자료에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함
 - 만약 민감 정보가 발견되면 공익을 위한 보존의 목적으로 처리되며, 정보 공개 시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 접근을 불허하되 미래 세대를 위해 영구적인 보존은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일반적인 이름이나 주소, 이메일, 나이, 생일, 성별 이외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ID, 사용자 의견이나 피드백, 제안, 도서관 누리집에서의 브라우징 행태(이력), 도서관 방문 이력 및 행태 등이 포함됨
 - 또한, 비개인화 및 익명처리를 통해 이용자 데이터의 심층적인 분석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개인정보정책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개하고 있음
- 내용과 항목 구성은 다른 국가도서관들과 매우 유사하지만, 도서관 전체 운영에 관한 정책은 다소 차이가 있음
 - 서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취급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온라인 자료나 장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 서지데이터에 저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서지 작성 대상자료나 발간된 인명사전, 공공기관이나 다른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이외의 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지데이터에 활용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음

□ IFLA와 ICA(세계기록관리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의 개인정보정책 협력 강화

- 2020년 2월 IFLA와 ICA는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지하면서도 도서관과 기록관에서의 자료수집과 보존 활동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함
- 성명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
 - 도서관과 기록관 같은 전문기관들이 개인식별정보를 담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야 함
 - 법적으로 자료의 파기나 삭제를 불허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함
 - 개인 생활이나 기밀성, 문화적 민감 요소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만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해야 함
 - 도서관과 기록관은 개인정보가 수록된 자료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법적 면책 특권이 있어야 함

5) 해외 주요 도서관의 전략 계획 분석²³⁾

- IFLA를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국가도서관 등은 기관별 중장기 발전 계획의 핵심 키워드와 주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전략 계획을 제시함
 - 일관적인 비전과 핵심 가치 제시
 - 도서관 자원의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과 영역 명시
 - 도서관의 영향력과 효과를 고려한 전략계획 수립
 - 도서관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필요성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전략 계획 (~2024)

- 2019~2024년 전략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개발과 혁신
 - IFLA는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이해, 참여, 네트워킹, 지지, 협력 활동이 도서관의 주요 책임임을 강조함
 - 또한 전문인력과 사서를 도서관의 필수 요소로 비중 있게 다룬 것이 특징임

23) 국립중앙도서관(2022). 해외 국가도서관의 전략계획 텍스트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9』, 2022. 2

-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등 도서관 네트워크를 지원(support)하기 위한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나타냄
- 전 세계의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주창해 온 오픈엑세스, 리터러시, 지적 자유, 지속가능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대한 가치를 언급함
- IFLA 전략계획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오픈엑세스와 지적 자유의 가치 추구 : 정보 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한 도서관의 핵심 가치와 중심 역할에 대한 여론 형성
 - 지역사회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 지역사회 또는 회원기관과 활발히 커뮤니케이션하여 도서관의 가시성과 영향력을 증진
 - 도구 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지원 의무
 - 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실용적인 도구와 플랫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 IFLA 회원과 협의를 거친 인사이드 도출과 지식과 아이디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기관을 비롯한 도서관계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사서들의 네트워킹과 협력에 대한 내용 제시

□ 영국 국립도서관(BL) (~2024)

- 2020년 전략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사업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함께 전략계획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개념임
- 직업, 경제, 투자, 기업가, 고용주, 돈 등의 키워드가 두드러지게 강조된 것으로 볼 때, 이를 통해 영국 국립도서관이 시민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를 지향함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BIPC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만 2,200여 개 사업체와 7,800여 개 직업, 공적자금 1파운드당 6.95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 영국 국립도서관의 전략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발간됨에 따라 대규모 사회통제, 유행병, 위기 등의 문제에 집중함
- 이외에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환경 문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등 최신 현안을 전략계획에 반영하여 도서관 내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점이 특징임
- 또한, 연구, 학문, 데이터 사이언스, 학자 등에 집중, 학술연구지원의 기능과 역할도 강조함
- 마지막으로 사회적 소수를 포용하는 가치에 대한 지향점을 강조함

- 예를 들어, 인종차별 반대주의, 포용성, 장애, 소수자, 흑인, 여성, 평등법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영국 국립 도서관의 전략계획에서 강조된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 참여 요소로서 도서관이 운영 및 제공하는 공간, 행사, 전시를 통한, 지역사회 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개체이자 수단으로 강조
 - BIPC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로 사업, BIPC, 기업가, 여성 등을 주제로 도서관의 경제적 영향과 가치를 지향
 - 학술 연구 네트워크로 혁신을 창출하는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 연구와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책무와 협력을 강조

□ 네덜란드 왕립도서관(KB)의 전략계획(2019~2022)

- 네덜란드 왕립도서관(KB)의 전략계획(2019~2022)에서 KB가 전 국민을 위한 국가도서관 서비스에서 주안점으로 삼는 영역은 독서와 리터러시임
 - 독서에 관해서는 독자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영아기의 북스타트, 유아, 청소년 등에 대한 독서 전략을 제시함
 - 이러한 독서는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리터러시 진작의 기초로 의미를 둠
- 네덜란드 왕립도서관(KB)의 전략계획에서 데이터는 연구자에게 제공되고 국가서지 및 디지털화하여 관리되는 네덜란드의 문화유산이자 인프라를 구축해 보존할 중요한 지적자원으로 다룸
-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을 중시하는 KB의 전략으로, UN SDGs와 네덜란드왕립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 전략을 들 수 있음
-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2021년 유럽연구도서관협회(LIBER)에서 「공공기금 학술출판물의 이용에 관한 법률 초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공공기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물을 일정 기간 후 온라인 자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오픈액세스 환경 조성의 선두에 선 기관이라는 점임
- 네덜란드 국립 도서관의 전략계획에서 강조된 주제는 다음과 같음
 - 독서를 평생교육과 자기계발을 강조한 독서진흥 전략은 어린이 등 생애 초기부터 즐겁게 책을 읽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둠
 - 디지털화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선행 조건으로,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 함양 지원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도 함께 강조
 - 국가장서의 서지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 보존을 강조하여, 디지털화 자원을 후대에 언제라도 이용될 데이터이자 유산으로 보고, 국가서지 구축과 아울러 장기 보존 인

프라 및 보존에 대한 국가도서관으로서 책임을 강하게 제시

- 시민들이 디지털화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한 도서관의 지원 강조
-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도서관 구축하여 연구와 창작 지원을 중시

□ 미국 의회 도서관(LC)의 전략계획(2019~2023)

- 미국 의회도서관(LC)의 전략계획(2019~2023)의 키워드는 자원과 데이터(data)로, 미국 의회도서관의 장서를 단순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 사서에 의한 장서의 활용성 극대화를 중시함
- 또한, 이용자 경험의 확장을 중시하는 지향성면에서, 이용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서관 디지털 장서를 쉽게 검색하고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 제공 지원의 역할이 강조됨
- 전략계획의 주안점 중의 하나는 도서관 경영으로, 사서와 도서관이 이용자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기초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경영효율성을 강조함
- 이외,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은 LC 전략계획에서 나타난 고유한 키워드임
- 미국 의회도서관의 전략계획에서 강조된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이용자와 사회가 전문 사서의 지원을 받아 LC 장서를 활용하여 깊이 있는 성과물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용자와 특정 집단의 요구에 걸맞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LC의 여러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둠
 - 도서관의 가치와 영향력 함양의 방향성이 핵심적으로 드러남
 - 전문 역량을 갖춘 사서가 이용자에게 차원이 다른 LC 장서 활용을 질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수집량, 서비스 제공 건수 등 양적인 성과가 아니라 질적인 성과를 중시함
 - 데이터를 핵심 키워드로 한, LC의 물리적 장서와 온라인 자원을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로 가공하여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정보와 데이터에 접근하기 쉽게 서비스 지원 강화
 - 특히, 모든 주제에 걸쳐 사서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전략 계획이 미국 의회도서관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는 우수한 전문 사서들이 데이터로 대변되는 도서관 장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별화된 이용자와 사회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됨

□ IFLA 및 해외 주요 도서관의 전략계획 종합 분석

- 도서관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 등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함
 -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적 맥락에 따라 도서관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전략과제와 세부 실행계획을 담고 있음
 - IFLA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정보접근권 향상 등 전세계 도서관계가 협력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함
 - 영국 국립도서관의 전략계획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과 사회적 포용에 대한 지향점이 나타남
 - 네덜란드 왕립도서관의 경우 정보자원 활용 역량 배양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성을 드러냄
 -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전문 사서의 지원으로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영향력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둠
- 도서관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따라 도서관 자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제공할지 분명하게 제시함
 - 대부분 국가도서관은 전 국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중점 서비스 부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음
 - 해외 사례에서는 도서관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맞게 주된 서비스 대상을 특정하거나, 독서 진흥·리터러시 진작 등 전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 요구에 집중하거나, 전문 사서가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핵심 추진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특징이 있음
- 전략의 수립과 평가 준거로 도서관이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함
 - 영향과 효과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중요시함
- 국가·사회 또는 이용자 개인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과 효과를 기준으로 삼을 때 계량적인 성과 중심 서비스보다 질적 서비스를 제안할 가능성이 커짐
 - 조직적 측면에서도 혁신과 쇄신을 지속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음
- 도서관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강조하며, 도서관 내외부 이슈도 구체적으로 드러냄
- 도서관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출판 및 이용 환경과 더불어 사회적 포용이나 환경적 이슈 등과 관련된 도서관 정책 제시가 중요

해외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수집 방향 및 활용 방안

1) 온라인 자료 수집과 활용을 위한 기술 환경 변화

□ 온라인 자료 수집 방향 설정을 위한 환경 분석

- 인쇄 기반 출판과 달리 온라인 출판은 매우 역동적이고 상호 작용하며 대체로 중재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종종 출판과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함
- 이는 급변하는 매체를 정확하게 보관하는 방법과 출판을 상거래 또는 개인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다른 웹 용도와 구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수집 기관에 특별한 과제를 제기함
- 특히, 웹사이트는 일시적이며 종종 급격히 사라질 디지털 콘텐츠로 간주됨
 - 새로운 웹사이트가 끊임없이 형성되고, URL이 변경되고, 콘텐츠가 변경되고, 웹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음
 - 웹사이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시사, 조직, 대중의 반응, 정부 정보, 문화 및 학술 정보를 문서화합니다. 인쇄물에 등장하던 자료가 점점 더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음
- 온라인 출판의 규모는 다양한 수확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캡처하는 자동화가 필요함
 - 이 기술에 대한 의존은 포괄적인 컬렉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온라인 출판의 복잡성은 수집할 수 있는 항목에 상당한 기술적 제한이 남아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웹사이트가 수집될 수 있지만 보관된 컬렉션 내에서 완전하지 않거나 완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모든 이유로 웹 사이트 수집은 도서관에 중요한 활동이자 매우 어려운 활동임
-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 학습 방식 등 사회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음
 - 각국의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물리적 수집의 재평가와 병행하여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심화 탐구를 확대하고 있음
- 데이터 수집 및 캡처가 확대됨에 따라 재현성 문제로 인해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지고 도서관에서 처리하는 형식의 범위가 증가함

□ 국내 온라인 자료 납본의 현황²⁴⁾

- 우리나라 온라인 자료 수집은 납본법이 시행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납본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함
-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 1,800만 건 이상(디지털화 자료 1,000만 건과 납본, 자체 수집, 기증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 800여만 건)을 소장하고 있음
 - 하지만 2016년 온라인 자료 납본법이 시행된 후 납본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생산된 전체 온라인 자료 중 3% 수준에 불과함
- 납본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는 ISBN을 받은 전자책, ISSN을 받은 전자저널(학술지),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등으로 나뉘며, 음성 파일 형태의 오디오북도 ISBN을 받은 자료에 한해 납본을 받고 있음
 - 납본된 온라인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열람용 1부만 서비스를 제공함
 -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동시접속자 1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저장이나 복사(인쇄), 화면 캡처 등이 불가능하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가 적용된 납본 전용 뷰어로만 열람할 수 있음
- 현재, 도서관 외부에서 이용하도록 이용 동의를 받은 공공간행물이나 학위논문 등은 어디서든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 허락 범위에 따라 인쇄를 하거나 저장을 할 수도 있음
 - 납본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방화벽과 최신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환경에서 보존용 파일 접근 제한, 자료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 등 여러 보안 방법으로 관리·보존됨
- 현재,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발간하기 위해 신청한 ISBN 발급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ISBN을 신청할 때는 미리보기, 체험판, 연재 중인 자료 등 납본 제외 대상도 포함되거나, 실제 출판이나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료도 많아서 정확한 수집 기준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책 출판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 및 전자책 수집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ISBN 발급 자료의 유형, 실제 출판 유통 여부 등 전자책 출판 현황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 제작, 소비 추세까지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함
 - 신뢰성 있는 전자책 출판 통계를 근거로 온라인 자료의 수집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24) 국립중앙도서관(202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과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1』, 2022. 5

그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 체계적인 수집 기반을 마련할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출판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전자출판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해서 배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온라인 자료 수집과 활용 확대의 필요성

□ 국가 기록보존기관으로서의 필요성

-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도서관으로서 자료의 수집 및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 도서관의 사례처럼 국가기록 보관소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자료를 비롯하여 납본에서 누락된 자료와 개인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자료 등 일부 자료는 정확한 수량 파악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자료의 희귀성과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이 있음에도 보존 수집 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방치되거나, 소장자(처)가 자료의 가치와 중요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자료가 폐기 또는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또 다른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함
- 한때 거의 볼 수 없었던 원고와 출판물들은 이제 많은 연구진과 이용자들을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 세계에 제공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이 많은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은 여전히 물리적 형태로 남아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존의 인쇄 자료, 비도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활용, 보존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자료를 장서로 포함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확보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수집 자료 외, 공공 및 민간기관 내 보존 가치가 있는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등록 제도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자료 보존 및 관리로 도서관 자료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국내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디지털 자료 및 온라인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통합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외 유사 제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면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담은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가 필요함
 -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등록된 자료는 디지털화 및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디지털컬렉션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국가자료보존기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적 책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 근거자료 필요함

-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발굴·등록·보존하여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학문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도서관 소장 자료 연계 등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중심적 역할 필요

□ 국내 웹 아카이빙 자료 수집의 현황 및 한계²⁵⁾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의거하여, 소멸되기 쉬운 공개 인터넷자원(웹사이트 및 웹자료)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2004년부터 오아시스 사업(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OASIS)을 추진하고 있음
 - 오아시스는 대규모 국가 웹자원을 수집 및 보존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으로, 수집 대상 자료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 등 웹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는 웹자료임
 - 2008년에는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IPC)에 가입하여 웹 아카이빙을 위한 전 세계 도서관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시작함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에서는 웹 자료의 가치성, 신뢰성, 유일성 등을 검증하고 정상 수집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가 장서로 등록하여 영구 보존함
 - 선택적으로 수집된 웹사이트의 경우 일반 장서와 같이 메타데이터(MODS)를 구축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포괄적으로 수집한 웹사이트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메타데이터가 미구축된 상태임
 - 정상 수집 후 등록된 웹 자료는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저작권자가 허락한 경우에 한해 외부 이용 자료로 제공되고 있음
- 2022년 말까지 웹사이트 101만 건과 웹자료 144만 건, 총 245만 건의 웹 자원(1,007TB)을 수집하였으며, 국가 재난·행사 및 주제·이슈 관련 컬렉션 총 154개를 구축하여 오아시스 누리집(<https://nl.go.kr/oa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수집 기준에 따라 공공 웹 자원을 우선 수집하지만, 실제 개인용 또는 상업용 웹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보존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과 재생산이 가능한 온라인 자료의 특성상, 원본과 편집본을 검증하고, 진본성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인터넷 자료 수집의 영역과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며 계속 갱신되는 동적인 자원

25)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으로 수집하기가 쉽지 않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라 수많은 웹 정보 자원 중에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선별할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현재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웹 크롤러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모든 웹 자원을 수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수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웹사이트 기준으로 70% 이상 수집이 되면 수집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대 5 depth까지 수집을 제한하고 있음
- 웹사이트 수집은 완전하게 구현하기 어려워 무결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품질에 한계가 있음
 - 해외 도서관의 경우 사이트별로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실제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 도서관은 완벽하게 재생되는 웹 아카이브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도서관 연구소(LAB)를 통해 대용량의 웹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하고 있음

□ 웹 아카이빙 대상 폭증에 따른 관리 시스템 과부하 및 보안 과제(국립중앙도서관 2022)²⁶⁾

- 웹 자원은 대용량 자원으로 수집, 보존, 서비스까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지원이 필수적임
- 국립중앙도서관은 오픈 소스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45만 건(1,007TB)에 달하는 대용량 웹 자원이 축적되어 있음
- 수집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상당한 자원을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원활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실제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검증하는 과정은 물론 오아시스 제공 사이트를 통한 검색 및 웨이백(wayback)²⁷⁾ 재생까지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서비스되고 있음
 - 또한, 웹사이트 전체를 깊이 있게 수집하므로 악성코드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보안에 취약한 약점이 있음

26)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27) WARC 파일 포맷으로 저장된 웹 페이지들을 보기 위해 인터넷 아카이브(IA)가 개발한 디지털 타임 캡슐

□ 웹 아카이빙 국내 예산 및 조직의 한계(국립중앙도서관 2022)²⁸⁾

- 국립중앙도서관의 오아시스 사업은 국가 웹 자원을 수집 및 보존하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는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메타데이터 DB 구축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 기반 조성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16년부터 웹사이트 아카이빙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사업 예산이 급감한 상태임
 - 현재 1.3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 웹자원을 수집 및 보존, 서비스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임
 - 시스템 유지·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이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음
- 웹 자원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의 웹 자원으로 진화하고 있어 수집·보존·서비스까지 끊임없는 개발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함
- 국가 도메인 전체와 최근 해외 한국 웹 자원까지 국가 웹자원의 수집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과 조직 등 여건 부족으로 인하여 소멸되기 전의 웹자원을 단순 수집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온라인 자료 수집과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정책의 당면 과제

- 국립중앙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와 동법 시행령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은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이 방침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개 서비스에 대해 각각의 운영근거와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공통 형식을 적용하다 보니 내용 측면에서 도서관의 고유성이 나타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특성 위주로 나타나고 있음
- 기본적인 조항들과 내용은 외국 도서관 사례와 유사하나 기술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웹사이트 중심의 개인정보정책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
- 한편,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는 외국 사례와 달리 필수와 선택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데이터 3법을 법제화해 가명정보 정의 및 처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정성 확보조치 및 배상책임 의무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도서관과 기록관과 같이 방대한 자료와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 관한

28)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예외 조항이나 면책 조항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법 제도 및 유관 기관들의 공동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건

-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수집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디지털 컬렉션 자료들에 대한 온라인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게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의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 보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등 온라인 자료의 수집 대상과 범위, 이용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점점 커지고 있음
- 기존 자료에 대한 디지털 전환은 대체가 아니라 필수이며, 전통적인 수집 방식 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자료를 획득, 보존 및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작업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이러한 새로운 형식을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고도화된 기술 개발과 연구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앞으로 국제 온라인 자료 수집 흐름에 맞춰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기록 보존과 이용의 구심점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수집·보존하려면 제도적·기술적·시스템과 인력 한계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은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이용 방식 등의 환경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어서, 데이터 공유 및 오픈 액세스 의무에 대한 원활한 조건을 구비해야 함
 - 지식의 보존과 공유를 통해 도서관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국가의 국립 도서관들과 협업하여 더 넓고 많은 글로벌 이용자의 참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음

1)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확장²⁹⁾

□ 인식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전 세계 도서관과 함께 웹 아카이빙이라는 도전적인 과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자원 아카이브(OASIS)를 구축하여, 소멸해가는 과거 웹 자원과 현재의 웹 자원을 유일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완전한 수집에 한계가 있음
 -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정책 흐름에 맞춰, 웹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가공하여 웹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시점임
- 생성·소멸되는 웹 자원을 제대로 수집 및 보존, 개방성 확대와 아카이브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다음과 같은 전략 방안이 필요함
 - 외부 공개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웹자원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개발 제공
 - 방대한 웹 데이터에 대한 장벽 없는 개방을 통해 각계각층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미래 국가 정보 자원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 도서관의 미래 자원으로서, 웹자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집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요 기관 및 중요 주제 관련 웹자원에 대한 선별적 수집과 국가 도메인 웹사이트에 대한 포괄적 수집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외 한국 관련 웹 자원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블로그, 유튜브,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메타버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 새로운 유형의 웹 자원을 수집 및 보존해야 하나, 현재 오아시스 시스템은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픈 소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처리속도와 성능에 한계가 있음

29)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 따라서, 방대하고 복잡한 웹 자원을 원활히 수집 · 보존 ·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원 정책이 요구됨
 - 예산 및 인력, 시스템(H/W, S/W) 등 전반적인 인프라 지원 확대
 - 수집부터 서비스까지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 필요
 - 사서, 정보기술자,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 팀 단위 조직과 장단기적인 협업이 필요

□ 국가 단위의 플랫폼, 오아시스의 위상 강화

- 우리나라 웹 자원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웹 아카이브 구현 방안 모색
 - 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웹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 ·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플랫폼으로 개선되어야 함
 - 네이버, 구글 등 상용 엔진과 같은 고성능 검색엔진을 적용하여 과거의 웹 자원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웹 표준에 따라 웹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오아시스 사업과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추진
- 인공지능 기반 웹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스템 도입, 방대한 웹에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지능형 서비스 구축
 - 주제별 · 시대별 웹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고도화된 웹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구현

2)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³⁰⁾

- 이용자의 독서성향과 도서관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도서관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 해외 도서관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처리정책을 준용하면서도,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정책에서도 잘 드러날 필요성이 있음

30)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 2021.1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도 이를 수집·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보 주체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소장자료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
- 이러한 도서관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도서관 누리집에서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확대 방안

- 맞춤형 추천 서비스의 만족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취향이나 독서성향, 도서관 시설이나 자료 이용 이력 등 다양하고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가 수집·분석되어야 함
-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는 도서관 이용자의 부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향후 이용자의 자료나 시설 이용 이력, 실시간 위치 데이터, 교육·전시 프로그램의 서비스 참여 이력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별도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하는 방안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

-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개인정보가 발견된 온라인 자료는 수작업으로 이미지를 삽입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미 수집된 자료와 앞으로 수집될 막대한 양의 온라인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개인정보의 패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마스킹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

□ 도서관과 기록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 도서관, 기록관처럼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제한되거나 폐기를 요청받을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에서는 간행물의 원문 파일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호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술 보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자료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안 모색 필요

제 IV 장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1.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유형 및 현황
2.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유형별 기술적 특성
3.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 및 관리 사례
4.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서비스 방안

IV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1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유형 및 현황

1.1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등장과 성장

- 플랫폼(platform)이란 구축된 땅(plat)과 형태(form)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컴퓨터 및 IT분야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또는 기술 개발의 기반으로 사용되는 기술들의 집단을 뜻함(techopedia, 2023)
- 플랫폼은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점차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해당 개념이 확대·진화되는 양상임
 - 웹의 등장으로, 인터넷으로만 가치가 창출되는 인터넷서비스가 성행하게 되었고 이들 중 하나가 서비스플랫폼임. 예를 들면 트위터는 API를 오픈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기능을 자유롭게 쓰고 개발자들은 API를 연동해서 앱을 만들고 광고를 붙여 이윤을 창출함
 - 즉, “서비스플랫폼”이란 서비스 내에서 다른 서비스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기반의 기술 환경을 말함
 - 본 연구의 범주에 해당하는 신매체-플랫폼(미디어 플랫폼) 기반 자료는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자료에 해당함
- 신매체-플랫폼(미디어 플랫폼)은 청중에게 미디어를 전달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사이트 또는 방법을 의미함
 - 미디어 플랫폼의 주요한 기능은 전달에 있지만 대중들의 피드백, 토론 또는 공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사례로는 Facebook, YouTube, 지역 신문, 네트워크 TV 등이 있음

□ 미디어 플랫폼은 기술적 진화 및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영화나 드라마 유통은 OTT 플랫폼, 음악이나 웹툰은 포털 기반 플랫폼 그리고 사용자 제작 동영상(UGC)은 유튜브와 같은 대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개인 유튜브, 웹소설가와 같은 독자적인 동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음(예. 미국의 서브스택, 패트리온 등 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콘텐츠 플랫폼)
- 기술적 진화에 따른 메타버스, AR, VR, MR 콘텐츠 등의 미디어 플랫폼도 등장함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친구와 연결하고, 경력을 쌓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음

□ 콘텐츠 플랫폼은 음악, 영화, 책, 교육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Spotify, Netflix 등과 같은 OTT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에 최적화된 이러닝(e-learning) 플랫폼도 다수 존재함

□ XR(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 실감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디바이스의 진화 등 ICT 기술의 발전과 페이스북, 구글, MS 등 세계적인 IT 기업의 투자를 배경으로 급성장 중임. 여전히 디바이스 분야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점차 플랫폼, 콘텐츠 등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메타버스(metaverse)는 물리적 실재와 가상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 매개되고 결합되어 만들어진 미디어 콘텐츠 중 하나임

1.2 신매체-플랫폼 기반 산업의 국내 현황 및 특징

1.2.1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국내 사용 현황

- 2022년 국내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연간 이용률은 전국민 만 13세 이상 응답자 중 유튜브 93%, 네이버 밴드 43%, 인스타그램 36%, 카카오톡 33%, 페이

스북 32%, 트위터 15%, 틱톡 14% 순으로 나타났고, 16%는 이외 다른 SNS도 이용한 적 있음(Gallup, 2022)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틱톡 연간 이용률은 2021년 대비 약 5%포인트 증가, 카카오톡 · 페이스북은 각각 7%포인트 · 3%포인트 감소하였고 네이버 밴드와 트위터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남
- 특히 동영상 기반의 유튜브 연간 이용률은 10~50대에서 90%대 중후반, 60대 이상에서도 2021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해 75%에 달함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연간 이용률 기준으로 볼 때 작년까지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소폭 앞섰으나, 올해는 인스타그램이 소폭 앞섬. 2021년까지는 10~30대에서 양자 이용률이 비슷했지만, 올해는 인스타그램이 앞섬
- 트위터는 140자(현재 최대 280자) 단문 기반, 틱톡은 15초(현재 최대 10분) 짧은 영상 기반 SNS로 간결성과 빠른 전파력을 특징으로 트위터 이용자는 10~30대에 걸쳐 있고, 틱톡 이용자는 10대 주축에서 올해 20 · 30대로 확장된 양상임

1.2.2 실감콘텐츠 및 관련 산업의 국내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8월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VR 및 AR 콘텐츠 전문 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 규모를 14조 3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이나 교육, 협업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오던 기술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게 됨
- 특히 COVID-19 이후 비대면 시대를 맞아 XR의 유용성이 부각되면서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제조, 교육, 의료, 유통·물류, 문화, 국방 등에서의 활용이 급증함
- 전 세계 실감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14%의 성장률로 2019년에 약 2,707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5,941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의 실감콘텐츠 시장은 2019년 약 2조 8,000억 원에서 연평균 51%의 평균 증가율로 2025년에는 약 33조 1,910억 원까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0)³¹⁾

- 제조분야에서 XR 기술의 활용은 현장 작업자의 업무 효율 향상과 안전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
- 교육 분야에서는 COVID-19 시대의 효과적인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몰입감 있는 가상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시도들 계속되고 있음
- 의료 분야에서 실감콘텐츠는 주로 의료 훈련과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테트라시그넬은 국내 가상 교육 플랫폼을 외과 교육용 콘텐츠로 개선한 비대면 의료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서지컬마인드는 실제 환자 대신에 인체 모형과 VR 기술을 활용한 의료 훈련 솔루션을 제공함
- 유통 분야의 경우, 기아자동차는 출시 자동차의 내외부 디자인과 옵션 변경을 AR로 구현한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롯데홈쇼핑은 AR 가구 배치, VR 매장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샘은 신제품 모델하우스를 VR을 통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 분야에서는 온라인 공연, 관광 등 다양한 미디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사례가 있음
- 국방 분야에서는 훈련 비용 절감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XR 기술을 적용하여 저격수 가상 훈련 시스템이나 가상의 전투 현장 구현도 가능함

□ **최근 글로벌 자본은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교육 및 훈련, 의료 및 보건 솔루션에 집중되고 있음(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16)³²⁾**

- 하지만 독점 플랫폼의 부재로 실감콘텐츠 시장 확장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이를 구현하는 하드웨어 또한 여전히 각 회사의 제품 경쟁으로 표준화의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실감 콘텐츠 산업 중심의 기술 개발, 펀드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1.2.3 메타버스 플랫폼 국내 현황

□ **최근 메타버스 서비스는 외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사업자들과의 제**

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2).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 - 실감형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웹진, 65. 출처: https://webzine.tipa.or.kr/tipa/202204_sub03_1.jsp

32) 전상홍 (2023).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보고서: XR 기술 산업 현황 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휴를 통한 '양면시장형 생태계 구축', 이용자가 아이템 등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창작 도구 도입', 창작물의 수익화를 지원하는 가상화폐 등 '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로 발전하고 있음

- 양방향적 소통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를 타겟팅하여 미디어 콘텐츠 이용자도 자기만의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가져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
- 메타버스 플랫폼의 핵심은 이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UGC)로 미디어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 등 주요 콘텐츠를 직접 창작하고 제작하면, 메타버스 플랫폼은 창작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재 B2C 분야 가운데 주로 게임, 엔터테인먼트, 생활·소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외에도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등장하고 있음

□ 최근 국내 공공기관 서비스 홍보나 컨벤션 행사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사례가 다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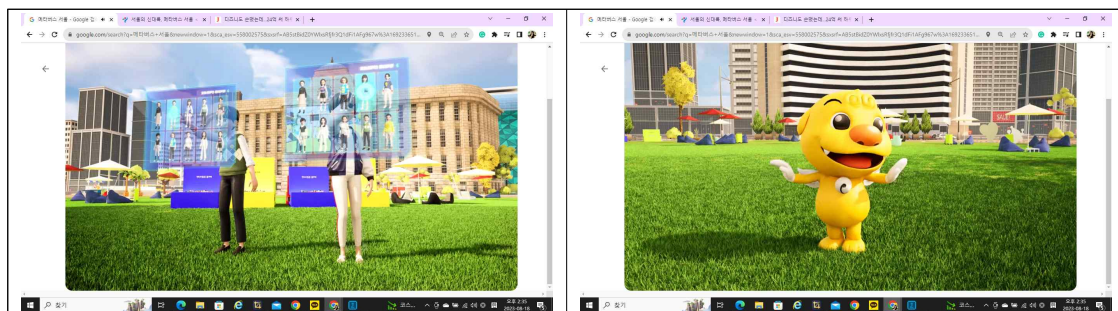
- 2023년 2월 대전관광공사에서 주도하여 진행했던 대전컨벤션센터(DCC) 메타버스 전시관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함. 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내부와 주변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방문객이 실제로 전시회에 온 것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견학 및 상담 예약 진행 기능을 도입하고 External Service(WebEX)와의 접목으로 필요시 비대면 화상 상담도 진행 가능하게 구현함



〈그림 IV-1〉 대전컨벤션센터 메타버스 구현 화면 예시 (출처: http://thelikeit.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1)

- ‘메타버스 서울’은 세계 도시 최초 공공에서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2023년 1월 서비스를 오픈함. 메타버스를 서울 시정 전반에 도입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서울

시만의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함. 시민들은 3차원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 서울'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경제, 문화관광, 교육, 민원 등 다양한 서울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아바타들과 함께 소통 가능함



〈그림 IV-2〉 메타버스 서울 구현 화면 예시(출처: <https://youtu.be/-4zCKw0q5dY>)

- 부산시의 관광메타버스 플랫폼인 '부산메타트레블러', 인천광역시 서구의 '서구 메타버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가상 로컬 브랜드 축제 등 여러 곳의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COVID-19 시기에 앞다투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나 기술력 및 콘텐츠 부족, 이용률 저조,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관리 부족 등의 문제 등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함

□ 자체 개발 플랫폼 이외에도 제페토나 게더타운 등의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공공기관 공간 마련 및 행사도 다수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이지 않음

-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 경기 성남교육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국 수십 곳의 공공도서관이 제페토와 게더타운에 가상 도서관을 구현함
-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관리자의 저장 기능을 제공함

2.1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기술적 특성

2.1.1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 특징

□ 소셜 네트워킹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미디어 플랫폼으로, 주요 플랫폼 사례로는 Facebook(월 활성 사용자 29억 명), Twitter(월 활성 사용자 3억 6800만 명), LinkedIn(전 세계 9억 2000만 회원) 등이 있음

- Facebook, Twitter 및 LinkedIn 과 같은 플랫폼은 사용자 계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네트워킹" 플랫폼이라고 함
- Facebook을 사용하면 웹사이트 링크와 세부 정보가 포함된 프로필을 만들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그들의 정책 홍보나 공지 사항 안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임
- 프로필이 모두 설정되면 이벤트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게시하고 다른 페이지에 "좋아요"를 표시하고 게시물 댓글 또는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음. 또한 비즈니스 프로필을 사용하면 다른 Facebook 사용자가 귀하에게 리뷰를 제공할 수도 있고 Facebook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음
- LinkedIn은 경력 관련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특정 업계의 전문가 청중을 구축하려는 브랜드는 비즈니스 프로필을 만들고 업계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게시물 및 메시지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게시할 수 있음. 또한 메시징 및 댓글 기능을 사용하여 청중 또는 게시물에 댓글을 단 사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음
- Twitter 계정 또한 개인과 단체의 정보를 나열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프로필을 만들 수 있고 게시물을 게시하고, 태그, 트윗과 리트윗,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음. 짧은 단문의 게시글 뿐만 아니라 Facebook과 마찬가지로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게시할 수도 있음
- 비디오 콘텐츠 성장과 함께 Facebook Stories 및 Twitter의 라이브 스트림과 같은 고급 기능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짐

□ 사진 공유 플랫폼 중 가장 큰 플랫폼 사례는 Pinterest(월 활성 사용자 4억 5천만

명)와 Instagram이 있음

- Pinterest는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진 공유에서 태그, 좋아요, 댓글 또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할 수 있음
- 사진 공유 플랫폼은 사진을 찍고, 콘텐츠를 표시하고 사진과 짧은 설명을 포함할 수 있는 게시물이 있는 사진 기반 피드를 제공함. 또한 모든 사용자가 게시물의 웹사이트 또는 제품 방문 페이지에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하트를 표시하거나 테마 "보드"를 구성할 수 있음

□ 비디오 공유 플랫폼의 주요 사례로는 YouTube(26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와 Vimeo(2억 4천만 명의 시청자)가 있음

- YouTube는 상업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기능을 제공하여 광고주와 수익 창출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Vimeo의 소규모 플랫폼은 매우 커뮤니티 중심적으로 시청자에게 프리롤 광고가 없음
- 지난 몇 년 동안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로 인해 Facebook은 Facebook Stories와 Facebook Live를 출시했으며 모바일 앱에 동영상 전용 탭을 추가하였고 Twitter는 사용자가 Periscope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라이브 비디오 스트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전통적인 사진 공유 플랫폼인 Instagram 또한 최근 릴과 비디오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 인스타그램 대표 Adam Mosseri는 2021년에 "우리는 더 이상 사진 공유 앱이나 정사각형 사진 공유 앱이 아닙니다"라고 밝힘

□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주요 플랫폼 사례로는 Snapchat(일일 활성 사용자 229명)과 TikTok(미국에서만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명) 등이 있음

- Snapchat 및 TikTok 과 같은 앱을 통해 사용자는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으며 AR/VR 필터, 음악 오버레이 및 대화형 게임 등과 같은 다양한 대화형 및 고도로 실험적인 기능도 있음
- Snapchat에서 뷰티 튜토리얼, 웰빙 팁, 뉴스 또는 트렌디한 신제품을 소개하는 스토리를 볼 수 있음
- 짧고 반복적인 클립을 기반으로 하는 앱인 TikTok은 비즈니스를 위한 5가지 유형의 광고 옵션을 제공하고 이 광고는 사용자가 건너뛸 수 있는 9-15초 클립임

□ 블로깅/커뮤니티의 주요 플랫폼 사례로는 Tumblr 와 Reddit 등이 있음

- 모두 사용자가 밈, 이벤트, 정치, 대중 문화와 같은 흥미로운 틈새 주제에 대해 게시할 수 있고 사용자가 게시물을 게시하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용자가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자신의 설명과 함께 대화에 추가할 수 있음
- 블로그와 커뮤니티 구축 플랫폼은 매우 틈새 산업이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장려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2.1.2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유형별 저장·관리 방법

- **2018년 유럽에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 통과되면서 플랫폼 제공사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시작함**
-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개인의 데이터 접근 수준과 방법은 다르지만,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저장하는 것은 중요함**
 - 여기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아카이빙 사례가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저장·관리방법만 포함함

1) 페이스북(Facebook)

- Facebook을 사용하면 계정 아카이브를 JSON 또는 HTML 형식의 zip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식은 기계가 읽을 수 있으며 더 쉽게 처리하거나 다른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고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도 기계 판독이 가능하지만 index.html 파일을 포함하여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므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아카이브를 살펴볼 수 있음
- Facebook은 또한 다운로드의 미디어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 보관 목적으로 "높음"을 선택하면 다운로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미지와 비디오의 품질은 더 좋아짐. 또한 메시지, 그룹 활동 등과 같이 다운로드에서 포함하거나 제외할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음
- 아카이브 유형은 (1) 댓글, 좋아요/반응, 사진/동영상, 게시물 및 프로필 정보에 대한 폴더를 표시하는 Facebook 아카이브 파일 구조와 (2) Facebook 아카이브 데이터의 스크린샷으로 소량만 다운로드된 매우 간단한 것으로 구분함
- Facebook 페이지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도 다운로드할 수 있음. 그러나 Facebook은 Facebook 그룹의 아카이브를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그룹

에서 작성한 특정 개인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은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그룹 아카이브 전체를 다운로드할 수는 없음. 따라서 보존하려는 사진이나 기타 자료가 있는 커뮤니티 그룹이 있는 경우 다른 웹 아카이빙 도구를 사용해야 함

2) 플리커(Flickr)

- Flickr는 데이터와 사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함
- 전체 카메라 롤을 zip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개별 앨범을 선택할 수 있음. 사진의 데이터베이스 번호와 사진 이름, EXIF 메타데이터가 유지됨
- 또한 전체 Flickr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음. 전체 Flickr 데이터는 전체 해상도의 사진 및 동영상에 포함된 zip 파일과 계정 정보가 포함된 JSON 메타데이터 파일을 제공함
- YouTube, Gmail, 행아웃, Blogger, Google 드라이브, Google 포토, Google 지도 위치, Google+ 및 기타 제품과 같은 Google 제품은 Google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음. 관심 있는 이메일 계정이 있는 경우 계정 아카이브를 .PST 또는 .MBOX 파일로 정기적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음

3) 인스타그램(Instagram)

- Instagram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프로세스는 모회사인 Facebook의 프로세스와 유사하지만 Facebook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과 달리 Instagram 데이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없이 표준 방식으로 제공됨
- Instagram 아카이브는 JSON 형식으로 제공되며 게시된 동영상, 사진 댓글, 좋아요, 검색, 메시지 등을 포함함
- Instagram 다운로드 옵션은 개인 정보 및 보안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보거나 이메일로 다운로드를 요청할 수 있음

4) 트위터(Twitter)

- Twitter를 사용하면 전체 계정 아카이브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 Twitter 계정이 Periscope 계정에 연결된 경우 해당 데이터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파일은 스프레드시트 형식의 모든 트윗 텍스트와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tweets.csv 파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데이터 폴더가 포함된 zip 파일로 다운로드됨
- Twitter 다운로드에는 기본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월별로 트윗을 찾아볼 수 있는

index.html 파일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다운로드에는 JSON 형식의 계정 정보가 포함되며 계정에 게시된 이미지 및 기타 미디어의 다운로드가 포함됨

2.2 실감콘텐츠의 기술 분류 및 특성

- 실감콘텐츠는 기술적으로 크게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홀로현실(HR)(이를 통칭하여 확장현실(XR)이라 함) 등의 주요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표 IV-1〉 실감콘텐츠의 주요 기술 및 특징(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14)

구분	특징	주요기술
가상현실 (VR)	-사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 공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총체적 기술(폐쇄적이고 완전히 몰입적인 3차원 환경) -입체감 있는 영상 구현 -가상공간에서의 뛰어난 몰입감	-몰입 가상화 -실감 상호작용 -가상현실 환경생성 시뮬레이션
증강현실 (AR)	-실제 세계나 상상의 세계에서 물리적 존재를 시뮬레이션하는 환경을 복제해 사용자가 그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함(개방적이고 부분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 -현실과 가상 간의 상호작용성	-센싱 및 트래킹 -영상합성 -실시간 증강현실 상호작용
혼합현실 (MR)	-물리적, 디지털 물체가 공존하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환경과 시각화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가 가상 세계가 융합되는 것 -VR의 몰입감과 AR의 상호작용성을 결합하여 사실감 극대화 -실시간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 5G 환경 응용에 적합	-디지털 홀로그램 -실감 상호작용 -현실세계 인지 및 모델링
홀로현실 (HR)	-Holographic 기술을 활용하여 안경, 윈도우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인간 시각 피로도 없이 사용자에게 초실감 콘텐츠와 차세대 UI를 제공하는 총체적 기술	-

- XR 기술은 크게 하드웨어 기술 중심의 분류와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의 분류로 2가지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음(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6-9)³³⁾하드웨어 기술 중심 분류는 다시 입력 인터페이스, 컴퓨팅 장치, 출력 인터페이스로 다시 범주화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 분류는 추적 및 정합 기술, 음성 인식 기술, 상호작용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지능형 검색 기술 등으로 범주화함

- 독점적인 제작 플랫폼이 없고 콘텐츠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표준화가 미미하여 콘텐츠를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현 기술도 함께 확보

33) 전상홍 (2023).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보고서: XR 기술 산업 현황 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정부주도의 플랫폼 표준화 및 모듈화 작업 지원(2023~2025)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2.3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과 특성



〈그림 IV-3〉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

-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이거나 상용화 예정인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면 콘텐츠의 메타버스 플랫폼포밍을 샌드박스 게임, SNS,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샌드박스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 중 비교적 오래된 서비스 형태로 소셜과 콘텐츠 기능을 강화 중에 있음
 - 포트나이트는 창작 툴인 '포트나이트 크리에이티브(이하 포크리)'를 통해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게임 모드임
 - 게임 외에도 포트나이트는 콘서트, 라이브 이벤트를 제공하는데 2019년 DJ(Disc Jockey)인 마시멜로(Marshmello)와 협업 콘서트에 1,100여만 명 이상이 동시 관람했고, 2020년 래퍼(Rapper)인 트래비스 스콧(Travis Scott)이 대륙별로 가상 투어를 개

최해 2,700여만 명이 관람했으며, 방탄소년단(BTS)도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유튜브에서 발표함

- 로블록스(Roblox)는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임. 로블록스는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가 플랫폼에서 아바타 역할을 하는 가상 캐릭터를 장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아이템을 구매, 판매 및 생성할 수 있음

□ SNS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 제페토는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로,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임. 2018년 출시된 제페토는 얼굴인식과 증강현실(AR), 3D 기술 등을 이용해 ‘3D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거나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호라이즌은 ‘메타’로 사명을 개명한 페이스북이 오кул러스를 통해 서비스하는 가상 현실 기반 소셜 플랫폼으로 이용자는 호라이즌 월드에서 아바타로 가상 공간에서 업무, 쇼핑, 파티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인 샌드박스(The Sandbox)의 경우, 이용자는 샌드(SAND)라는 암호화폐로 NFT화된 아이템과 콘텐츠, 토지(Land) 거래가 가능하고, 경제 활동이 게임의 외부 세계까지 연결됨

□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생활·소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전문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등장하고 있음

3.1 국내 사례

3.1.1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

- 국립중앙도서관은 웹 자료의 새로운 유형으로 2016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소셜 미디어(Twitter)에 대한 수집 및 보존을 수행하고 있음
 - 최초의 소셜 미디어 컬렉션인 트위터 컬렉션을 자체 개발을 통해 구축함
 - 웹사이트, 웹자료와 구분하여 ‘소셜 미디어’ 카테고리에서 기관별, 지역별 브라우징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OASIS를 통해 제공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Twitter 계정은 395개로 수집된 게시글 건수는 80만 건(2020년 기준)에 해당함
- 「도서관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웹사이트와 웹자료이고 웹자료는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음

3.1.2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포털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해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 등 공공기록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관리 대상 전자기록물에

서 웹기록물을 포함하고 있고, 다시 웹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활용하는 웹사이트·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 자료”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10.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활용하는 웹사이트·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 다만,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https://www.archives.go.kr>)에서 웹 기록물 수집에 대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국가기록원의 세부 수집 지침 등에 소셜 미디어 수집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고 아직은 소셜 미디어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단계임(이정민 외, 2020)³⁴⁾
- 특수 컬렉션에서의 수집을 제외하고 국가기록포털을 통해서 실제로도 수집·저장·제공하고 있지 않음

3.2 미의회도서관

□ 미의회도서관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장서개발정책에 의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수집 정책(보충 지침에 포함)은 비교적 최근인 2021년 11월에 제정, 2022년에 개정됨

- 그 외에 최근 포함되었거나 정책(보충 지침)에 포함된 신매체 유형은 데이터셋(2022년 개정), 개방형 디지털 콘텐츠(2020년 8월 제정, 2022년 개정), 디지털 지리정보시스템 등임(Library of Congress, 2023)

〈표 IV-2〉 미의회도서관의 최근 추가된 매체 유형

매체 유형	수집 범위 및 내용
-------	------------

34) 이정민, 이정은, 신청룡, 오효정(2020). 지방자치단체의 소셜 미디어 기록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구성요소 도출 연구. 기록학연구, 65, 111-150, 출처: <https://doi.org/10.20923/kjas.2020.65.111>

소셜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지침과 함께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도 제공함 수집 기준(도서관의 웹 아카이빙을 통해 획득한 웹사이트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 계정, 개인 또는 그룹의 독립형 소셜 미디어 계정은 미국 선거 후보 사이트에 대한 현재 방식을 포함하여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에 대한 도서관의 국가/카테고리 권한 구조에 따라 수집될 수 있음) 주요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Facebook, Twitter, Instagram, YouTube, Pinterest, LinkedIn, Reddit, TikTok, Snapchat 등)
데이터셋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셋은 일반적으로 기록 또는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의 모음으로 텍스트, 숫자, 이미지, 비디오를 포함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레코드로 구성
개방형 디지털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 연재물 및 도서; 개인 또는 기관이 업로드한 콘텐츠가 있는 디지털 저장소; Wikipedia와 같은 개방형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 인터넷이나 외부 유형 미디어에 있는 출판되지 않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원시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지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벡터 및 래스터 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디지털 파일 유형 및 형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지리 공간 또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데이터(지리 정보 또는 토폴로지가 내장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아날로그 지도의 디지털 스캔 및 지리 참조 버전; 원격 감지 디지털 이미지; 지리 공간 데이터의 생성, 검색, 분석 및 표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웹 지도 응용 프로그램)

□ 소셜 미디어 웹 아카이빙

- 미 의회도서관은 수년 동안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수집해 왔음. 예를 들어, 웹 아카이브에는 10년 이전의 Facebook 캡처도 포함되어 있음
- 의회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웹 아카이빙과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 웹 아카이빙은 도서관의 허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이 프로세스에서 최소 권한 수준은 미국 정부 페이지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또는 유사한 서비스 약관을 사용하는 페이지를 제외하고 소셜 미디어 페이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함
- 웹 아카이빙은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획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나 소셜 미디어 콘텐츠는 웹 아카이빙과 파일 전송 모두를 통해 수집된다는 점에서 구별됨. 예로 Twitter에서 직접 트윗 텍스트를 수신하여 획득한 폐쇄형 컬렉션인 도서관의 Twitter 아카이브는 파일 전송 방식임
- 액세스 문제가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때까지 금지된 상태로 유지되는 Twitter 아카이브를 계속 보존하고 보호함
- 더 이상 Twitter에서 트윗 텍스트를 직접 수집하지 않지만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컬렉션 정책 설명 범위 내에서 Twitter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수집할 계획임
- 진화하는 소셜 미디어 웹 아카이빙 환경에 적용되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는 Twitter, Facebook, Instagram 및 YouTube를 포함한 많은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캡처하고 재생할 수 없음. 콘텐츠 캡처 및 재생과 관련된 이 업계 전반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소셜 미디어 수집 정책은 계속해서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 소셜 미디어의 정의 및 예시

- ‘소셜 미디어’ 라는 용어는 사용자 그룹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플랫폼을 의미함. 이러한 플랫폼 및 기타 플랫폼에 의해 활성화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소셜 네트워킹이라 함

□ 소셜 미디어 수집 범위

- 미의회도서관의 전체 장서관발지침에 따름
-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웹사이트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 계정도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도서관의 국가/카테고리 권한 구조에 따라 수집될 수 있음
- 개인 또는 그룹의 독립형 소셜 미디어 계정은 미국 선거 후보 사이트에 대한 현재 통지/통지 방식을 포함하여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에 대한 도서관의 국가/카테고리 권한 구조에 따라 수집될 수 있음

□ 소셜 미디어 수집 제외 대상

- 해시태그 또는 이와 유사한 연결된 제목 태그(예: Twitter 해시태그)로 수집된 소셜 미디어 콘텐츠 또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 피드, 그룹, 포럼, 커뮤니티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예: Reddit)에 게시한 소셜 미디어 콘텐츠와 같이 다양한 작성자에 의해 생성되는 집단 소셜 미디어는 권한 확보가 어렵거나 불가능함
- 궁극적으로 도서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콘텐츠(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 등)

3.3 호주의 국가도서관 및 NSW 주립도서관

3.3.1 호주국가도서관

□ 호주국가도서관의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2022~2025)에서는 디지털 및 온라인 콘텐츠 수집 강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음

- 새로운 두 가지 디지털 수집 기능에 투자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소셜 미디어 수집용임
- 웹 수집의 품질과 규모를 개선하고 소셜 미디어 콘텐츠 수집을 위한 웹 크롤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 데이터 소스와 브라우저 자동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호주국가도서관의 장서관발정책에는 디지털 지리정보시스템과 표준 웹사이트 플랫폼에 있는 다른 유형의 온라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일부 소셜 미디어를 수집함. 다만 특정

독점 플랫폼에 의존하는 소셜 미디어에는 웹사이트 및 웹 문서에 사용되는 수집 이외의 선택적 방법을 사용함(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23)

- 현재의 기술에서 호주의 웹 아카이브는 특정 Twitter 계정을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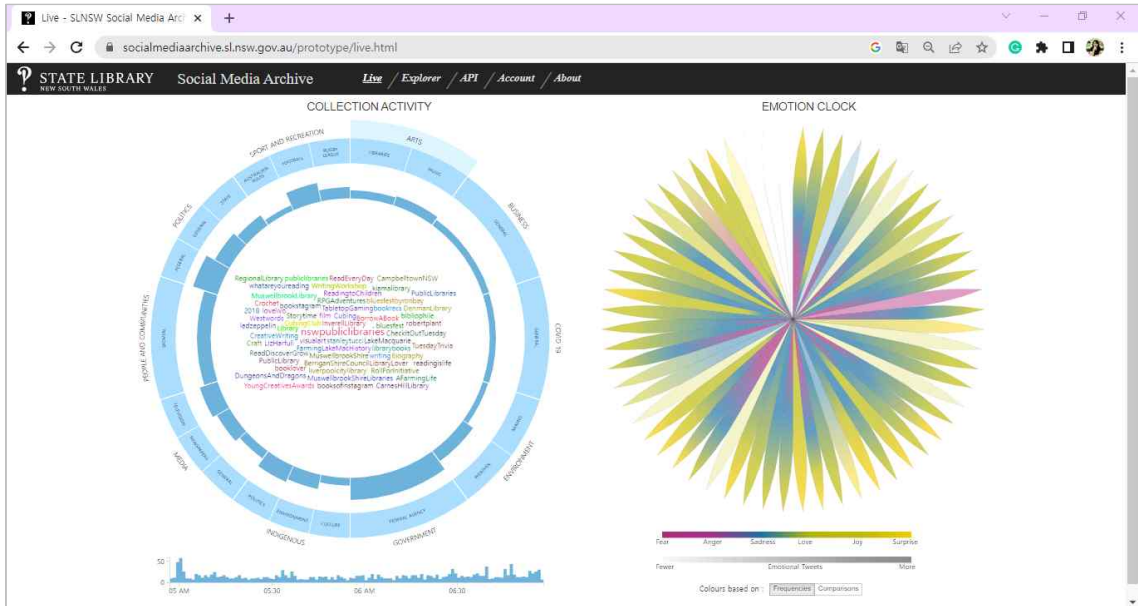
3.3.2 New South Wales State Library의 소셜 미디어 아카이브

□ 장서 수집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뉴사우스웨일스의 삶을 기록하는 다음의 5가지 디지털 콘텐츠를 정하고 대표적인 샘플을 수집, 저장, 보존, 설명 및 제공하는 활동에 집중함(Digital Collecting Strategy, NSW State Library)

- NSW 정부 출판물
- 상업 간행물 및 자체 출판 자료
- 미공개 born-디지털 자료
- 소셜 미디어 콘텐츠
- 커뮤니티 생성 콘텐츠

□ 소셜 미디어 아카이브(<https://socialmediaarchive.sl.nsw.gov.au/>)

- 도서관은 2012년부터 CSIRO 및 Vizie도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셜 미디어 콘텐츠 수천만 개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소셜 미디어 아카이브를 구축함
- 수집 및 아카이브 방법
 - 도서관은 수집할 키워드와 해시태그를 식별함
 - 아카이브는 Facebook, Twitter, Reddit 및 Instagram을 비롯한 다양한 소스에서 이러한 키워드와 해시태그가 포함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수집함
 - Vizie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및 아랍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유사한 콘텐츠 모음을 지원함
 - 새로운 주제에 대한 게시물을 즉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해시태그와 구문을 추가하여 새로운 문제와 중요한 이벤트에 신속하게 대응함
- 소셜 미디어 아카이브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집계 데이터만 표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에서 논의되는 트렌드를 볼 수 있지만 개별 게시물 보기는 지원하지 않음



〈그림 IV-4〉 NSW State Library의 Social Media Archive

- 수집된 데이터는 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빙됨
- 수집 범위 및 주제
 - 도서관은 정치, 시사 문제,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환경 및 주요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기록하는 연간 4천만 개 이상의 게시물을 수집함
 - 수집된 중요한 해시태그에는 호주 정치 토론의 경우 #auspol, 뉴스우즈웨일스 정치 토론의 경우 #nswpol, NSW의 COVID-19 관련 토론의 경우 #covid19nsw가 포함
- 문서화된 중요한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됨
 - 인구 조사(2016, 2021) #census2016 #CensusFail
 - 2019-20 산불
 -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유행
 - 호주의 날
 - NSW 홍수
 - NSW 및 연방 선거
- 아카이브의 라이브 섹션에서 최신 활동 및 감정 시계를 보거나 탐색기 섹션에서 특정 주제 또는 해시태그를 검색할 수 있음
- 소셜 미디어 아카이브용 API는 2021년 5월에 공개 액세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

년에 추가로 개발됨. CSIRO는 계정 등록을 포함하여 API 사용을 지원하는 사용 가이드를 개발함

3.4 독일 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 Bibliothek)

□ 독일어 트위터 아카이빙 구축

- 2023년 2월 20일, 문학 과학 데이터 센터와 독일 국립도서관이 시작한 이니셔티브는 Twitter 아카이브에서 가능한 한 많은 독일어 트윗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수행함
- 목표는 클라우드소싱 이니셔티브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완전한 독일어 트윗 아카이브를 만들고 이를 영구 보관하기 위해 아카이브 서버에 축적함
- Twitter와 Twitter 아카이브는 많은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이지만 투자자 변경과 사용자 감소로 인해 Twitter는 이미 플랫폼 리모델링을 시작했으며 추가 변경이 예상되어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없음
- 트위터가 시작된 이후 약 40억 개의 독일어 트윗이 게시되었고 "Academic Research" API는 전체 Twitter 아카이브에 대한 액세스가 용이하게 되어 있어, 약 570만 계정에서 2억 개의 독일어 트윗을 수집하는 데 성공함. 현재 API 접근은 종료됨.

□ 수집 방법 및 보관

- Twitter에서 독일어로 분류된 모든 트윗을 필터링하기 위해 검색을 수행하였고, 대용량 다운로드를 위해 Twitter의 카운트를 이용함
- API 각각 최대 백만 개의 트윗을 포함하는 개별 배치를 컴파일함
- 트윗은 독일 국립도서관에 보관되며 보존이 보장됨
- 독일 국립도서관은 과학적 목적을 위해 자동화된 분석(텍스트 및 데이터 마인드)에 사용할 수 있는 트윗 모음을 만들려고 하고 자동화된 분석은 독일 국립도서관의 기반 시설과 부지 내에서만 허용됨

3.5 영국 국가기록원(UK National Archives)

- 영국 국가기록원에서는 UK Central Government Web Estate의 수집 범위에 정부 기관의 소셜 미디어 계정도 포함하여 수집 보존함

- 최근 정부기관들이 소셜 미디어 및 기타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시민과 의사소통 등 공공 기록의 게시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영국 국가기록원은 영국 정부 웹 자산 전체를 계속 캡처, 보존 및 액세스할 수 있도록 웹 아카이빙 활동을 변경함
- 현재 정부 웹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계정 목록은 The National Archives 웹사이트에서 검색 또는 브라우징 가능함

〈표 IV-3〉 영국 국가기록원에서 수집 중인 소셜 미디어 계정 목록

플랫폼	수집 범위 및 내용
YouTube, Twitter	정부 기관 계정(정부기관 웹사이트 대상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경우)
	NHS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런던 2012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의 공식적인 계정
	기타 계정
Flicker	정부 기관 계정

- 공공 기록의 일부를 형성하는 자료가 정부 소유가 아닌 사이트나 서비스에 게시되는 경우(플랫폼 기반), 사이트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기록의 이 부분을 유지하여 캡처 및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 수집 기준 범위 내의 자료로 제한함.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를 보관할 때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캡처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복잡한 기술 솔루션이 개발됨
- 영국 국가기록원의 Twitter 아카이브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캡처를 공개 기록으로 제한하기 위해 다음 규칙에 따라 자료를 캡처하도록 개발됨



〈그림 IV-5〉 Twitter에서의 아카이브 예시(범위 내와 범위 외)

- 범위 내: 트위터는 국무부 및 장관 부서의 피드이고 다른 정부 조직 및 전달 채널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 UKGWA의 범위 내에 있는 도메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게시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트윗 링크는 완전하게 보관됨
- 범위 외: 리트윗, 트윗에 대한 응답 및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는 계정. 범위를 벗어난 자료(예: 신문 기사)에 대한 트윗 링크는 표시는 되지만 해당 자료는 UKGWA에서 사용할 수 없음
- 국가기록원의 일반적인 수집 범위를 벗어난 사이트에 게시된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 대해 제한된 캡처를 수행함. 예를 들면,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사이트 외 광범위한 문화 및 소셜 미디어 소스를 포함하는 테마 컬렉션을 개발함

3.6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 장서개발정책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웹 기반 자료의 선택적·주제별 웹 아카이빙을 수행하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소셜 미디어 컬렉션도 포함한다고 명시함(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18)
- 웹 기반 자원 및 소셜 미디어 선택 기준
 - 기념 컬렉션(예: 캐나다 150주년)

- 캐나다의 국제적 경험과 세계 무대에서 캐나다를 선보이는 컬렉션(예: 올림픽)
- 캐나다 역사상 중요한 상황과 문제를 문서화하기 위한 이벤트 기반 웹 아카이빙(예: Lac-Mégantic 철도 재해, Fort McMurray 산불)
-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예: 수상, 장관, MP)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문서화하기 위한 웹 아카이빙
-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웹 기반 자료의 보존(예: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s Web Renewal Initiative)
- 웹 수집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되는 디지털 출판물을 식별하고 확보하기 위해 국가 컬렉션을 평가 및 분석함
- 캐나다 정부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공식 간행물을 수집함

3.7 뉴질랜드국가도서관의 Facebook Archive Project

- **Alexander Turnbull 도서관에서는 개인의 Facebook 아카이브 기록을 기부하는 Facebook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이를 보존하여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의 Facebook 계정은 향후 연구원들이 사용할 컬렉션의 일부가 될 것임. 수집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도서관이 저장하기로 선택한 것
 -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한 방법
 - 21세기 초 디지털 생활과 문화의 풍부한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4.1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 개요

4.1.1 수집 배경 및 필요성

- 매체 환경은 새로운 기술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침
- 새롭게 등장한 매체 플랫폼 서비스는 역동성이 강해 이에 기반한 자료를 모두 포괄하면서 일반화된 수집 범위와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도 현시대를 반영하는 자료로 공공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오늘날 Facebook이나 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 최신의 XR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등은 현시대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신매체-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인 회사의 API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략은 회사의 제한적인 액세스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완전히 폐쇄(예. Twitter가 2023년 7월부터 사용량을 제한함)되기도 하여 수집의 시급성이 있음
- 공공 및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보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데이터셋,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와 같은 원시 데이터가 연구 및 업무 등에서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도 향후에는 고려해볼 필요는 있음

4.1.2 수집의 기본 방향

-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콘텐츠 생산량과 이용률이 급증한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유형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온라인 자료를 확대 또는 신규 수집함
- 보존가치가 높은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고 온라인 자료의 수집 기준에 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하되, 향후 수집 범위의 확대를 고려함
- 자료를 형성하는 일부 요소가 정부 소유가 아닌 상업적인 사이트나 서비스(플랫폼)이므로 사이트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수집 및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플랫폼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API의 미래의 이용가능성 및 서비스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는 플랫폼 독립적으로 저장·축적함
 -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수집·제공하고 기술적인 조치 등을 자료의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제공해야 함
-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준용)에서 발행한 간행물은 자체수집, 그 외 보존 가치가 높은 개인이나 민간 기관의 콘텐츠의 경우 수증을 최우선 수집 방법으로 고려하되, 자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

4.1.3 개념 정의 및 특징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실감콘텐츠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등으로 생성, 제작된 온라인 자료를 의미함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에서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자료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그림 IV-6〉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특징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는 빅데이터 특징(3V's: volume, velocity, variety)과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신매체-플랫폼은 누구나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생산됨. 국가의 지식자산으로 수집관리 및 보존하고자 한다면 수집 범위와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플랫폼 서비스 회사에 따라 다양한 기술과 수준으로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도큐멘테이션이 가능함
- 빅데이터의 특성과 동일하게 콘텐츠 생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데이터의 생성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짐

□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하나의 콘텐츠 내에 타인의 자료 공유 링크, 타인이 작성한 댓글과 반응 등 콘텐츠의 콘텐츠 생산 주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민감도가 높아 보안 원격 액세스와 같은 보관 및 공유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함

□ '소셜 미디어'란 사용자 그룹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플랫폼(예. Facebook, Twitter, Youtube, Instagram 등)으로 생성된 온라인 자료

□ '실감콘텐츠'란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하여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해 향유자에게 높은 현실감과 만족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

-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현실에서 가능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과학 기술 활동을 아바타(avatar)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상의 3차원 공간 플랫폼

4.1.4 수집 방법 및 대상

□ 자체수집과 수증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준용)에서 발행한 간행물은 자체수집의 방법으로 수집함
- 현재 수집되고 있는 Twitter 계정 리스트는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수집 대상이 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통해 수집함
- 그 외에 보존가치가 높은 온 자료는 자체수집, 수증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함

□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Facebook의 공공기관 계정을 추가적인 자체수집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Twitter는 확대 수집함

- 국내 공공기관의 많은 곳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Facebook, Twitter, Youtube(자료 중 동영상만), Instagram 계정을 통해 정책 안내 및 홍보, 대민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성격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탑재된 자료의 상이성이 다소 존재하나 자동연계서비스 제공으로 최근 업로드 자료의 경우 대부분 중복적임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395개 Twitter 계정만 수집·보존하고 있으나 Twitter는 Facebook 등의 계기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공공기관도 있음
- 전 세계적으로 Twitter가 점유율 3위에 해당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지만, 국내에서의 사용 빈도(팔로워 수, 이용 빈도 등)는 높지 않음
- 게다가 국가 및 공공기관의 Twitter 계정 중에는 직접적으로 업로드하지 않고 Facebook과 자동 연계로 업로드하는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웹사이트와 유사한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Facebook으로(Twitter, Instagram과의 자동 연계)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교육부 계정의 경우 Facebook의 팔로워는 2023년 7월 30일 기준 약 140,000명, Twitter는 47,480명, Instagram은 약 19,000명임

- Youtube에 업로드된 동영상은 Facebook에 업로드된 동영상과 다수 중복되어 나타남
 -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Facebook의 업데이트가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남
 - Facebook은 게시물, 릴스, 사진, 동영상으로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보다 자료 유형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음
 - 전 세계 및 우리나라 점유율과 공공기관 활용정도를 고려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Facebook 페이지가 가장 우선적인 수집 대상으로 고려해야 함
- 현재 Facebook 페이지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그러나 Facebook 그룹의 아카이브를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그룹에서 작성한 특정 개인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은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그룹 아카이브 전체를 다운로드할 수는 없음), 다른 웹 아카이빙 기술 개발이 추가로 필요함
- Twitter의 경우 해외에서 작성한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 언급한 트윗을 포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South Korea', 'Korean', 'Republic of Korea'등의 키워드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실감콘텐츠는 수증 대상으로 고려하되, 현재 시점에서의 서비스용과 보존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지속성, 용량 등을 고려하여 보존 가치가 높지 않으면 디지털 파일 전체를 수집하는 대신 주요 화면을 포함한 동영상이나 캡처 이미지로 대신할 수 있음
- 공공기관 등이 상업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행사를 진행한 경우, 대용량으로 인해 해당 내용을 동영상으로 기록한 디지털 파일을 수증 대상으로 고려함
- 이 외, 공적 영역의 자료가 아닌 경우에도 매체의 변천 과정 및 사회적 시대의 이슈를 반영한 개인 및 민간 기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실감콘텐츠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수집 제외 대상
- 자료의 용량, 일시적으로 개발 운영된 자료, 기술적 문제 등으로 수집 또는 보존이 불가능한 자료

- 콘텐츠의 진본성, 가치성, 부합성, 유일성, 정보성, 양방향성, 소멸가능성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별하되, 자료의 용량, 일시적으로 개발 운영된 자료, 기술적 문제 등으로 수집 또는 보존이 불가능한 자료와 그 외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함

4.1.5 수집 기준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 기준과 같이 디지털 형태의 보존과 이용 서비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우선하여 수집함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는 장기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해 플랫폼 독립적으로 저장 수집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 장서를 보완하거나 충실화하는데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함
-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선정 기준과, 웹사이트 선별 수집 평가표를 준용하되, 소셜 미디어의 경우 다음에서 제시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하고, 실감콘텐츠는 웹자료의 한 유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한 기존의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선정 기준을 따름

〈표 IV-4〉 온라인 자료 수집 기준

구분	대상 자료
웹자료	-대상 언어에 따라 언어, 주제, 내용, 기능성, 파일형식, 이용자 요구, 출판사·저자 권위, 선정도구, 접근성, 기술적 문제, 유지와 갱신 등을 고려하여 수집한다(「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의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선정 기준 참고).
웹사이트	-신뢰성, 유일성, 적합성, 유용성, 가치성, 대중성, 언어, 시급성,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수집한다(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의 웹사이트 선별 수집 평가표 참고).
소셜 미디어	-진본성: 공식적으로 확인된 계정(예. Facebook의 파란색 인증 배지, Twitter의 회색 인증 배지) -가치성: 소셜 미디어 콘텐츠가 공공기관 업무의 증거적 가치가 높은 경우 -부합성: 소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 기관의 정책·사업·사명에 부합할 경우 -유일성: 소셜 미디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일 경우 -정보성: 정보전달의 도구로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했을 경우 -양방향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 요청, 불만 사항 접수 등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했을 경우 -소멸가능성: 서비스 종료나 정책적인 큰 변화가 예고 되어있는 플랫폼을 사용한 경우

4.1.6 수집 시 고려해야 할 기타 이슈(법적, 윤리적)

1)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

□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안으로 인한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은 넓혀졌으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음**

- 소셜 미디어의 경우 정부기관의 계정을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남긴 데이터가 수집 콘텐츠에 포함될 수 있음.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음
- 다만, 동법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 하지만 아래의 제18조의 4항과 5항에서 밝혔듯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한다할지라도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따라 게재 후 가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액세스 제어와 같은 특정 기술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저작권법」 또한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를 수집·제공하기 전에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평가해야 함. 이를 통해 일부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음**

- 「저작권법」의 제31조 8항에 의하면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보존 목적 이외에 수집·제공 및 이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관련된 법적 이슈를 평가해야 함
- 소셜 미디어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수집·제공 및 이용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저작물 인용이 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 4 등에서 규정하는 부분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실감콘텐츠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쟁점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존 법리로 해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상현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

- 실감콘텐츠에서 저작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분은 전시권과 파노라마 자유(freedom of panorama: 가상·증강현실 구현 과정에서 이용되는 배경 정보)임

- 「저작권법」 제19조에 의해 저작자는 저작물 원본과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지지만, 필름, 영상 등 다른 장치에 의한 간접전시는 전시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시에 포함될지 여부는 향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 의해 파노라마 자유 여부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제35조의 3에 의해 가상현실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면책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2) 고려해야 할 윤리적 이슈

- 소셜 미디어, 메타버스 등 이용자 참여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는 유형에 관계없이 생성 시 윤리적 이슈와 관련성이 있음
- 특히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때 윤리적 사용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의 제공 정보에 대한 윤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안내와 교육을 기획 운영할 필요가 있음

4.2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

4.2.1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서관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범주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의 진본성, 가치성, 부합성, 유일성, 정보성, 양방향성, 소멸가능성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별하되, 자료의 용량, 일시적으로 개발 운영된 자료, 기술적 문제 등으로 수집 또는 보존이 불가능한 자료와 그 외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함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및 형태는 크게 웹사이트와 웹자료이고 웹자료는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 소셜 미디어는 기관이나 개인에게서 수집 허락을 받아 기술적인 절차에 의해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에 대해 주기적인 접근을 통해 수집해야 하는 속성은 웹사이트의 수집과 유사하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저장 기술과 방법이 다름
 - 앞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웹사이트와 별개로 수집 관리함
 - XR 기술을 적용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실감콘텐츠는 수집 시 대용량으로 인해 서비스용과 보존용으로 구분하여 수집함
- **현재의 자료 유형 구분에서 소셜 미디어는 웹사이트, 웹자료와 따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고 웹자료 내의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에는 실감콘텐츠를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소셜 미디어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실감콘텐츠 등
-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3. 소셜 미디어

4.2.2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별 수집 지침 개발 및 제시

- **소셜 미디어의 수집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

본·수집 지침에 제시해야 함

□ 다음은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소셜 미디어 수집 지침(안)임

■ 소셜 미디어 수집 지침

개요

- 보존가치가 있는 개별 소셜 미디어 계정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기술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깊이 및 주기를 달리하여 수집·보존한다.
- 가치성, 부합성, 유일성, 정보성, 양방향성, 소멸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자원으로 가치가 없는 소셜 미디어는 수집하지 않는다.

기본 방침

-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국내 주요 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준용)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수집한다.
- 한국의 국제적 경험과 행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한 소셜 미디어 계정을 수집한다.(예: 올림픽, 엑스포 등)
- 한국의 중요한 재난과 이슈화된 사건을 쟁점화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수집한다.
- 한국인 및 한국과 관련된 내용의 가치가 있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수집하여 보존한다.
- 정량화된 방법으로 방문 수, 갱신빈도 등 고려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선별한다.
- 소셜 미디어 계정을 웹사이트 공지사항과 같이 안내와 홍보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집에서 제외한다.

3. 수집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회, 교육연구기관 등 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조직 등의 소셜 미디어 공식 계정
- 국내 방송사, 신문사(인쇄 신문, 온라인 신문 모두 포함) 등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
- 사회문화적으로 인지도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개인 계정
- 전문가 그룹이나 이용자가 추천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
- 한국인 및 한국 관련 소셜 미디어 계정
- 구독자 및 추천 수가 많은 소셜 미디어 계정 등

4. 수집 내용 및 주기

- 수집 내용은 기술적 상황, 중요도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 유연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되,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한다.
- 수집 주기는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3개월, 정부기관 6개월, 언론기관 1개월, 기타 1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웹자료 수집 지침에 실감콘텐츠 항목을 분리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미지 자료 수집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의 정의를 “이미지자료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화면에 재생 및 표시된 시각 자료로써 사진, 회화 등의 자료를 말한다.”를 2차원으로 제한하고 실감콘텐츠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수집 지침(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감콘텐츠 수집 지침

- 실감콘텐츠란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하여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해 향유자에게 높은 현실감과 만족감을 체험 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말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기록된 파일도 여기에 포함한다.
-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연구 기관 등에서 생산한 공공의 가치를 지닌 콘텐츠를 우선 수집한다.
- 한국과 한국인의 생활상과 풍속 등을 표현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가지 유형일 경우, 콘텐츠 영상은 확장자 AVI, MPEG, MOV 또는 MP4, 실감효과 메타데이터는 MPEG-V 표준 기반의 XML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4.2.3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도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소셜 미디어 자료는 특정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 기반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자체수집을 고려하는 경우, 수집 대상이 되는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과 해당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카이빙 도구 등 플랫폼 특성에 맞는 수집 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고려해볼 만한 수집 도구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수집을 허락받은 계정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 활용하여 수집 도구 개발
- 소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및 하베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드파티(Third Party) 활용하여 수집
- 수증의 경우 개인이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셀프 아카이빙 기능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후 국립중앙도서관 기증
- 일부 플랫폼의 경우(Twitter), 오픈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한국 및 한국 관련 자료의 포괄적 수집에 활용
- 이미지의 형태로 스크린샷하여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내용을 수집

□ 대용량 콘텐츠 추가 수집 및 확대를 위한 넉넉한 스토리지 확보

□ 추가적인 콘텐츠 수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

4.2.4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 소셜 미디어 수집 대상 기관의 수집 허락

- 현재 Twitter 수집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연계 협력하여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수집 허락
- 수집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지닌 추가적인 수집 대상 발굴 및 연계 협력

□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협력

-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실감콘텐츠(메타버스 플랫폼 포함) 생산 현황 파악 및 주요 결과물에 대한 수증을 위한 국가적인 주요 사업 주관기관과의 연계
-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실감콘텐츠의 장기적인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홍보의 장을 제공함

예)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연계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정부 부처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주요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과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등과의 연계

4.2.5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제고

- OASIS에서 한 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기관(개인) 단위의 디지털 컬렉션 제공
- 대용량의 공공영역에서 자체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 메타데이터 및 원 콘텐츠로 접근 가능한 저장된 서버의 링크를 제공하여 서비스하고 보존용은 시연 동영상을 제작함

□ 실감콘텐츠 등 e-deposit 시스템의 콘텐츠 확장성 및 사용의 용이성 제고

- e-deposit 시스템에 저장 가능한 콘텐츠의 유형 확대
- 쉽고 간단한 인터페이스 도입을 통해 납본 및 수증력 제고

□ 실감콘텐츠 재현 공간 첨단화 및 구축

- 육안으로 볼 수 있는 3D LED 초대형 스크린 등 재현 공간 구축을 통해 접근 가능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홍보
- 기술 발전에 따른 실감콘텐츠 체험공간(VR 체험공간)의 지속적 개선

제 V 장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납본 연계 방안

1. 국제표준도서번호 외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 실태조사
2. 우선순위, 활용성 등 심층 분석을 통한 납본 연계 방안

1

국제표준도서번호 외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 실태조사

□ 부여대상별 표준식별기호

구분		부여대상	국제 표준규격	주관기관	국내 등록기관
국제	ISBN	단행본	ISO 2108	ISBN-IA(영국)	국립중앙도서관
	ISSN	연속간행물	ISO 3297	ISSN-IC(프랑스)	
	ISNI	창작자	ISO 27729	ISNI-IA(영국)	
	DOI	디지털콘텐츠	ISO 25324	IDF(영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DOI 센터
	ISRC	음반자료	ISO 3901	IFPI(영국)	한국음반산업협회
	ISWC	음악작품	ISO 15707	CISAC(프랑스)	한국음반저작권협회
	ISAN	시청각자료	ISO 15706	ISAN-IA(스위스)	영화진흥위원회
국내	UCI	디지털 콘텐츠			한국저작권위원회
	ICN	저작권관리			

1) 시사점

□ 국제표준식별체계의 온라인 자료 부여 동향

- ISBN은 출판업체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가능
- ISSN의 경우 정기간행물 식별에 활용하여 기록보존과 관리에 효과적이며, 미디어 환경의 다양성에 대응하여 온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활용이 확대됨
- ISNI는 창작자 식별과 저작권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가능
- 디지털 객체 식별자인 DOI는 증가하는 온라인 출판물과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에 사용되며, 인터넷 환경에서 지속적인 접근성을 제공하여 출판물의 활용을 촉진
- ISRC는 음악 등의 녹음자료를 식별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되며, 음악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음악작곡가와 연주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함
- ISWC는 음악작품 식별관리하며, 음악 저작권의 보호와 수익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음악플랫폼에서 효과적으로 지원 관리 가능함

- ISAN식별번호는 시청각 자료를 식별관리하며, 영화 및 방송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및 작품의 저작권 관리, 수익 분배 및 저작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함
- 이렇듯 국제표준식별체계는 각 분야에서 자료 식별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정보 및 창작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보 및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보존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온라인 기반 콘텐츠 증가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멀티미디어 자료의 출판이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MR)등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 자료가 증가함.
- ISBN 기반 온라인 자료의 납본대상 납본율은, 2022년 기준 16.4% 이고, ISSN 기반 온라인 자료 납본율 48.4%정도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SSN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의 납본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출판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전자출판물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 웹툰 등의 정확한 출판량을 파악할 수 없음
- ISSN의 부여대상인 연속간행물의 경우, 일반 단행본 보다 전자저널 형태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ISSN 부여가 납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1965년 시행한 종이책 위주의 납본에 대한 인식은 정착이 되었으나, 2016년부터 시행한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ISBN, ISSN을 부여받은 자료는 납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를 거치지 않는 개별 단위의 자료가 납본 될 경우 납본 보상금에 대한 예산 확보 및 법제도 검토가 필요

□ 국내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 · 관리

- 현재 ISBN 기반의 온라인 납본 대상은 웹툰, 전자책, 오디오북자료가 해당이 되며, 음원 자료는 수집 대상에 해당
- 연재형 웹툰의 경우, 2024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ISBN을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식별체계가 필요함
-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하는 국제표준식별체계는 대상별 메타데이터가 상이하지만, 공통 부분도 있으며, 이를 통합 · 관리할 수 있는 식별체계로 UCI를 활용할 수 있음
- 도서분야의 ISBN/ISSN, 음악분야의 ISRC, 학술콘텐츠의 DOI 등이 배타적 영역을 구

축하여 국가표준식별체계인 UCI와의 연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서로 다른 형식의 메타데이터 사용에 따른 상호운용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필요함

- UCI 코드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에 따라, 구문구조개선 필요 예) 정국,방탄소년단 Dreamers(feat. FIFA Sound) : I500-1000009300393.100064358700-1
-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인 UCI는 콘텐츠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식별하는 역할을 하므로,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음악, 영상, 이미지, 문서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포괄하여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콘텐츠 관리와 저작권 보호에 활용 가능함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콘텐츠의 효과적인 활용 가능

□ ICN을 통한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관리 통합 관리

-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은 저작권 정보 및 라이선스 정보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저작권 계약과 자료 이용 협의가 용이
- 증가하는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므로, 저작권 관련 분쟁의 감소에 기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정보를 통합 활용
- 다국적 저작권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협약을 강화

2) 정책제안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역할 강화

- 서지표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개편하여, 서지 표준의 개발과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서지표준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소속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서지 표준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 서지표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서지 표준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서지표준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고, 서지 표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서지표준센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지 표준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

을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해야 함.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서지표준센터의 역할 강화 전략

- 서지 표준은 서지자료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대중적으로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서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서지 표준의 개념과 필요성, 활용 방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홍보 활동을 강화
- 서지 표준센터는 국제 표준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여, 국내 서지 표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도서관과의 협력 확대를 도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표준을 국내 표준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서지 표준센터는 서지 표준의 인식 제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서지 표준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도모해야 함. 이를 위해 서지 표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 이용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상

- 납본법 개정 및 추가 자료가 필요하며, 납본제도에 대한 정착이 필요
- 타 식별체계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한 UCI와 납본업무에 대한 연계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사 및 개인 저작자로부터의 납본을 통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및 국제적인 정보와 지식을 보존하고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납본제도에 대한 출판사 및 개인의 인식과 참여율을 부족함
- 납본제도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을 개선하고 강화하여, 출판사 및 개인 저작자들이 납본을 통해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과 지식 공유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함
-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 대상으로 납본제도와 관련된 교육 세미나나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납본의 중요성, 절차 및 혜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디지털 콘텐츠의 납본에 대한 일원화 및 보상 방안을 확대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열람자에게 제공되는 장점을 강조하여 인식을 높일 수 있음
- 납본된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를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에게 공정하게 지급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저작물의 활용 범위와 개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조정
- 보상 및 혜택에 관한 투명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수립하여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들이 보상 방안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지급을 위해 관련된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확보

- 즉, 납본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상 방안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은 출판사 및 개인 저작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납본제도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은 다양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의 정보와 지식 공유에 기여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

- 연재형 웹툰의 경우,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ISBN을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식별체계로 UCI를 활용할 예정
- UCI는 국가표준번호이지만, 기존의 국제표준식별체계와 연계가 가능하여 대응 가능한 식별체계로 인정될 수 있도록 UCI 활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함
- UCI 식별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된 법적 규정 정비 필요함
- 매체유형별 상이한 국제식별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발굴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해야 함
- UCI는 디지털 콘텐츠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유하고 중복되지 않는 식별번호 체계를 구축하여 콘텐츠의 정확한 식별을 가능케 할 필요가 있음
- 음악, 영상, 이미지, 문서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에 대한 식별 체계를 포괄하도록 UCI를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
- 기본적인 식별자로 UCI가 연결될 수 있으며, UCI의 기본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결 서비스 등을 구상할 수 있음
- UCI는 다양한 관련 콘텐츠에 URL 주소의 변환과 관계없이 관련 콘텐츠에 바로 연결이 가능하여 콘텐츠 활용성이 높음
- 기존의 식별체계와 연계하여, 정보의 유기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가능
- UCI의 표준화된 식별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콘텐츠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식별체계의 변경이 불필요하여,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관리 할 수 있음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동일한 콘텐츠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효율적인 배포 지원

□ 국제창작자 식별체계 ISNI와 연결

- 매체별 표준식별코드가 다르고, 다양한 표준식별코드를 연계할 수 있는 ISNI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콘텐츠의 창작, 생산, 관리, 유통과 관련된 저작자 및 기여자의 공적 신원을 식별하기 위해 전 세계의 여러 도서관, 출판사, 데이터베이스 및 저작권 관리 기관에서 사용 중
 - 음악과 음악 콘텐츠 저작권 단체와의 연결
 - 예술, 미술 분야의 문체부 산하 단체와 기관과의 연결
 - 방송국, 연예 제작사 등의 콘텐츠 제공기관의 연계
- 유형별 식별체계의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여 연동. ISBN, ISSN, DOI, ISRC, ISWC, ISAN, ISNI 등의 메타데이터를 통합된 형식으로 관리하고, 각각의 식별체계에 해당하는 정보를 연결하여 저장
- 국제창작자 식별체계인 ISNI를 활용하여 ISBN, ISSN, DOI 등의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결하는 공통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식별체계 간의 연결을 구축하여, 각 식별체계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
- 모든 식별체계에 대한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식별체계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국제 표준 기구 및 단체들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각 식별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여, 국제표준식별체계와 국제창작자 식별체계를 연결함으로써, 콘텐츠와 창작자 간의 관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음

□ UCI와 ICN의 연계와 통합을 위한 식별체제 분석

- UCI는 모든 저작물에 유일한 식별자를 부여하여 해당 저작물을 유일하게 구분하고 구별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ICN은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보 및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저작물 유통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적인 콘텐츠 유통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저작권관리에 집중되어 콘텐츠 자체를 식별하기 부족하며, 식별체계운영 구조상의 취약점 내포
- ICN은 저작권관리에 집중되어, 콘텐츠 자체를 식별하는 데는 부족하며, 변환시스템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UCI와 연계를 통해 효율적 관리 필요
- 국가표준번호인 UCI와 ICN의 연계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자료와 관련된 표준화된 식별정보 부여하여, 이를 국제표준번호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하여, 자료의 유일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 시스템과의 통합성을 높임
- UCI와 ICN의 활용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관리와 저작권 보호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가표준식별체계 관련 법 제도 개선 필요

2.1 납본의 우선순위 및 활용성

□ 납본과 이용의 상호보완 강화

- 납본(legal deposit)은 국가대표도서관에게 출판사나 저작자가 출판물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주로 저작권 보호, 문화유산 보존,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자료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함
- 이용(Utilization)은 국가대표도서관이 수집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 연구,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개인 및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 납본의 과정은 출판사나 저작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주로 메타데이터 입력과 정리 등을 포함하며, 메타데이터 관리자와 관련된 시스템에서 처리 됨
- 납본과 이용은 국가대표도서관의 주요 기능이며, 상호 보완하여 강화시키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납본의 우선순위 부여

- 특정 출판물이 국가의 문화, 역사, 학문 등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료인 경우, 해당 출판물의 납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즉, 국가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출판물은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음
- 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특정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출판물은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출판물의 납본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특정 주제나 분야에 대한 연구나 학문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출판물은 학술 및 연구 목적을 위해 우선순위 부여
- 출판물의 다양한 형태와 형식을 책, 저널, 웹사이트,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에서 납본 고려
- 국가의 지역적 특성이나 언어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이나 언어로 출판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납본할 수 있음
- 디지털화가 필요한 자료나 온라인 자료도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존을 위해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현재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중요한 주제나 이슈에 관련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납본할 수 있음
- 국가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특정 분야나 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납본할 수 있음
- 국가대표도서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납본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할 것임

□ 납본자료의 활용성

-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자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성을 갖고 있으며, 문화, 연구,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납본자료는 학문과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자료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학술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역사적인 문헌 자료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데 역할을 함
- 교육 및 학습에 활용되며, 문화 예술 창작 활동 등 창작활동에 영감을 주는데 기여함
- 정부나 정책 결정 기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자료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근거로 활용하여,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산업분야에서의 납본자료는 기술 개발, 경영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고, 특허 정보, 경쟁 동향, 시장 분석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과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음
- 공공정책 설명, 시민 교육,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다른 국가의 도서관이나 연구기관과의 국제 협력, 정보 공유, 문화 교류 등에 기여하여, 국제적 및 협력에 활용 가능
- 디지털화된 납본자료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 정보 공유와 활용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음.

2.2 납본 연계 방안 제시

-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가대표도서관은 이에 적극 대응하여 자료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납본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한국서지표준센터의 납본 역할 강화

- 한국서지표준센터는 서지정보의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출판물의 일관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생성된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고 보증하여,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ISBN, ISSN, ISNI 등의 표준번호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한국서지표준번호의 중요성과 장점을 홍보
- 표준화된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기관 및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메타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 도서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방법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킴
- 표준화된 번호를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다양한 표준번호를 기반으로 검색 및 연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생성하는 공개 데이터와 연계하여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정보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킴
- 국제적인 메타데이터 표준 및 표준번호 체계와 협력하여 국내 정보 생태계를 국제 표준과 일치시키고 국제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출판사 및 기관들이 생성하는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및 도구를 제공하여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함
- 한국서지표준센터는 위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품질 개선,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정보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ISBN과 UCI의 연계 납본

- ISBN은 도서에 부여되는 국제표준번호이며, UCI는 도서, 논문,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자임. ISBN과 UCI를 연계하여 납본을 수행하면, 기존의 ISBN 납본 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UCI의 장점도 활용할 수 있음
- 연계 납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SBN과 UCI의 연계 규정을 마련해야 함. 여기에는

ISBN과 UCI의 상호 변환 방법, 연계 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연계 납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및 저작권자에게 연계 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함.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출판사 및 저작권자들이 연계하여 납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연계 납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납본 시스템은 ISBN과 UCI를 연계하여 납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함
- 연계 납본을 수행하게 되면, 납본자료의 확보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납본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여, 납본 업무의 비용을 절감하고, 납본 업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ISBN과 UC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됨
- ISBN과 UCI의 연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표준체계의 기술적 특성, 국내 외 표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납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및 저작권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연계 납본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함
- 또한, 납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 및 저작권자, 관련 기관 등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 ISBN과 UCI의 병행 납본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출판사 및 저작권자의 협조를 구하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연계

-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을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납본을 관리 및 통제할 수 있음
- 매체간의 배타적인 국제표준번호와 ISNI와의 연계
- 출판사 및 콘텐츠 제작자에게 ISBN, ISSN, ISNI 등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활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납본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표준번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유도함
- 납본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입력 폼에 ISBN, ISSN, ISNI 등의 표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추가하여, 자료 납본 시 표준번호를 함께 기입하도록 유도함
- ISBN, ISSN, ISNI 등의 표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번호의 정보를 검증하고 연계하는 표준번호 검증 및 매칭 시스템 개발하여, 올바른 표준번호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연결함
- ISBN, ISSN, ISNI 등의 표준번호를 기반으로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해당 표준번호로 관련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함께 노출하여 연관성

을 강화함

- ISBN, ISBN, ISSN, ISNI 등의 표준번호를 기반으로 납본시스템 내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하고 매핑하여, 표준번호를 중심으로 콘텐츠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 자료의 식별성을 강조함
- 표준번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을 구축하여, 표준번호 기반으로 연계된 자료의 정보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의 자체 시스템에서 ISBN, ISSN, ISNI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출판사들이 표준번호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은 표준번호와 납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자료의 식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연계

-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공통된 식별자로 매칭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공통 필드를 정의 필요. 예를 들어 특정 콘텐츠의 ISBN과 UCI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필드를 메타데이터에 추가함
-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련 정보를 매핑하는 규칙 정의. 이를 통해 ISBN과 UCI 간의 관계를 확립하고, 콘텐츠의 식별 및 검색에 활용할 수 있음
- 국제표준번호와 UCI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여, ISBN과 UCI를 연결하고 검색 및 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표준번호와 UCI 간의 연계를 위한 API를 개발하여, 출판사나 콘텐츠 제공자는 해당 API를 통해 ISBN을 UCI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UCI를 ISBN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함
- ISBN과 UCI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할 때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함. 예를 들어, JSON, XML 등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교환하고 처리할 수 있음
- 국제표준번호와 UCI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통합함. 제목, 저자, 출판사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두 식별체계 간의 관계를 확립함
- 연계된 국제표준번호와 UCI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검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됨
-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여 신규 콘텐츠나 변경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수행함
- 이와 같이 국제표준번호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의 메타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콘텐츠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 납본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납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³⁵⁾
- 연속간행물 출판사들은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은 의무라고 생각할수록, 납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ISSN 발급 대비 납본율이 높았음.
-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및 협력 강화
- 온라인 자료 납본률 제고를 위한 납본 홍보 강화. 온라인 납본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본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자료는 보관과 접근성에서 효율적이기에, 디지털 자료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출판사들도 더 쉽게 납본할 수 있을 것임
- 납본가이드 및 정책 문서를 제공하여 납본 과정과 요구사항을 명확한 안내 및 정보 제공, 출판사 대상 납본에 관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을 주최하여 출판과 관련된 최신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출판사들 간의 지식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출판사가 납본 자료의 저작권과 라이선싱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저작권 정보나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출판사들이 법적 문제 없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인 납본을 위해 출판사 및 저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은 출판사들이 납본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자료를 보다 넓은 범위로 확보할 수 있음

□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

- 국가대표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나 인센티브를 개인 저작자나 출판사에 지급할 수 있음. 이는 자료의 저작자 및 출판사의 노력과 창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국가대표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를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열람 및 이용을 제공하는 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납본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35)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 납본된 자료의 저작자나 출판사의 이름을 특별히 표기하여 저작자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납본자의 저작물의 홍보 활동을 통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물의 노출도를 높이고 저작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작가나 저작자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저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술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 납본자들과 협력하여 특별한 출판물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국가대표도서관의 특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납본자들의 동기 부여와 협력을 유도하면서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의 보상을 통해 양질의 자료가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율을 높을 수 있을 것임

□ UCI와 ICN의 연계 통합

-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와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의 연계 방안은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성과 저작권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UCI와 ICN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통합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저작권 정보를 일관되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관리하여, 두 체계 간의 연계와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UCI와 ICN을 공통 식별자로 연결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될 때 UCI와 ICN을 함께 부여하고, 이를 활용하여 콘텐츠와 저작권 정보를 연결함
- UCI와 ICN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여 각 콘텐츠의 UCI와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ICN)를 관리하고 연계하여, 디지털 콘텐츠와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시스템을 개발
- UCI와 ICN 간의 연계를 위한 API 및 웹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UCI와 ICN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UCI와 ICN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의하고 관리하여 두 체계 간의 연계를 원활하게 함
- UCI와 ICN을 활용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을 강화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허가, 저작권료 정산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과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나 불법 복제 등을 예방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음
- UCI와 ICN의 연계를 위해 국내·외에서 활용되는 관련 표준 및 규약을 고려하여 협력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연계 방안을 구축함

- UCI와 ICN의 연계는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성과 저작권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보안, 이용성, 저작권 관리 등을 개선할 수 있음

□ 납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 자동 분류 시스템이나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의 납본 창구 일반화로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시간 단축
- 출판사들이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자료의 제출 및 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납본 제출된 자료에서 메타데이터(제목, 저자, 출판사 등)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OCR(광학식 문자 인식) 기술이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 및 저작자가 제출하는 메타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표준화하여,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고, 표준 규칙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함
- 납본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확장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확장하여 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음
- 납본 제출된 자료의 형식, 품질, 저작권 등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불완전한 자료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함
- 출판사 자체 시스템에서도 쉽게 자료를 납본시스템에 연동하여 제출하도록 API 및 통합 기능을 제공하여, 출판사들이 편리하게 납본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납본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 정보나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출판사들의 납본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함
- 온라인 납본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납본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접근 제어, 암호화, 보안 프로토콜 등을 사용하여 자료의 안전성과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음
- 출판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UX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들이 납본시스템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자료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관리, 처리가 가능해지며 출판사들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

제 VI장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1. 도서관법
2. 관련 법령 개정 방향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1

도서관법

현행	개정안
<p>제1조 목적 규정에서 도서관법의 입법 목적으로 도서관의 적극적 역할과 수범자의 지식문화유산 향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함</p> <p>제1조(목적) 이 법은 <u>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의 자료 축적 및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을 거점으로 개방적이고 풍부한 지식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지식문화유산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를 향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국가 및 사회의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기본이념 규정의 법문을 간결명료하게 나누고, 도서관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법철학)을 보완함</p> <p>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u>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u></p> <p><신설></p>	<p>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의 노력으로 도서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u></p> <p>1.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 정의 규정에서 온라인 자료 관련 표현들을 보완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본시설이 되어야 한다.

2. 도서관은 사회 각 영역과 지역 전반에 걸쳐 균형있고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3.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특성과 지적 욕구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상태로 필요충분하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 개방성, 민주성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5. 도서관은 사회 구성원이 생성하는 가치있고 창의적인 지식정보를 신속하고 풍부하게 축적하거나 활발히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실물자료 및 온라인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도서관서비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 제3항에 디지털 도서관 구축 근거를 추가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것임을 강조함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가 되어야 할 실물자료 및 온라인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으로 정한 기관에 해당 실물자료의 일정 부수 또는 온라인 자료를 물리적으로 고정하거나 담은 저장본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이용자의 특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신 설>

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운영 주체는 국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도서관법 제10조제2항에 다른 법률에 도서관자료의 수집 등과 보상에 관하여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과 조화되도록 규정할 것을 당부하는 취지를 추가함.(도서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아님)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도서관자료 수집 정책 강화를 위하여 제 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 소관 업무 사항을 추가함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구에받지 아니하고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 설립목적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반의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서관과의 물리적 거리와 교통 여건 등 접근·이용 등의 불편 해소
2. 도서관의 이용 가능한 시간이나 출입 가능한 공간 등의 제약 해소
3. 각종 공휴일이나 사서의 부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휴관 등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 방지
4. 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 부수·저장본 등의 한정 등에 따른 이용 불편 해소
5. 그 밖에 화재 등 사고, 기술적 장애 등 도서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해소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서관자료의 수집·보존·이용에 관한 사항과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도서관자료 수집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필수포함
사항을 추가함(시행령 상의 내용○ 리
부 법률로의 상향화 포함)**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 설>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도서관 이용 실태 및 운영성과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 불편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 및 교환·이관·폐기 등의 기준과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따른 보상 및 이용료 정산 정책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기반 도서관의 구축과 고도화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이용·운영 등의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 확대와 보상·이용료정산 등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서비스 확대 및 이용 불편 해소와 사회적 역할 다각화에 관한
사항

<신 설>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도서관자료 수집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제20조 국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 사항을 보완함

아울러 제6항을 신설하여 도서관자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체 참여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명시함

제20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

다. 도서관의 설치 확대와 도서관 내외부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현행 나목과 같음)

마. 도서관 상호간 및 도서관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각종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바. 디지털 기반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현행 라목과 같음)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자료수집 등의 기능을 하는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4호와 같음)

1안)

③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납본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2안)

③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납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수집·납본과 관련된 계획보다 우선한다.

제20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 디지털 기반 도서관 구축 및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

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신 설>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따른 보상 및 이용료 정산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1안)

⑥ 국립중앙도서관은 제5항에 따른 국회도서관과의 협력 이외에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보존·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이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5.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른 국립한

국문학관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
재단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수집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자료의 일부를 다른 법률
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2안)

⑥ 국립중앙도서관은 제5항에 따른 국회
도서관과의 협력 이외에 국내외 도서관
자료의 수집·보존·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기관 등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중앙
도서관의 장이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
라 설립되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
능정보사회진흥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
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
른 한국콘텐츠진흥원

5.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
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 「문학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한국문
학번역원 및 제18조에 따른 국립한국
문학관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
재단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집되어야 할 자료(도서관자료가 되어야 할 자료)’와, ‘도서관자료’를 구분하여 표현함

판매용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함

납본을 위해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도록 함

납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납본행정 서비스를 규정함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1. 「과학기술기초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13.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수집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자료의 일부를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는 기관 및 도서관자료와 관련된 식별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문화·예술 분야를 진흥할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작가·실연자 등의 저작권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법인·단체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어야 할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안)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납본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로 납본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자료가 판매용이 아닌 경우에도 그 도서관자료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본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우편요금 또는 교통비 등을 말한다)도 함께 보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지원하여야 한다.

2안)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고, 판매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 평가가치,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납본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우편요금·교통비 등을 말한다)도 함께 보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납본하여야 할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나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 도서관 또는 대행기관(도서관자료의 취급 및 납본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력 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의뢰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으로 하여

<신 설>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본의무 대상이 아닌 온라인 자료 제공 협조자나 온라인 자료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권리 안내 제도를 새로 이 규정함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금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납본
방문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제21조제1항에 따라 납본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자료^{가 아닌 것을 말한다}를 제외한다)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1안)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또는 온라인 자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부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안)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등의 귀속·권리자 명의 등을 파악하고, 권리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온라인 자료의 도서관에서의 제공 방식,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관리기준·이용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안)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자료를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등의 귀속·권리자 명의 등을 파악하고, 권리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온라인 자료의 도서관에서의 제공 방식

2. 디지털 기반 도서관 등을 통하여 널리 제공될 수 있다는 위협의 가능성 및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예방적 관리기준

3. 도서관 이용실적 파악 방법 및 이용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을 통한 저작권 등의 피해 발생에 대한 사후조치기준

5.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권리와 일정한 조건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조건 설정 기준

6. 그 밖에 저작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2안, 3안 제3항 신설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아래 항 번호는 각각 수정되어야 함)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수집 절차, 보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자료의 제공자 내지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이용료 수익을 도서관자료 제공자 또는 권리자에게 주기적으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를 새로 규정함. 새로 신설되는 보상금 지급 규정은 기존 저작권법 상의 보상 규정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상호 연계되도록 표현하여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함

<신 설>

령령으로 정한다.

1안

제48조의2(보상금의 지급) ① 공공도서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기적으로 정산하여 도서관자료의 제공자 또는 저작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말한다)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정산·지급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5조의4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도서관자료의 제공자 또는 저작권 등의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보상금 정산·지급 기준의 제공

2. 보상금 정산·지급 등의 대행

3. 보상금 정산·지급 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료 부담을 낮추는 등 도서관자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정산하여 이를 지급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도서관자료의 제공자 또는 저작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의 감면·면제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정산·지급 업무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면·면제 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안

제48조의2(사용료의 지급) ①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제공자 또는 저작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게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저작권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35조의4에 따른 보상금을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정산·지급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5조의4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도서관자료의 제공자 또는 저작권 등의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게 하고 사용료 지급에 관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용료 정산·지급 기준의 제공

2. 사용료 정산·지급 등의 대행

3. 사용료 정산·지급 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이용료 부담을 낮추는 등 도서관자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여 이를 지급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도서관자료의 제공자 또는 저작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감면·면제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지급 업무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면제 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p>만화진흥에 관한 법률</p> <p>제13조의3제3항을 신설하여 만화의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p> <p>제13조의3(만화의 보존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보존·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영상진흥기본법</p> <p>제15조를 개정하여 영상자료가 도서관에서 활발히 이용되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함</p> <p>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3(만화의 보존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보존·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만화의 원활한 수집·보존·전시를 위하여 관련된 업무를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1안)</p> <p>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저작권 등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등을 통하여 누구든지 최대한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2안)</p> <p>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①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p>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7항을 신설하여 영상자료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한국영상자료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이 협력하도록 당부함 아울러, 제38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 도서관을 통해 영상자료가 적극 향유되도록 하는 취지를 강조함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 ②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 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영상자료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저작권 등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도서관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 ②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 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영상자료

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 등을 강화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신 설>

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에 관하여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보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자료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애니메이션과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애니메이션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자료의 원활한 수집·보존·전시를 위하여 관련된 업무를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여 도서관을 통한 음반등의 제공 활성화하는 취지를 추가함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음반등의 선정·수집·보존 및 도서관 등을 통한 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에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서관법」 제14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호를 신설하여 방송광고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취지를 추가함.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

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 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신 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하여금 납본 업무 등을 적극 조력하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함(납본 의무자의 납본편의성을 제고함)

<신 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출판 및 간행물의 수집 등을 당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를 명시함(도서관법만으로도 수집은 가능하나,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의 관계에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신 설>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보존가치가 있는 방송광고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활용하게 하는 업무

제7조의2(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지원)

-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의 수집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활동을 적극 보조하여야 한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도서관자료가 되어야 할 자료를 납본하려는 자 또는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납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은 신속히 해당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출판 및 간행물 자료의 수집·보존)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 및 간행물 자료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출판 및 간행물 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신 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판 및 간행물의 원활한 수집·보존·전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업무를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안)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10.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 및 간행물 자료 수집·보존·전시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안)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 자
료 수집 기능 등을 강조하고, 국립중
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둬.

<신 설>

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출판 및 간행물 자료의 수집
· 보존· 전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
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제8조의2(정기간행물 자료의 수집·보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자료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정기간행
물 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원활한 수집·보존·전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업무를 「도서관법」
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수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연동하여 개정되는 시행령 개정 부분은 분량관계상 생략함
(보고서 전체본에는 기재되어 있음)

제 VI장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1.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 도출 프로세스
2.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 개선방안
3. 단계별 발전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VII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1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 도출 프로세스

1.1 정책 도출 프로세스

□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 도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함

- 1단계 :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
- 2단계 : 국내외 온라인 자료 현황조사
- 3단계 : 대국민 서비스 방안 및 단계별 도입 전략 제시
- 4단계 :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 최종 확정

〈표 VII-1〉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과정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		
1단계	구분	내용
문헌조사 및 분석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납본 관련 문헌 조사 온라인 자료 수집 개선 방안 관련 문헌 조사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연구 조사
▼		
국내외 온라인 자료 현황 조사		
2단계	구분	내용
국내외 온라인 자료 현황조사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기증·자체수집 현황 및 추이 분석 온라인 자료 유형별 출판 및 발행 정보 통계 조사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대상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서비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 해외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수집 방향 및 활용 방안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유형 및 현황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유형별 기술적 특성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 및 관리 사례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서비스 방안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및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도서번호 외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 실태조사 우선순위, 활용성 등 심층분석을 통한 납본 연계 방안 제시 도서관법, 저작권법, 만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디지털콘텐츠 납본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 제시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3단계	구분	내용
자문 및 공청회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출판계, 문헌정보학계, 도서관계 방법: 오프라인
	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 방법: 오프라인 세미나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4단계	구분	내용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국내외 도서관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현황 분석 기반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개발정책 개선 방안 제시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향에 따른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개선 방안 제시
	대국민 서비스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기본 원칙, 정의, 수집 범위 및 대상 등 제시 및 수집 세부지침(안) 마련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제시 기본 원칙, 정의, 범위, 대상 제시 수집 세부지침(안) 마련
	단계별 도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중요도, 시급성 등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운영 시기를 반영한 이행 로드맵 수립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실천 로드맵은 앞서 제시된 전략을 기반으로 1단계(기반조성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제시



최종 제안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최종 확정
--------------	---------------------------

1.2 온라인 자료에 대한 사전적 및 법적 정의

□ 자료와 온라인의 사전적 의미

- 자료
 - 특정한 업무와의 관련성이나 적절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
- 온라인
 - ① 컴퓨터 시스템 주변 장치들이 중앙 처리 장치와 직접 연결되어 그것의 통제하에 있는 상태. ②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언제든지 이용 가능함 등의 의미. ③ 단말기가 통신 회선을 통해 주 컴퓨터에 연결되어 동작 중인 상태. ④ 데이터가 발생하는 여러 지점에 단말기나 소형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의 대형 컴퓨터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데이터가 발생하면 곧바로 중앙 컴퓨터에 입력되어 처리되도록 하는 시스템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 자료

- 온라인 자료 (Online Material)
 -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
 - 웹사이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온라인 저널, 동영상 등을 포함함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접근할 수 있음
 - (종합) 온라인 자료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자료의 하위 집합
- 디지털 자료 (Digital Material)
 - 사전적 의미: 정보·통신 연속적인 아날로그 데이터와 대조되는 것으로, 숫자 또는 구간 형태의 데이터
 - 디지털 자료는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지털화된 정보와 데이터를 의미
 - 이는 온라인 환경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음
 - 디지털 형식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서 열람, 편집, 공유 등이 가능

- (종합) 디지털 자료는 온라인 환경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자료

- 두 자료의 차이

-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의 한 형태이고 디지털 자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디지털 형식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말함

□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 고시)

-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 2022-2호)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행태에 대하여 지정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1.3 본 연구에서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

□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근거

- 본 연구에서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자료의 정의와 종류를 기반으로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웹사이트 및 대한민국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외 웹사이트

2. 웹자료

-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학술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디지털만화, 웹툰, 웹소설 등
-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 3) 영상자료: 방송프로그램³⁶⁾,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실감콘텐츠, 방송광고 등
-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서예 등

3. 소셜 미디어(사회 관계망 서비스)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등 국내외 표준기구 및 표준체계에 따라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36)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으로 개정함

방송법 제2조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정의

- 「도서관법」 제3조제6호 :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 온라인 자료의 종류

1. 국내 웹사이트 및 대한민국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외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학술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디지털만화, 웹툰, 웹소설 등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3) 영상자료: 방송프로그램³⁷⁾,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실감콘텐츠, 방송광고 등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서예 등

3. 소셜 미디어(사회 관계망 서비스)

□ 온라인 자료의 형태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기구 및 표준체계에 따라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37)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으로 개정함

방송법 제2조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사명

- 혁신적인 온라인자료 장서개발정책으로 더 높은 차원의 지식 공유와 글로벌 지식 문화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지식 환경을 창조하는 미래 지식 생태계의 선두주자

비전

혁신적 온라인 자료 개발로 글로벌 지식 문화 선도

목표

한국 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평등한 접근성
보장을 통한
지식의 민주화

혁신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생 생태계

핵심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	납본수집	수증수집 및 자체수집	신매체 자료 수집 확대와 활용	데이터 관리와 활용
지식 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다양화 정책수립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전략적 파악정책 및 수집방법론 다양화 ✓수집 온라인 자료의 보상체계 수립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관련 지침 정비 ✓온라인 자료 납본 프로세스 개선 ✓온라인 자료 납본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증 수집 및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매체 자료 수집 유형 확대 ✓신매체 자료 수집 기반 마련신매체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관리 전략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계 강화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열람서비스 확대 ✓온라인 자료 활용 촉진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온라인 자료 납본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미래형 인프라	위원회 운영	제도정비	시스템 구축	조직과 인력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위원회 기능 및 역할개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분과) 운영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온라인 자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자료보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과 도서관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본시스템 고도화 추진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스템 ✓표준 보존기술 적용과 보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온라인 자료 확대에 따른 적정 전문인력 배치 ✓온라인 자료 수집 가버넌스 	
공생의 협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적 수집 및 이용을 위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본·수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주요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출판 및 유통 기관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자료 보존 국제기구 IIPC와의 지속적 협력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디지털 유산 수집 	
재창조를 위한 보존	장기 보존정책			보존환경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 ✓온라인 자료 수집과 장기보존 프로세스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 관리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 조직 구성 	

2.1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의 비전과 목표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의 정책개발시 고려 사항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민에게 높은 품질의 온라인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함
- **디지털 자원 확대:** 온라인 자료로서 디지털화된 서적, 학술 논문, 역사 자료 등을 적극 확보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임
- **온라인 서비스 향상:** 온라인 도서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독자들이 쉽게 자료를 찾고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
- **디지털 저작권 관리:** 온라인 자료들의 저작권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서관과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학술적인 정보 제공:** 학술 분야의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온라인 자료로서 제공하여,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지식의 발전에 기여함
-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 책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가진 독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
- **정보 접근성 강화:**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독자들끼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료 공유, 의견 교환 등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독자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
-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자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최신 트렌드에 부응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의 사명

- **사명 설정의 배경:** 1)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2) 이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물리적인 도서 자료뿐만 아니라 3) 디지털 자료와 온라인 자원들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4) 혁신적인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을 미래 지향적으로 수립해야 함

- **사명 1: 혁신적인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으로 더 높은 차원의 지식 공유와 글로벌**

지식 문화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

- 사명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지식 환경을 창조하는 미래 지식 생태계의 선두주자

□ 비전

- 비전 설정의 배경: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1) 미래를 위한 지식의 보고로서, 2)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며 3)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온라인 자료 수집을 통해 4) 국민들에게 지식과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5) 지식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비전: 지속가능한 온라인 자료 개발로 세계 지식 문화 선도 [1순위]
- 비전: 혁신적 온라인 자료 개발로 세계 지식 문화 선도
- 비전: 차세대 온라인 자료 개발로 세계 지식 문화 선도

□ 목표

- 목표 설정의 배경: 1)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현대적이고 다양한 온라인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2)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목표 1: 한국 온라인 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 목표 2: 평등한 접근성 보장을 통한 지식의 민주화
- 목표 3: 혁신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생 생태계

2.2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 **핵심전략:** 핵심전략으로 5가지를 제안하며, 각 전략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 국내외의 다양한 지식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고, 디지털화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 지식 문화유산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보존하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지식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폭넓은 지식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 **미래형 인프라**

- 디지털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지식 환경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통해 미래에도 지식서비스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 **공생의 협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문화 유산 보존과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 국내외 도서관, 기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식공유와 지식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 **재창조를 위한 보존**

- 문화적 가치와 지식의 지속적 재창조를 위해 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기
- 새로운 기술과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지식의 재현과 창조를 지원하기

□ 핵심전략별 온라인 자료 장서관발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

〈표 VII-2〉 온라인 자료 장서관발 정책과제

전략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1. 지식문화 유산의 포괄적 수집	1-1 온라인 자료 장서관발 정책	1-1-1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다양화 정책수립
		1-1-2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전략적 파악정책 및 수집방법론의 다양화
		1-1-3 수집 온라인 자료의 보상체계 수립
		1-1-4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1-2 납본수집	1-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관련 지침 정비
		1-2-2 온라인 자료 납본 프로세스 개선
		1-2-3 온라인 자료 납본 예산 확보
	1-3 수증수집 및 자체수집	1-3-1 수증 수집 및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1-3-2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1-4 신매체 자료 수집 확대와 활용	1-4-1 신매체 자료 수집 유형 확대
		1-4-2 신매체 자료 수집 기반 마련
		1-4-3 신매체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1-5 데이터 관리와 활용	1-5-1 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관리 전략
		1-5-2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
		1-5-3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계 강화
2.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서비스	2-1 대국민 서비스	2-1-1 온라인 자료 열람서비스 확대
		2-1-2 온라인 자료 활용 촉진
		2-1-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2-2 홍보강화	2-2-1 온라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2-2-2 온라인 자료 납본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3. 미래형	3-1 위원회	3-1-1 관련 위원회 기능 및 역할개선

인프라	운영	3-1-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자료분과) 운영
		3-1-3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
	3-2 제도정비	3-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3-2-2 온라인 자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3-2-3 자료보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3-2-4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과 도서관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3-3 시스템 구축	3-3-1 납본시스템 고도화 추진
		3-3-2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스템
		3-3-3 표준 보존기술 적용과 보존시스템 구축
	3-4 조직과 인력의 확대	3-4-1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3-4-2 온라인 자료 확대에 따른 적정 전문인력 배치
		3-4-3 온라인 자료 수집 가버넌스
4.공생의 협력	4-1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1-1 납본수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1-2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주요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
		4-1-3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4-1-4 출판 및 유통 기관과의 협력
	4-2 국내외적 수집 및 이용을 위한 협력	4-2-1 인터넷 자료 보존 국제기구 IIPC와의 지속적 협력
		4-2-2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디지털 유산 수집
5.재창조를 위한 보존	5-1 장기 보존정책	5-1-1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
		5-1-2 온라인 자료 수집과 장기보존 프로세스의 연계
	5-2 보존환경 및 관리	5-2-1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 관리
		5-2-2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 조직 구성

2.3 핵심과제별 세부추진과제

1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전략 1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핵심과제 1-1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
세부 과제	1-1-1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다양화 정책수립 1-1-2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전략적 파악정책 및 수집방법론의 다양화 1-1-3 수집 온라인 자료의 보상체계 수립 1-1-4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세부과제 1-1-1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다양화 정책수립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파악 및 수집 필요 •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 유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환경 변화에 따라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 변동성이 큰 온라인 환경과 신매체-플랫폼 자료가 증가하고 있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함 - 웹자료의 유형의 경우 1인 출판사를 통한 제작 및 유통, 멀티미디어 삽입(동영상, 음악 등), 쌍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유통 및 서비스하는 플랫폼 또한 다양하게 존재함. 이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자료 유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실행계획

1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의 수립

□ 수립 방향

- 온라인 출판물 형식과 납본 정책의 명확화
- 디지털콘텐츠 형식의 온라인 자료는 웹자원으로 수집하여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구축
- 메타데이터를 통한 수집: 데이터를 통해 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석 가능
- ISNI 등과의 연계성을 통한 수집
- 온라인 자료에 대한 엠바고제도 반영(2차 저작물의 유통을 고려하여 5년 이상의 기간)

□ 수립방안

- 온라인 자료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과 범위 정의, 다양한 자료 출

처 확보, 자료 품질 검증과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음

〈표 VII-3〉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과 정책의 수립

구분	내용
목표 설정과 범위 정의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떤 종류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다양한 자료 출처 확보	다양한 온라인 자료 출처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
자료 품질 검증과 관리	수집한 온라인 자료의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체계 구축
자료 저작권 및 사용 권한 관리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과 사용 권한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함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수집한 자료의 보안을 위한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사용이나 유출을 방지함
협업과 데이터 공유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기술 도입과 자동화	웹 크롤링, 데이터 마이닝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체계를 구축함
성과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	수집한 자료의 활용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하여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추구함
정보 시스템 강화	온라인 자료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과 DB를 구축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검색을 지원함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	온라인 자료 수집과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함

②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대상의 확보 방안 마련

- **협력 및 제휴 강화:** 다양한 출판사, 온라인 플랫폼, 전문 기관과 협력하고 제휴를 체결하여 온라인 자료를 확보
- **정기적인 라이선스 협상:** 온라인 자료 제공 업체와의 정기적인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정식으로 확보하고 사용 권한을 확장
- **자체 제작 및 편집:** 국립중앙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자료를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수집 대상을 확보. 전문적인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유 및 활용
- **국내외 출판사와의 협력:** 국내외 출판사와 협력하여 온라인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매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
- **정부 및 기관 자료 제공:** 정부기관, 연구 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온라인 자료를 제공받아 확보하고 활용
- **클라우드소싱 및 개인 참여:**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자료를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개인의 자발적인 자료 기여를 유도하여 자료를 수집

- **학술 커뮤니티와 협력:** 학술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온라인 자료를 확보하고 공유
-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 디지털 아카이브를 개발하여 과거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료를 확보
- **수집 정책 수립:**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수집 정책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자료를 확보
- **자원 확보 및 예산 증액:**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확보하여 온라인 자료 확보에 필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

③ 국내 납본 수집 대상 자료의 발행·제작 현황 파악 기반 조성

- **자료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의 발행·제작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 및 갱신:** 발행·제작 현황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이를 위해 국내 출판사, 학회, 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자료 현황을 수시로 수집하고 갱신
- **세분화된 자료 유형 및 분야 분석:** 자료 유형(도서, 학술지, 보고서 등)과 분야(인문, 과학, 예술 등)를 세분화하여 발행·제작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유형의 자료가 활발히 발간되고 있는지 파악
- **전자출판물 현황 조사:** 국내 전자출판물의 발행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
- **국제적 트렌드와 비교 분석:** 국내 발행·제작 현황을 국제적 트렌드와 비교하여 국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전략을 수립
- **수집 우선순위 설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집 우선순위를 설정.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납본 수집 대상으로 선정
- **협력과 협약 강화:** 국내 출판사, 학회, 기관 등과 협력 협약을 강화하여 자료의 파악과 수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투명한 기준 공개:** 납본 수집 대상 자료의 발행·제작 현황 파악 기반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을 수렴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정:** 현황 파악 정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방법이나 분석 방식을 수정하고 개선

④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 유형의 명확화

□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을 최대로 반영의 중요성

-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연이어 신매체가 등장하고 활용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온라인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을 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수집 지침이 필요함

□ 고시에 포함된 자료를 포함한 고려 대상 매체

- 전자저널 및 학술 논문, 전자책, 웹사이트, 웹툰 및 웹소설, 블로그 및 포럼, 온라인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소셜 미디어 콘텐츠, 온라인 뉴스 및 매체, 온라인 강의 및 교육 자료

⑤ 다양한 신매체 수집의 확대

- **신매체 정의와 범위의 명확화:**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떤 매체를 "신매체"로 간주하고 이를 수집 대상으로 고려할지 명확히 정의하고 범위를 확정. 이는 온라인 매체, 소셜 미디어 콘텐츠, 가상현실 (VR) 콘텐츠, AR (증강현실) 경험 등을 포함
- **전문인력의 양성:** 신매체의 특성과 수집 방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키우는 데 투자
- **협력과 제휴 강화:** 국내외의 신매체 제공자 및 플랫폼과 협력하고 제휴를 강화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
- **수집 기술의 현대화:** 신매체 수집을 위한 현대적인 수집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 크롤링 기술, 데이터 마이닝,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도구 등을 활용
- **저작권과 윤리 문제의 고려:** 신매체 수집은 저작권 및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저작권자와 협력하여 합법적인 수집을 실시
- **이용자 교육:** 신매체의 활용법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강화. 이를 통해 이용자가 신매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집 대상 선정과 우선순위 설정:** 어떤 신매체가 수집 대상이 되며,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는지 결정
- **품질 관리:** 수집된 신매체는 품질이 보장되어야 함.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
-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 신매체 수집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신매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선 수행

⑥ 저작권 및 데이터 보호 법 등 법적 및 윤리적 고려 사항을 준수

- **저작권 및 라이선스 확인:** 이용이 허용되는지,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등 신매체 수집 전에 저작권 및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
-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데이터 수집은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
- **데이터 익명화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고, 수집된 데이터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거나 익명화하는 절차를 시행함
- **윤리적 고려:** 데이터가 민감한 주제에 관련되어 있거나,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
- **이용자 동의와 투명성:** 이용자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명확하게 동의 절차를 안내하고, 데이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
- **데이터 보안:** 수집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함.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액세스 권한을 관리
- **법률 전문가와 협력:** 법적 및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책 및 절차를 개선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함
- **robots.txt 준수:** 웹사이트 소유자의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를 존중하기 위해 robots.txt 파일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
- **저작권 및 IPR 준수:** 웹에서 저작물을 수집할 때,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IPR)을 존중. 저작물을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음
-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수집된 데이터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익명화하거나 보호
- **허가 및 게시 중단 절차:** 웹 아카이브에서 사용된 웹 사이트에 대한 권리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웹 사이트 게시를 중단하고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 수립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60					60

세부과제 1-1-2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전략적 파악정책 및 수집방법론의 다양화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전자책 출판시장이 커지면서 전자책이 대량 출판되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이 출판되는지 파악할 통계자료가 없음 • 납본을 위해 ISBN 발급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하지만 미리보기, 체험판, 연재 중인 자료 등 납본 제외 대상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출판이나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료도 많아서 정확한 수집 기준을 잡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믿을 만한 전자책 출판 통계를 근거로 온라인 자료의 수집대상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 마련 필요 •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환경에 맞게 이용자는 본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정보를 도서관을 통해 서비스 받고자 함. 이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매체를 선제적으로 수집이 필요함

■ 실행계획

① 국내의 온라인 자료 출판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 이를 기반 수집 대상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ISBN 등 식별체계 발행현황과 출판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출판 및 유통 정보 정보 수집
- 플랫폼사의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련 메타데이터를 확보 정책(자동적인 데이터 취합 방식 필요)

② 체계적인 통계자료 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수집전략 수립

- 플랫폼과 대형 출판사의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연간 입수 대상 자료의 예측과정, 자료 선별 및 평가에 활용
-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계획 수립 가능

〈표 Ⅶ-4〉 온라인 자료 통계 수집 단계적 전략(이지연 외, 2022)

단계	수집 범위 및 내용
1단계	ISBN 통계 데이터 기초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BN 입력 단계에서 고시된 온라인 자료의 구분을 필수 입력필드로 구성(국가서지과) • 웹툰, 웹소설의 경우 전자책/연재형 구분, 장르, 이용등급, 서비스 플랫폼 등 추가 정보 입력 필드를 추가 • ISBN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필드를 통해 기초 데이터 파악
2단계	ISBN 통계 데이터 보완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사, 출판사에 과거 소급된 데이터를 요청해서 출판 데이터 보완

	선정 기초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사, 협조를 통해 수상 이력, 공모전참여 작품,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가정보 수집 ISBN 기반 수집대상 자료를 통계를 통해 연간 수집대상과 선별대상 확정(연차별 장기 계획 가능)
3단계	ISBN 통계 데이터 분석 및 자동수집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에 기반한 분석 정보제공(전자책, 콘텐츠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 통합유통전산망 전자책 수집단계에서 필수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제시 웹툰, 웹소설, 웹자원 수집계획안 수립 및 자동수집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

③ 국립중앙도서관이 월별 및 연도별 출판 통계 발표

- 표준화 내지 대표적인 통계로 활용하기 위한 도서 발행 통계 집계기관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월별, 연도 별 출판 통계를 발표하는 방안 모색

④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매체의 주기적 파악

- 국제표준식별체계, 국내 표준식별체계 등을 부여 받은 자료 및 받지 않은 웹자료(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를 1년 단위로 파악하여 온라인 자료 유형별 및 발행정보 제공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작품현황을 1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신고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양한 매체의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한,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등의 콘텐츠의 범위를 제공(1편 또는 1책)할 수 있도록 공식화 및 형식화된 규칙을 제공하고 통계 사이트를 제공하여 쉽게 현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⑤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지속적이고 능동적 수집

- 국립중앙도서관은 방송, 강의, 인터뷰 등 보존가치가 있는 다양한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디지털 장서로 활용하여야 함
-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디지털 장서를 다양하게 수집·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
- ISSN 미부여 학회지, 대학부설연구소 OA자료 등 보존가치가 높은 학술지 원문 및 서지정보 수집 등 공개된 웹자료 및 회색 문헌 등의 수집을 강화하여 디지털 장서에 활용할 수 있음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60					60

세부과제 1-1-3	수집 온라인 자료의 보상체계 수립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의 납본 경험이 있는 출판사는 전자책 납본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납본의 경험이 없는 소규모 출판사나 출판업계와 다른 분야에서 제작하는 웹툰, 웹소설의 납본을 설득하는 것은 전자책 납본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체계나 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이지연 외, 2022)³⁸⁾

■ 실행계획

① 출판업계 및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위한 보상체계

-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업계 및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납본에 의한 수집의 정당성을 근거로 수립하고 제도화의 기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② 온라인 자료의 수집 보상 원칙 수립

- 개인판매용(B2C) 전자책이 아닌 경우 보존 목적일 경우에만 수집하면 보상하지 않음
- 현재 플랫폼에서 유통 및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의 열람은 5년의 엠바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 온라인 자료 수집 보상 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의 규정에 따름. 단, 유형별 특징에 따라 세부적인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ISBN이 발급된 납본대상 전자책 자료는 납본 당사자인 출판사가 온라인 자료 보존과 제한적 열람³⁹⁾ 원칙에 의한 디지털 파일 1부의 제출을 기준으로 정가 보상함
- 제한적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비공개 자료는 보상하지 않음

38) 이지연, 백원근, 이연희 (202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보상체계 수립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39) 제한적 열람: 납본 뷰어를 통한 동시 이용자 수 조건과 직접 방문 이용원칙과 조건을 말한다.

- 수집자료 중 예외적으로 특별한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가 자료의 경우와 같이 관련 전문가의 참여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 범위를 결정함
- 온라인 자료의 특성상 새로운 유형의 자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유연성을 고려함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추진 예산		1,000	1,000	1,000	1,000	4,000

세부과제 1-1-4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도서관으로서 자료의 수집 및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 도서관의 사례처럼 국가기록 보관소로서의 역할에 한계 • 한때 거의 볼 수 없었던 원고와 출판물들은 이제 많은 연구진과 이용자들을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 세계에 제공되고 있는 추세임 • 국가자료보존기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적 책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 근거자료 필요함 •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발굴·등록·보존하여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학문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도서관 소장 자료 연계 등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중심적 역할 필요

■ 실행계획

① 협력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 기관,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강화
- 온라인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술, 지식, 자원 등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② 디지털화 지원 정책 마련

-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화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온라인 자료화를 장려
- 자료 제작과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확대

③ 오픈 데이터 활용

-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함
- 공공 기관이나 기타 데이터 제공자들로부터 오픈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함

④ 자원 확충과 기술 강화

- 디지털화 장비나 자료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온라인 자료 수집 능력을 향상시킴

⑤ 희귀하고 고유한 자료의 온라인 자료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전환

- 지난 20년 동안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진행해온 주요 디지털화 프로젝트 지원 역량 확장
- 타 기관에서 아직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온라인에서 공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 개발

⑥ 국제적 자료 공유

- 해외의 도서관이나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전략 1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핵심과제 1-2	납본 수집
세부 과제	1-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관련 지침 정비 1-2-2 온라인 자료 납본 프로세스 개선 1-2-3 온라인 자료 납본 예산 확보

세부과제 1-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관련 지침 정비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새로운 유형 자료 발굴 확대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가 증가함에도 해당 온라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침의 구체화가 필요함 • 전자책 출판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통계자료가 부족해 수집 기준을 잡기 다소 어려워 체계적인 수집에 한계를 겪음: ISBN 발급자료만을 기준으로 수집하기에는 미리보기, 체험판, 연재 중인 자료 등의 납본 제외 자료도 포함될뿐더러 실제로 출판과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료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수집 기준으로서의 역할 부족

■ 실행계획

① 온라인 출판사 대상의 납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온라인 출판사 대상으로 납본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독려를 통해 효과적 납본 수집 확대 노력 필요
-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및 개요

- 매뉴얼의 시작 부분에서 납본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출판사에게 납본 프로세스와 기대되는 협조를 안내

2. 납본 절차

- 출판사가 자료를 납본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 이 단계에는 자료 제출 방법, 필요한 문서 및 양식, 기한 등이 포함됨

3. 자료 형식 및 요건

- 출판사가 제출하는 자료의 형식, 포맷, 품질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서관은 일관된 품질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4. 메타데이터 제공

- 출판사에게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메타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을 안내함. 메타데이터는 자료의 특성을 설명하고 기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5. 저작권 및 라이선싱

- 자료의 저작권과 라이선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판사가 제출한 자료의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확인받는 절차를 설명함

6. 연락처 및 지원

- 납본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와 지원 방법을 안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함

7. 배포 및 접근성

- 매뉴얼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설명하고, 출판사와 협력하여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법 기술

8. 참고 자료 및 예시

- 유용한 참고 자료나 예시를 제공하여 출판사의 이해를 돕고, 자료 제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②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관련 지침을 정비 전략 수립

- 자료 품질 평가 기준 수립: 어떤 자료가 우수하고 유용한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납본되는 자료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

- **납본 양식 및 형식 가이드라인:** 온라인 자료를 납본할 때 필요한 양식과 형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려:** 자료의 저작권 문제와 라이선스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납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포함
- **표준 메타데이터 사용:** 자료의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 표준 메타데이터 사용 방법 안내
- **저자 정보 및 연락처 포함 가이드:** 납본 자료에는 저자의 정보와 연락처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가이드. 자료를 참고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 **자료 유형별 가이드:** 다양한 자료 유형에 따라 납본 방법과 지침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각각의 자료 유형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
- **접수 및 검토 프로세스 설명:** 자료 납본의 접수와 검토 과정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저자들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라이브러리 및 아카이브 정책 고려:** 납본되는 자료의 장기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라이브러리나 아카이브의 정책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
- **윤리 및 행동 규정:** 자료 납본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와 행동 규정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
- **사용자 지원 및 문의처 안내:**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및 문의처를 가이드에 포함함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60	60	60	60	60	300

세부과제 1-2-2	온라인 자료 납본 프로세스 개선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기술 환경이 발전하면서 출판 생태계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라 점점 변화하고 있음. 과거 텍스트 중심의 ‘책’에서 벗어나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출판되고, 더 나아가 게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의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자료도 점점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존할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등 온라인 자료의 수집대상과 범위, 이용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행계획

① 납본프로세스 개선

- 납본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출판사가 직접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보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
- 파일 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직접 납본 절차의 확대와 안내
- 납본에 따른 신속한 보상처리: 납본 후 납본보상금 지급이 지체되지 않고 출판사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약관제도의 도입 검토

②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서비스 연계 운영

- 관련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국가도서관이 국제표준자료번호 운영 주체일수록 동일 섹션에서 납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서비스를 연계 운영하여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었음(최성구, 김영식, 2021)⁴⁰⁾

③ 관련 주체들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의 중요성 인식과 참여

- 관련 협회 및 생산자, 유통자 등 관계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집의 의의를 인식시킴
-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해당 온라인 자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발굴과 수행 필요

④ 저작자들의 인식 개선

-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는 정보를 항구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저작이 국립중앙도서관에 항구적으로 보존되어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인식을 갖게 함
- 자신의 저작이 영구적으로 보존됨으로써 이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 2의 창작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전달된다는 인식 제고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추진 예산	60			60		120

40) 최성구, 김영식 (2021).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연계 및 효과성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세부과제 1-2-3	온라인 자료 납본 예산 확보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 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률 개정 및 법제화 통해 출판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 • 납본 제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배포하는 기관이 필요함

■ 실행계획

① 납본자료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필요

□ 납본 보상금과 수집 보상금의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증액 필요

- **자료 획득 비용 증가:** 자료의 다양성과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보상금 증액은 자료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하고 출판사의 협조를 유도하는 데 도움
- **자료 품질 향상:** 증액된 보상금은 출판사에게 자료를 품질 있게 제공할 동기를 부여하고, 도서관은 품질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함
- **경쟁 환경 변화:** 출판 시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자료를 노출하고 홍보하기 위해 도서관과의 협력을 늘릴 수 있음. 따라서, 보상금의 증액은 출판사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지식 접근성 향상:** 보상금 증액으로 인해 출판사들이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되면, 도서관의 컬렉션에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는 사용자들의 지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연구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
- **지속 가능한 협력 유지:** 출판사와 도서관 간의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줌. 출판사는 자료를 홍보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도서관은 다양하고 품질 높은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즉, 보상금 증액은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②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 납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 **정부 지원 활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부의 문화 및 교육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 디지털 콘텐츠 확장에 관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보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
- **기부 및 후원 유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개인, 기업, 재단 등으로부터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는 방안

- **정부 연구 프로젝트 참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한 정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금을 확보
- **사회적 투자자 모델 활용:** 사회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회적 투자 모델을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
- **프로젝트 제휴와 협력:**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 대학, 도서관 등과 프로젝트 제휴나 협력을 통해 자금을 조달
- **다양한 지원금 모집:**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며 문화,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금을 모집하는 방안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전략 1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핵심과제 1-3	수증수집 및 자체수집
세부 과제	1-3-1 수증 수집 및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1-3-2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세부과제 1-3-1	수증 수집 및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에 따라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는 납본 이외의 방법인 기증을 통해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저널 이외의 자료는 2020년을 기준으로 기증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실행계획

①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새로운 유형 자료 발굴 확대

- 방송, 강의, 인터뷰 등 보존가치가 있는 다양한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및 웹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여 납본 및 자체 수집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자료 등록 및 관리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기증, 자체 수집된 자료와 신규 콘텐츠 발굴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수집 확보를 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자료를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오아시스(OASIS) 고도화 필요
- 공개된 웹자료 및 회색문헌 등 수집 강화(eISSN 미부여 학회지, 대학부설연구소 OA자료 등 보존가치가 높은 학술지 원문 및 서지정보 수집). 그리고 웹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자료 유형에 대한 분류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필요

② 온라인 자료가 적시에 수집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온라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변동성이 크고 휘발성이 있음. 이에 웹사이트의 폐쇄 등으로 인한 디지털 자료의 소멸로 수집·보존·전송되지 않는 자료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온라인 자료의 빠른 생산 속도를 따라가고 소멸 전 적시에 수집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수집 대상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온라인 자료 수집 지침이 수립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함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세부과제 1-3-2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증과 자체 수집을 위해 기관협력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과 협력을 하고 있음. 또한 보존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자료의 선정과 수집을 위한 위원회 등 전문가그룹을 운영(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온라인자료분과,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그룹 구성 및 운영, 수집 실무 TF팀 구성 및 운영)

■ 실행계획

① 테마 및 특별 컬렉션 조성

- 특정 주제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 컬렉션과 테마별 아카이브를 조성
 - ※ 영국의 웹 아카이브에는 138개 이상의 엄선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음
- 주제 및 테마(과학, 기술 및 의학,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역사, 정치 및 정부, 예술 & 문화, 장소 및 지역 등)는 모든 컬렉션 범주 내에서 필터링하여 분류 제공(영토, 총선, 건강, 기후변화, 지구협의회, 선거, 애호가 커뮤니티 등)
- 보관된 웹사이트는 매우 기술적이고 역동적인 것부터 보다 단순한 '자체 개발'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함
 - ※ 영국의 경우 웹사이트 콘텐츠의 유효성이나 품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음

② 긴급 컬렉션 전략

- 사회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발적으로 전달되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관한 컬렉션이 있음

- 뉴스는 온라인 언론 사이트, PDF 형식의 신문, 지역 일간 언론 제목 및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컬렉션에 잘 표시됨
- 캡처할 웹 사이트 세트를 관리하기 위해 웹 컬렉션 응용 프로그램을 적용함

□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의 마셜 맥루한 컬렉션

- 마셜 맥루한 컬렉션은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와 토론토 대학교의 공동 프로젝트로, 캐나다 다큐멘터리 유산의 세계적 중요성과 협력과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보관소에 포함됨
- LAC는 발행인, 제작자 및 제작자와 협력하여 책, 악보, 녹음, 다큐멘터리 영화, 시청각 녹음, 저널, 연재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식의 논문 등 매년 캐나다에서 출판되는 자료를 수집함
-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176개 캐나다 정부 부서 및 기관에서 보존을 위해 역사적 기록을 지속적으로 이전 받고 있음⁴¹⁾
- 아날로그 및 디지털 컬렉션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시점 주요 수집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약 50억 메가바이트의 전자 형식 정보, 수천 개의 캐나다 논문, 정기 간행물 및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을 포함함
 - 인쇄물, 네거티브, 슬라이드 및 디지털 사진을 포함한 거의 3천만 개의 사진 이미지
 - 90년 전 단편 및 장편 영화, 다큐멘터리, 무성 영화를 포함한 1897편 이상의 영화 및 550,000시간 이상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 수채화, 유화, 스케치, 캐리커처 및 미니어처를 포함한 425,000점 이상의 예술 작품, 일부는 1600년대의 메달, 인장, 포스터 및 문장
 - 약 550,000 개의 항목이 세계에서 가장 큰 캐나다 악보 컬렉션 구성
 - 캐나다의 음악과 관련된 문서, 피아노 롤, 릴 및 스폰, 8트랙 테이프를 포함한 모든 형식의 디스크 및 레코드 녹음
 - 캐나다 우편 기록 보관소
 - 캐나다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개인 및 그룹을 위한 텍스트 아카이브
 - 캐나다 전역의 전국 신문, 일간지에서 학생 신문, 원주민 잡지에서 민족 커뮤니티 뉴스레터 등

③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온라인 자료 자료 수집의 확대

- 현재 미국 중심의 한국 관련 문서가 대부분이며, 타 국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임. 이에 다양한 국가로 자료 수집의 확대를 넓힐 필요가 있음
- **해외 협력 도서관과 파트너십 구축:** 해외의 도서관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온라인 자료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대. 공동 구매,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

41)

<https://library-archives.canada.ca/eng/corporate/transparency/reports-publications/three-year-plans/Pages/three-year-plans-2019-2022.aspx#toc3-2>

- **해외 디지털 아카이브 연계:** 해외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한국 관련 자료를 확대. 협력 기관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 사용자에게 제공
- **해외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해외 도서관, 대학, 연구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한국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 **정부 지원 활용:** 정부나 문화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자금을 활용하여 온라인 자료를 확대하는 방안
- **국제 학술 커뮤니티와 협력:** 해외의 학술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한국 관련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 국제 학술 컨퍼런스, 학술지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
- **온라인 리소스 구독 및 구매:** 해외의 온라인 리소스나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거나 구매하여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 해외에서 발간되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
- **글로벌 디지털 라이브러리 활용:** 글로벌 디지털 라이브러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온라인 자료를 공유하고 확장. 국제적인 디지털 라이브러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관련 자료를 접근 가능
- **해외한인사회와 협력:** 해외 한인사회와 협력하여 한국 관련 온라인 자료를 확보. 해외 한인사회의 도서관, 문화 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거나 확장
- **국제 프로젝트 참여:** 국제적인 프로젝트나 협력에 참여하여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온라인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전략 1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핵심과제 1-4	신매체 자료 수집 확대와 활용
세부 과제	1-4-1 신매체 자료 수집 유형 확대 1-4-2 신매체 자료 수집 기반 마련(법적 근거, 지침 개발, 수집 도구 개발, 유관기관 협력 인프라 등), 1-4-3 신매체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세부과제 1-4-1	신매체 자료 수집 유형 확대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등장한 매체 플랫폼 서비스는 역동성이 강해 이에 기반한 자료를 모두 포괄하면서 일반화된 수집 범위와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셋,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와 같은 원시 데이터가 연구 및 업무 등에서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도 향후에는 고려해볼 필요는 있음

■ 실행계획

①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별 수집 지침 개발 및 제시

- 소셜 미디어의 수집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에 제시해야 함
- 다음은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소셜 미디어 수집 지침(안)임

■ 소셜 미디어 수집 지침

1. 개요

- 보존가치가 있는 개별 소셜 미디어 계정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기술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깊이 및 주기를 달리하여 수집·보존한다.
- 가치성, 부합성, 유일성, 정보성, 양방향성, 소멸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자원으로 가치가 없는 소셜 미디어는 수집하지 않는다.

2. 기본 방침

-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국내 주요 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준용)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수집한다.
- 한국의 국제적 경험과 행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한 소셜 미디어 계정을 수집한다.(예: 올림픽, 엑스포 등)
- 한국의 중요한 재난과 이슈화된 사건을 쟁점화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수집한다.
- 한국인 및 한국과 관련된 내용의 가치가 있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수집하여 보존한다.
- 정량화된 방법으로 방문 수, 갱신빈도 등 고려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선별한다.

- 소셜 미디어 계정을 웹사이트 공지사항과 같이 안내와 홍보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집에서 제외한다.

3. 수집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회, 교육연구기관 등 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조직 등의 소셜 미디어 공식 계정
- 국내 방송사, 신문사(인쇄 신문, 온라인 신문 모두 포함) 등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
- 사회문화적으로 인지도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개인 계정
- 전문가 그룹이나 이용자가 추천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
- 한국인 및 한국 관련 소셜 미디어 계정
- 구독자 및 추천 수가 많은 소셜 미디어 계정 등

4. 수집 내용 및 주기

- 수집 내용은 기술적 상황, 중요도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 유연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되,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한다.
- 수집 주기는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3개월, 정부기관 6개월, 언론기관 1개월, 기타 1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웹자료 수집 지침에 실감콘텐츠 항목을 분리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미지 자료 수집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의 정의를 “이미지자료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화면에 재생 및 표시된 시각 자료로써 사진, 회화 등의 자료를 말한다.”를 2차원으로 제한하고 실감콘텐츠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수집 지침(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감콘텐츠 수집 지침

- 실감콘텐츠란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하여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해 향유자에게 높은 현실감과 만족감을 체험 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말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기록된 파일도 여기에 포함한다.
-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연구 기관 등에서 생산한 공공의 가치를 지닌 콘텐츠를 우선 수집한다.
- 한국과 한국인의 생활상과 풍속 등을 표현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가지 유형일 경우, 콘텐츠 영상은 확장자 AVI, MPEG, MOV 또는 MP4, 실감효과 메타데이터는 MPEG-V 표준 기반의 XML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③ 신매체 자료의 수집 도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소셜 미디어 자료는 특정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 기반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자체수집을 고려하는 경우, 수집 대상이 되는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과 해당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카이빙 도구 등 플랫폼 특성에 맞는 수집 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고려해볼 만한 수집 도구 및 방법

-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수집을 허락받은 계정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 활용하여 수집 도구를 개발
- 소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및 하베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드파티(Third Party) 활용하여 수집
- 수증의 경우 개인이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셀프 아카이빙 기능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후 국립중앙도서관 기증
- 일부 플랫폼의 경우(Twitter), 오픈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한국 및 한국 관련 자료의 포괄적 수집에 활용
 - 이미지의 형태로 스크린샷하여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내용을 수집
 - 대용량 콘텐츠 추가 수집 및 확대를 위한 넉넉한 스토리지 확보
 - 추가적인 콘텐츠 수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60					60

추진배경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도 현시대를 반영하는 자료로 공공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오늘날 Facebook이나 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 최신의 XR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등은 현시대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신매체-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인 회사의 API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략은 회사의 제한적인 액세스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완전히 폐쇄(예. Twitter가 2023년 7월부터 사용량을 제한함)되기도 하여 수집의 시급성이 있음

■ 실행계획

① 수집 가능한 온라인 자료 유형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 「도서관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범주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및 형태는 크게 웹사이트와 웹자료이고 웹자료는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 소셜 미디어는 기관이나 개인에게서 수집 허락을 받아 기술적인 절차에 의해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에 대해 주기적인 접근을 통해 수집해야 하는 등의 속성은 웹사이트의 수집과 유사하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저장 기술과 방법이 다름
 - 앞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웹사이트와 별개로 수집 관리함
 - XR 기술을 적용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실감콘텐츠는 수집 시 대용량으로 인해 서비스용과 보존용으로 구분하여 수집함
- 현재의 자료 유형 구분에서 소셜 미디어는 웹사이트, 웹자료와 따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고 웹자료 내의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에는 실감콘텐츠를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소셜 미디어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실감콘텐츠** 등
-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3. 소셜 미디어

② 신매체 자료 수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 소셜 미디어 수집 대상 기관의 수집 허락

- 현재 Twitter 수집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연계 협력하여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수집 허락
- 수집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지닌 추가적인 수집 대상 발굴 및 연계 협력

③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협력

-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실감콘텐츠(메타버스 플랫폼 포함) 생산 현황 파악 및 주요 결과물에 대한 수증을 위한 국가적인 주요 사업 주관기관과의 연계
-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실감콘텐츠의 장기적인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홍보의 장을 제공함
 - 예)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연계
 -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정부 부처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주요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과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등과의 연계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1,100	6,000	1,000	1,000	1,000	20,100

세부과제 1-4-3	신매체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및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보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실행계획

①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제고

- OASIS에서 한 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기관(개인) 단위의 디지털 컬렉션 제공
- 대용량의 공공영역에서 자체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 메타 데이터 및 원 콘텐츠로 접근 가능한 저장된 서버의 링크를 제공하여 서비스하고 보존용은 시연 동영상만 제작함

② 실감콘텐츠 등 e-deposit 시스템의 콘텐츠 확장성 및 사용의 용이성 제고

- e-deposit 시스템에 저장 가능한 콘텐츠의 유형 확대
- 쉽고 간단한 인터페이스 도입을 통해 납본 및 수증력 제고

③ 실감콘텐츠 재현 공간 첨단화 및 구축

- 육안으로 볼 수 있는 3D LED 초대형 스크린 등 재현 공간 구축을 통해 접근 가능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홍보
- 기술 발전에 따른 실감콘텐츠 체험공간(VR 체험공간)의 지속적 개선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전략 1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핵심과제 1-5	데이터 관리와 활용
세부 과제	1-5-1 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관리 전략 1-5-2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 1-5-3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계 강화

세부과제 1-5-1	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관리 전략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온라인 자료 납본율이 낮고 ISBN 기반 납본율이 3% 수준임 • 또한, 현재 납본이 식별체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수작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필요

■ 실행계획

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역할 강화

- 미디어 및 정보기술의 급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식별번호를 부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의 예산 및 전문 인력 필요
-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검색 시스템, 메타데이터 관리 도구 등을 개발하여 서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지원
- 온라인 자료의 확산에 따른 납본자료의 메타데이터 구축 관리 운영과 출판유통통합시스템 등 유관시스템 연계 필요
- 출판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지정보 표준화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한국서지표준센터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 및 출판 전문기관, 단체, 개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거나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여 일관된 표준에 따라 서지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함
- 국제적인 표준화 단체나 기관과 연계하여 서지정보 표준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내 정보 자원을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함
-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서지표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서 및 정보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②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 납본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납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⁴²⁾
- 연속간행물 출판사들은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은 의무라고 생각할수록, 납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ISSN 발급 대비 납본율이 높았음.
-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및 협력 강화
- 온라인 자료 납본률 제고를 위한 납본 홍보 강화. 온라인 납본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본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자료는 보관과 접근성에서 효율적이기에, 디지털 자료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출판사들도 더 쉽게 납본할 수 있을 것임
- 납본가이드 및 정책 문서를 제공하여 납본 과정과 요구사항을 명확한 안내 및 정보 제공. 출판사 대상 납본에 관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을 주최하여 출판과 관련된 최신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출판사들 간의 지식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출판사가 납본 자료의 저작권과 라이선싱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저작권 정보나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출판사들이 법적 문제 없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인 납본을 위해 출판사 및 저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은 출판사들이 납본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자료를 보다 넓은 범위로 확보할 수 있음

③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

- 국가대표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나 인센티브를 개인 저작자나 출판사에 지급할 수 있음. 이는 자료의 저작자 및 출판사의 노력과 창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국가대표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를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열람 및 이용을 제공하는 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납본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 납본된 자료의 저작자나 출판사의 이름을 특별히 표기하여 저작자의 이름을 알릴 수 있

42)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납본자의 저작물의 홍보 활동을 통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물의 노출도를 높이고 저작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작가나 저작자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저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술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 납본자들과 협력하여 특별한 출판물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국가대표도서관의 특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납본자들의 동기 부여와 협력을 유도하면서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의 보상을 통해 양질의 자료가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100					100

세부과제 1-5-2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관리 • 현재 ISBN 기반의 온라인 납본 대상은 웹툰, 전자책, 오디오북자료가 해당이 되며, 음원 자료는 수집 대상에 해당 • 연재형 웹툰의 경우, 2024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ISBN을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식별체계가 필요함 • ICN을 통한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관리 통합 관리 •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은 저작권 정보 및 라이선스 정보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저작권 계약과 자료 이용 협의가 용이 • 증가하는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므로, 저작권 관련 분쟁의 감소에 기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정보를 통합 활용 • 다국적 저작권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협약을 강화

■ 실행계획

① UCI 메타데이터 활용

- 연재형 웹툰의 경우,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ISBN을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식별체계로 UCI를 활용할 예정
- UCI는 국가표준번호이지만, 기존의 국제표준식별체계와 연계가 가능하여 대응 가능한 식별체계로 인정될 수 있도록 UCI 활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함
- UCI 식별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된 법적 규정 정비 필요함
- 매체유형별 상이한 국제식별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발굴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해야 함
- UCI는 디지털 콘텐츠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유하고 중복되지 않는 식별번호 체계를 구축하여 콘텐츠의 정확한 식별을 가능케 할 필요가 있음
- 음악, 영상, 이미지, 문서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에 대한 식별 체계를 포괄하도록 UCI를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
- 기본적인 식별자로 UCI가 연결될 수 있으며, UCI의 기본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결 서비스 등을 구상할 수 있음
- UCI는 다양한 관련 콘텐츠에 URL 주소의 변환과 관계없이 관련 콘텐츠에 바로 연결이 가능하여 콘텐츠 활용성이 높음
- 기존의 식별체계와 연계하여, 정보의 유기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가능
- UCI의 표준화된 식별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콘텐츠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식별체계의 변경이 불필요하여,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음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동일한 콘텐츠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효율적인 배포 지원

② 납본과 이용의 상호보완 강화

- 납본(legal deposit)은 국가대표도서관에게 출판사나 저작자가 출판물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주로 저작권 보호, 문화유산 보존,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자료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함
- 이용(Utilization)은 국가대표도서관이 수집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 연구,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개인 및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 납본의 과정은 출판사나 저작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주로 메타데이터 입력과 정리 등을 포함하며, 메타데이터 관리자와 관련된 시스템에서 처리 됨
- 납본과 이용은 국가대표도서관의 주요 기능이며, 상호 보완하여 강화시키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	100	100	100	100	500

세부과제 1-5-3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계 강화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은 저작권 정보 및 라이선스 정보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저작권 계약과 자료 이용 협의가 용이 • 증가하는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므로, 저작권 관련 분쟁의 감소에 기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정보를 통합 활용 • 다국적 저작권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협약을 강화

■ 실행계획

① 국제창작자 식별체계 ISNI와 연결

- 매체별 표준식별코드가 다르고, 다양한 표준식별코드를 연계할 수 있는 ISNI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콘텐츠의 창작, 생산, 관리, 유통과 관련된 저작자 및 기여자의 공적 신원을 식별하기 위해 전 세계의 여러 도서관, 출판사, 데이터베이스 및 저작권 관리 기관에서 사용 중
 - － 음악과 음악 콘텐츠 저작권 단체와의 연결
 - － 예술, 미술 분야의 문체부 산하 단체와 기관과의 연결
 - － 방송국, 연예 제작사 등의 콘텐츠 제공기관의 연계
- 유형별 식별체계의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여 연동. ISBN, ISSN, DOI, ISRC, ISWC, ISAN, ISNI 등의 메타데이터를 통합된 형식으로 관리하고, 각각의 식별체계에 해당하는 정보를 연결하여 저장
- 국제창작자 식별체계인 ISNI를 활용하여 ISBN, ISSN, DOI 등의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결하는 공통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식별체계 간의 연결을 구축하여, 각 식별체계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
- 모든 식별체계에 대한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식별체계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국제 표준 기구 및 단체들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각 식별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여, 국제표준식별체계와 국제창작자 식별체계를 연결함으로써, 콘텐츠와 창작자 간의 관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음

② UCI와 ICN의 연계와 통합을 위한 식별체제 분석

- UCI는 모든 저작물에 유일한 식별자를 부여하여 해당 저작물을 유일하게 구분하고 구별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ICN은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보 및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저작물 유통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적인 콘텐츠 유통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저작권관리에 집중되어 콘텐츠 자체를 식별하기 부족하며, 식별체계운영 구조상의 취약점 내포
- ICN은 저작권관리에 집중되어, 콘텐츠 자체를 식별하는 데는 부족하며, 변환시스템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UCI와 연계를 통해 효율적 관리 필요
- 국가표준번호인 UCI와 ICN의 연계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자료와 관련된 표준화된 식별정보 부여하여, 이를 국제표준번호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하여, 자료의 유일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 시스템과의 통합성을 높임
- UCI와 ICN의 활용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관리와 저작권 보호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가표준식별체계 관련 법 제도 개선 필요

③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연계

- 국제표준번호체계와 국가표준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납본을 향상
 - 도서분야의 ISBN/ISSN, 음악분야의 ISRC, 학술콘텐츠의 DOI 등이 배타적 영역을 구축하여 국가표준식별체계인 UCI와의 연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극복
- 서로 다른 형식의 메타데이터 사용에 따른 상호운용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간 협력
 - 현재 출판량이 증가하는 웹툰의 경우, 2024년 이후 ISBN을 대신할 수 있는, 웹툰이 보호되고 보존되고 납본 관리할 수 있는 국제표준번호
 - 웹툰에 대한 표준식별체계를 새롭게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들 발견되고 있어, 기존 온라인 콘텐츠 식별기호인 UCI 국가표준식별체계를 활용
- UCI 식별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된 법적 규정 정비
 - UCI는 국가표준번호이지만, 기존의 국제표준식별체계와 연계가 가능하여 대용 가능한 식별체계로 인정될 수 있도록 UCI 활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UCI 코드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에 따라, 구문구조개선 필요 예) 정국,방탄소년단 Dreamers(feat. FIFA Sound) : I500-1000009300393.100064358700-1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	100	100	100	100	500

2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전략 2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핵심과제 2-1	대국민 서비스
세부 과제	2-1-1 온라인 자료 열람서비스 확대 2-1-2 온라인 자료 활용 촉진 2-1-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세부과제 2-1-1	온라인 자료 열람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의 Trove는 컬렉션에 대한 온라인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호주의 문화 컬렉션으로, 전국 이용자 대상으로 호주 국립 도서관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 서비스함 호주 도서관, 대학, 박물관, 갤러리 및 기록 보관소 등의 호주 수집 기관에서 60억 개가 넘는 문화 유산 항목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매년 2,200만 건 이상의 방문이 이루어짐

■ 실행계획

1 저작권법에 명시적 규정 강화

-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음) 저작권법 제31조 제8항이 ‘도서관법 제 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존을 위한 복본 및 복제 수집 가능) 위 규정에 따른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만 복제가 가능하고,
- (납본 받은 출판물에 대한 이용규정 없음) 열람의 경우 복제나 전송이 아닌 경우로 관내 열람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즉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은 전자출판물의 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현재 없음
- (납본부수만큼 열람이용수 제한)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보관된 도서를 디지털화한 전자출판의 사례를 준용하여 동시에 열람하는 이용자 수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받은 전자출판물 부수 이내로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야 함)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과 도서관에 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② 납본된 모든 자료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 납본된 모든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자료가 기밀로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밀 자료는 여전히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제한된 액세스 권한으로 보관하기 위해 특정 프로세스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밀성 문제가 발견되면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시민이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동기 부여된 요청에 따라 웹페이지를 제거함
- 저작권 문제가 없이 자료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 라이선스 협약: 자료를 제공하는 출판사 또는 저작권자와의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 퍼미션 확보: 저작권자로부터 특정 자료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옴. 이때, 자료의 활용 방식, 기간, 범위 등을 명확하게 협의하고 기록함
 - 저작권 관리 솔루션: 저작권 관리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저작권을 준수하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일부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통해 공유되는 경우가 있음. 이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정확한 출처 표기: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항상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
 - 본인 작성 자료 활용: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나 출판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없음
 - 파생 저작물 제한: 저작권자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수정하거나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
 - 저작권 정보 제공: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할 때 저작권 정보와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저작권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전문가 상담: 복잡한 저작권 문제의 경우 전문적인 저작권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③ 납본자료의 활용성 강화

○ 납본자료의 가치와 의미 정립

-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자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성을 갖고 있으며, 문화, 연구,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납본자료는 학문과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자료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학술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역사적인 문헌 자료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데 역할을 함
- 교육 및 학습에 활용되며, 문화 예술 창작 활동 등 창작활동에 영감을 주는데 기여함
- 정부나 정책 결정 기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자료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근거로 활용하여,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산업분야에서의 납본자료는 기술 개발, 경영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고, 특허 정보, 경쟁 동향, 시장 분석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과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음
- 공공정책 설명, 시민 교육,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다른 국가의 도서관이나 연구기관과의 국제 협력, 정보 공유, 문화 교류 등에 기여하여, 국제적 및 협력에 활용 가능
- 디지털화된 납본자료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 정보 공유와 활용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음

○ 납본자료 활용성 강화 전략

- 디지털화와 온라인 접근 강화: 납본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함
- 메타데이터 풍부화: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풍부하게 구성하여 자료의 내용과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작권 문제 해결: 저작권 문제를 철저하게 고려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제공
- 포럼 및 커뮤니티 운영: 자료에 대한 토론이나 공유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나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이용자 간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도모

- 저작권 교육 및 안내: 이용자에게 저작권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자료 활용 시 저작권을 준수하는 방법을 안내
- 다양한 형식의 자료 제공: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와 사용 목적에 부응하는 자료를 제공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	100	100	100	100	500

세부과제 2-1-2	온라인 자료 활용 촉진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건 필요 •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수집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디지털 컬렉션 자료들에 대한 온라인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기존 자료에 대한 디지털 전환은 대체가 아니라 필수이며, 전통적인 수집 방식 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자료를 획득, 보존 및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작업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임 • 앞으로 국제 온라인 자료 수집 흐름에 맞춰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기록 보존과 이용의 구심점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수집·보존하려면 제도적·기술적·시스템과 인력 한계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실행계획

① 수집자료 활용 대상과 범위 설정 및 촉진 방안 수립

- (다양한 각도의 활용 방안 수립) 서비스 대상이나 이용 범위, 접근 방법, 협력 기반 활용, 연구를 위한 활용 등 다양한 각도에서 수집자료 활용 촉진 방안 수립 필요
 - 서비스 대상 및 이용: 온라인 자료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됨

- 웹사이트는 미래 연구자를 위한 것으로, 현대 생활을 반영하거나 특정 컬렉션과의 관련성을 반영
- 큐레이터 및 기타 전문가들은 특정 이벤트, 주제 또는 관심 분야에 대한 웹 사이트 수집에 정기적으로 집중하는 주제 및 테마로 그룹화하여 서비스
- **공개 접근:** 아카이빙된 웹 콘텐츠에 대한 무료 공개 접근을 제공함
 - 사용자는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아카이빙된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탐색할 수 있으며, 선별된 컬렉션을 찾아볼 수 있게 함
 - 캡처 시점에서의 아카이빙된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함
 - 가능한 한 많은 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설계
- **국가적 및 국제협력:** 한국 내외에서 웹 아카이빙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조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함
 - 이러한 협력은 웹 아카이빙 분야에서의 지식, 자원 및 모범 사례 공유를 도움
- **연구 및 참여:** 도서관은 웹 아카이브의 콘텐츠에 대한 연구 및 참여를 장려함
 - 학술 연구,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 역사 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아카이빙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연구자, 학자 및 일반 대중을 지원함

- RLUK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도서관의 컨소시엄으로, 2022년 '가상 열람실 '43)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 대영 도서관은 국제 인터넷 보존 컨소시엄 (IIPC)의 창립 멤버로서, 참여하는 전 세계 도서관과 함께 초국가적 차원에서 웹 사이트 기록하기 위한 공동 컬렉션을 만듦

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수집자료 활용과 수집으로의 연계

- 빠른 시작 도구 키트, 데이터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 아카이브의 연구 사용을 장려
- Digital Humanities 연구 커뮤니티와의 협업
- 관심 있는 인터넷 콘텐츠 유형 정의
- 디지털 보존을 촉진하는 조직과의 파트너십 및 협력 촉진
- 인터넷 보존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회사와 협력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43) 가상 열람실(VRR : Virtual Reading Room)은 디지털화에 의존하지 않는 컬렉션에 대한 인간 중재 원격 디지털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물리적 연구 공간 내에 배치된 고해상도 비주얼라이저를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학자, 교사 또는 일반 대중은 기관의 유산 및 문화 컬렉션을 보고 디지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직원이 이러한 컬렉션을 재배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임. 디지털화되지 않은 수집 자료에 대한 사용자 응답형 액세스의 새로운 열람 방법

- 인터넷 콘텐츠 생산자와 콘텐츠 보존자 간의 협력 지원
- 지역 또는 언어 이니셔티브 장려
- 웹 아카이빙을 "민주화"하고 생성을 허용하는 웹 아카이브 도구 및 서비스의 사용을 모니터링
- 대규모 조직 외부의 컬렉션("시민 웹 아카이빙")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	100	100	100	100	500

세부과제 2-1-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자료 수집과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정책의 당면 과제 • 국립중앙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은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국내에서는 데이터 3법을 법제화해 가명정보 정의 및 처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정성 확보조치 및 배상책임 의무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도서관과 기록관과 같이 방대한 자료와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 관한 예외 조항이나 면책 조항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법 제도 및 유관 기관들의 공동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실행계획

- 이용자의 독서성향과 도서관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함

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도서관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 해외 도서관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처리정책을 준용하면서도,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정책에서도 잘 드러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도 이를 수집·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보 주체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소장자료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
- 이러한 도서관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도서관 누리집에서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

②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확대 방안

- 맞춤형 추천 서비스의 만족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취향이나 독서성향, 도서관 시설이나 자료 이용 이력 등 다양하고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가 수집·분석되어야 함
-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는 도서관 이용자의 부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향후 이용자의 자료나 시설 이용 이력, 실시간 위치 데이터, 교육·전시 프로그램의 서비스 참여 이력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별도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하는 방안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③ 개인정보의 패턴을 인식하여 자동 마스킹 기술 도입

-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개인정보가 발견된 온라인 자료는 수작업으로 이미지를 삽입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미 수집된 자료와 앞으로 수집될 막대한 양의 온라인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개인정보의 패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마스킹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

④ 도서관과 기록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 도서관, 기록관처럼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제한되거나 폐기를 요청받을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에서는 간행물의 원문 파일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

하고 보호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술 보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자료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	100	100	100	100	500

전략 2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핵심과제 2-2	홍보강화
세부 과제	2-2-1 온라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2-2-2 온라인 자료 납본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세부과제 2-2-1	온라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제도 시행 후 꾸준한 수집자료의 꾸준한 증가 • 2016년 8월 처음 온라인 자료 납본법이 시행된 후 전자책은 1,818건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음 • 그러나 1965년 3월 납본법이 시행되고 50여 년이 지나 제도적으로 안정된 오프라인 자료에 비해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아직 미흡 • 따라서 출판사나 제작사, 공공기관, 학회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를 홍보하고 실무 담당자 교육을 하는 등 온라인 자료 납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

■ 실행계획

① 납본 제도와 국제표준자료번호에 대한 출판사 대상 홍보 강화

- 출판사 등록 할 때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제도에 대한 홍보 안내를 좀 더 강화하고, 정기적인 홍보
- 저작권자 및 출판사자 납본자료의 도서관 열람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명확하게 설명 필요

- 납본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온라인 자료 출판물 홍보 행사 지원

- 온라인 자료 출판물의 홍보를 위한 행사나 홍보코너를 도서관에 마련하여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 모색
- 연간 관내 열람으로 이용된 열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출판물에 대한 홍보로 출판 업계와 정보 공유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	100	100	100	100	500

세부과제 2-2-2	온라인 자료 납본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제도의 홍보의 효과와 강화 필요성 • 국내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경우 모두 ISBN·ISSN·납본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ISBN발급 대비 납본율이 상당히 높으며 또한 납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규제, 규범, 자원, 가치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킴 • ISSN의 경우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가 ISSN발급 대비 납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납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규제, 규범, 자원, 가치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켜 간접적으로 납본율에 영향을 줌

■ 실행계획

① 인식 개선 및 활용도 제고⁴⁴⁾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전 세계 도서관과 함께 웹 아카이빙이라는

44)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도전적인 과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자원 아카이브(OASIS)를 구축하여, 소멸해가는 과거 웹 자원과 현재의 웹 자원을 유일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완전한 수집에 한계가 있음
 -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정책 흐름에 맞춰, 웹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가공하여 웹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시점임
- 생성·소멸되는 웹 자원을 제대로 수집 및 보존, 개방성 확대와 아카이브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다음과 같은 전략 방안이 필요함
 - 외부 공개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웹자원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개발 제공
 - 방대한 웹 데이터에 대한 장벽 없는 개방을 통해 각계각층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② 미래 국가 정보 자원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⁴⁵⁾

- 도서관의 미래 자원으로, 웹자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집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요 기관 및 중요 주제 관련 웹자원에 대한 선별적 수집과 국가 도메인 웹사이트에 대한 포괄적 수집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외 한국 관련 웹 자원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블로그, 유튜브,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메타버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 새로운 유형의 웹 자원을 수집 및 보존해야 하나, 현재 오아시스 시스템은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픈 소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처리속도와 성능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방대하고 복잡한 웹 자원을 원활히 수집·보존·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원 정책이 요구됨
 - 예산 및 인력, 시스템(H/W, S/W) 등 전반적인 인프라 지원 확대
 - 수집부터 서비스까지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 필요
 - 사서, 정보기술자,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 팀 단위 조직과 장단기적인 협업 필요

45)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③ 국가 단위의 플랫폼, 오아시스의 위상 강화⁴⁶⁾

- 우리나라 웹 자원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 ·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웹 아카이브 구현 방안 모색
 - 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웹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 ·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플랫폼으로 개선되어야 함
 - 네이버, 구글 등 상용 엔진과 같은 고성능 검색엔진을 적용하여 과거의 웹 자원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웹 표준에 따라 웹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오아시스 사업과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추진
- 인공지능 기반 웹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스템 도입, 방대한 웹에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지능형 서비스 구축
 - 주제별 · 시대별 웹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고도화된 웹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구현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500	500	500	500	500	2,500

46)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③ 미래형 인프라

전략 3	미래형 인프라
핵심과제 3-1	관련 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개선
세부 과제	3-1-1 관련 위원회 기능 및 역할개선 3-1-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 자료분과) 운영 3-1-3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

세부과제 3-1-1	관련 위원회 기능 및 역할개선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들은 도서관의 운영, 자료 선정,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 • 도서관 내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가 필요 • 이 위원회는 다양한 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도서관의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개선하고 조율하는 역할 • 이를 통해 조직 내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실행계획

①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기능 및 역할 개선

-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함으로써 온라인 자료 수집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전문성 강화: 자료 디지털화 기술, 저작권 관리, 정보 검색 및 분류 기법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등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온라인 자료 수집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
 - 자료 수집 방향성 설정: 관련 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비전과 목표를 고려하여 자료 수집의 방향성을 설정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할 자료의 주제, 형태, 분야 등을 결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
 - 협력과 네트워킹 강화: 관련 위원회는 다른 기관, 도서관,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추진

- 다른 기관과의 자료 공유, 자원 확보,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온라인 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협업과 효율성을 높임
- 자료 디지털화 지원: 관련 위원회는 자료 디지털화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둠
 - 디지털화를 위한 장비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자료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문
- 저작권 관리: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관련 위원회는 저작권 관리를 철저히 수행함
 - 자료의 저작권 상태를 파악하고,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함
 - 공익적인 목적으로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와 저작권 동의를 확보하는데 노력
- 이용자 참여와 피드백 수렴: 관련 위원회는 이용자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
 - 이용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 수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
- 성과 평가 및 개선: 관련 위원회는 자료 수집과 관련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평가와 자문
 - 수집된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

② 필요한 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 활동 강화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자료분과)
- 온라인 자료 저작권 심의위원회
- 온라인 자료 네트워킹 위원회
- 온라인 자료 성과평가위원회
-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그룹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100					100

세부과제 3-1-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자료분과) 운영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컬렉션에 수록될 자료를 선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은 중요한 역할 • 특히 온라인 자료의 경우, 다양한 형식과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 이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도구가 필요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자료분과)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품질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도서관의 컬렉션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실행계획

① 온라인자료분과 운영 목적

- 도서관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에 대한 적정 보상금액의 산정 및 자료의 종류·형태 등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함
- 근거 :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

② 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 운영세칙('23.3.1., 제정)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의거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자료분과)를 운영함
- 위원회는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함
-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 사무관으로 함

③ 위원장 및 위원회의 역할

- 위원장 역할 : 위원장은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 온라인 자료 분야 위원회 운영
- 온라인 자료 수집에 관한 고시(안)검토
-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대상 자료 적정 보상금액의 산정, 자료의 종류·형태 등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심의

④ 위원회의 개최 횟수

- 현재와 동일하게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수시로 하는 것이 적정함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	100	100	100	100	500

세부과제 3-1-3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는 다양한 형식과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과 활용성을 평가해야 함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위원회는 이러한 온라인 자료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 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품질 높은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 위원회들은 도서관의 운영, 자료 선정,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실행계획

①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그룹의 역할 확대

- 활동내용이 현재는 자료 추천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자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자료 추천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되 신매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자료 추천 기준도 이에 따라 개선되어야 함.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료 추천 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매체 등의 출현을 감안하여 수집 대상 자료의 확대를 위한 제안을 하고 신매체를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함

②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그룹과 수의 증대

□ 운영횟수 증가

- 현재 운영횟수는 연 2~3회로 되어 있으나 분기별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천위원회 확대 필요

- 또한 추천위원회 수는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해 현 외부전문가 5명에서 20명 정도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추천위원회의 수당은 추천건수를 기반으로 하며 위원회 수의 확대가 예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위원회의 구성을 출판계, 자료유통업계, DB 구축업체, 대행사 등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집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③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그룹 운영의 개선방안

□ 목적

-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라, 판매용 온라인 자료 중 보존가치 높은 자료를 선정·수집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 운영

□ 활동내용

-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 추천 및 관련 자문

□ 자료추천 기준의 개선방향 논의

- 신매체 및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자료 확대 건의 및 추천

□ 운영내용 및 운영횟수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자료추천
- 연간 분기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4회 이상 운영함

□ 추천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 수

- 추천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분하여 구성함
- 외부 전문가의 경우 관련 교육계를 포함하여 출판계, 자료유통업계, DB 구축업체, 대행사 등으로 구성함
-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의 수는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함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50	50	50	50	50	250

전략 3	미래형 인프라
핵심과제 3-2	제도정비
세부 과제	3-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3-2-2 온라인 자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3-2-3 자료보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3-2-4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과 도서관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세부과제 3-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제도와 납본인식이 납본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남(최성구, 김영식, 2021)⁴⁷⁾ • 국가 주도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이 법적 납본을 연계하여 납본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납본을 관리할 수 있음 • 국가(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이 보다 적극적인 납본정보 제공방식을 취하기에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국립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이 출판단체/민간기관 주도와 비교하여 납본율이 70%이상 높음 • 따라서 납본제도기반 납본과 납본제도의 홍보로 출판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관련법의 검토가 요구됨

■ 실행계획

① 찾아가는 납본 제도 도입

- 도서관자료의 수집의 양적 질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도서관자료 제공자의 협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등 찾아가는 행정을 전개
- **납본 제도:**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주고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납본하여야 하는 제공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을 채택하여 관행화되어 왔음
 - 그러나 향후에는 현장행정, 찾아가는 행정, 국민편의주의 행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아가야 할 것임
 - 물론 찾아가는 납본행정은 신속히 확보가 필요하거나 중요성이 큰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47) 최성구, 김영식 (2021).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연계 및 효과성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추진 예산	100	100				200

세부과제 3-2-2	온라인 자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의 온라인 자료 디지털 대출권 보상 사례가 있음 대출권이란, 호주 정부가 공공도서관 또는 교육(학교, 대학교, 주립 기술전문대) 도서관에서 책이 대출될 때 호주 작가 및 출판사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함 대출권의 적용 대상은 출판된 지 5년 이내에 이 제도에 등록하고 국가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목록 레코드를 포함하여 특정 기준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호주 창작자의 실물 도서에 적용되었음

■ 실행계획

① 납본 부담비용 완화를 위한 우편법 개정

- 도서관자료 납본을 위해서는 우편비나 택배비, 교통비(대중교통비, 유류비, 도로통행료, 차량 감가상각비 등), 인건비, 시간적 기회비용 상실 등이 발생하게 됨. 현재 납본시 우편물 발송비용을 착불 등 수령자부담으로 처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님
- 비록 소액일지라도 다중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사실상 지출이 강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사소한 일로 취급하여 방치하지 말고, 적극 보상해 주거나 사전에 이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본에 이용되는 우편물 배송비용을 감면하거나 무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법에 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우편법' 개정을 통하여 감면 내지 무료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② 도서관자료 이용료의 사후정산 제도 도입

- 공공도서관에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도서관자료는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도서관자료의 복제, 열람, 대출, 내려받기(다운로드) 등이 많아질수록, 도서관자료

의 저작권자(저작권 등의 권리자) 또는 제공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경제적·영업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

- 도서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성 등을 명분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창작과 생산 의욕을 꺾게 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지식정보 창출 총량을 쇠퇴시키는 요인이 됨
- 이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자료가 이용된 경우에는(사립도서관은 자율에 맡김) 그 이용의 정도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이용료 수익은 일정한 주기마다 적절히 정산되어 저작권자(저작권 등의 권리자) 또는 도서관자료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체계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100					100

세부과제 3-2-3	자료보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을 우선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나, 온라인 자료의 경우 전자책 출판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으며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출판되고, 더 나아가 게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의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ISBN, ISSN 발급 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본으로는 수집할 수 없음

■ 실행계획

① 온라인 자료 열람에 대한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에 명시 방안 연구

-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수집된 전자출판물에 대한 열람이 허용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해석하는 의견 있음
- 반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은 전자출판물의 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이렇게 국립중앙도서관이 보관된 도서를 디지털화한 전자출판물 사례를 준용하여 동시에 열람하는 이용자 수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받은 전자출판물 부수 이내로 열람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과 도서관법에 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즉, 온라인 자료 열람에 대한 내용을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함

온라인 납본자료의 디지털 열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제 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내 전송을 허용하되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본 연구용역의 전문가 자문회의의 의견 참조)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추진 예산	100	50				150

세부과제 3-2-4	온라인 자료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과 도서관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통해 납본, 자체수집, 수증의 3개 방법으로 수집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 중 납본 수집 지침에 따르면 납본을 통한 수집 자료의 대상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파일로 정함 그러나 납본의 기준이 되는 ISBN은 납본 제외 대상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출판이나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료도 다수로, 현재 지침에서 규정된 내용만으로 납본 수집을 진행하기에는 정확한 수집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가 다소 어려움을 겪음

■ **실행계획**

① **도서관자료 수집 관련 협력대상기관 구체화 및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 가운데 일부는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관들이 그 수집, 보존, 제공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야별로 이러한 법정기관은 계속해서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자료 수집 정책에 있어 국립중앙도서관과 각 법정기관들과의 역할분담이나 협업 체계를 재정립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임.
- 국가의 공공정책 내지 공공사업 추진, 국가작용 내지 행정작용의 전개는 통일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도 정책의 중복, 행정의 중복이나 예산의 중복, 인력의 중복적 투입 등이 없어야 할 것임
-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으로 수집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대한 국가적 책무이지만,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기관별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독립적으로 각개 활동하는 것은 국민과 납세자의 관점, 예산낭비 요인 제거 필요성 관점, 재정건전성 강화 관점, 공공부문 적정화 관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음
- 이에 제20조에서 협력 체계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즉, 국립중앙도서관과 기타 협조 대상 기관 간의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이 협의체의 협의를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력 대상 기관(협의체 구성원)은 대략 다음과 같음.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

조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5.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수집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자료의 일부를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는 기관

② 만화진흥법,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등 개별법과 도서관법과의 연계성 강화

- 첫 번째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은 최근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만화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음. 다만 ‘한국만화진흥원’ 등 별도의 법정특수법인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법률이 새로 제정될 때마다 새로이 공공기관 내지 법정특수법인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기 보다는, 국가 지식정보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여 만화의 수집, 보존, 전시 업무를 소관하도록 하는 취지를 해당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로, ‘영상진흥기본법’ 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규정은 도서관의 도서관자료 보존 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인 바, 도서관을 통한 수집과 보존의 취지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 내용 중에 ‘제5호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명시해 두고 있음. 또한 한국영상자료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영상자료원으로 하여금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에 관하여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네 번째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4조에서 애니메이션산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의 하나로 ‘11.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애니메이션 자료 수집과 보존에 관한 별도의 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한국영상진흥원 등이 이미 있기 때문이기도 함. 이에 도서관법상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애니메이션이 수집, 보존, 제공(이용)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음악산업진흥법, 방송광고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도서관자료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기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기구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상호 협력하도록 당부하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자료 수집이나 법정기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상의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분야에서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기구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	50	50	50	50	300

전략 3	미래형 인프라
핵심과제 3-3	시스템 구축
세부 과제	3-3-1 납본시스템 고도화 추진 3-3-2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스템 3-3-3 표준 보존기술 적용과 보존시스템 구축

세부과제 3-3-1	납본시스템 고도화 추진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자료 납본 시스템의 기능의 한계 ✓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2016년 8월 처음 온라인 자료 납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루어짐. 온라인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이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수집 대상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온라인 자료 수집 지침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 ✓ 도서·비도서 장서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전체 13,805,208책·점 수집되었고 이중 10,316,372권(74.7%)이 납본 방식으로 수집되었지만, 온라인 자료는 2022년 12월 기준 총 18,589,753건이 수집되었음에도 납본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가 전체의 약 4%밖에 되지 않음(2017~2022년 납본 수집 현황 기준)

■ 실행계획

① ISBN/ISSN 통지 기능

-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 ISSN 등 표준식별체계를 부여받아 콘텐츠를 생산하는 출판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이후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납본될 수 있도록 안내(1차, 2차, 3차)
- 온라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변동성이 크고 휘발성이 있음. 이에 ISBN·ISSN·납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납본이 안된 자료는 자동으로 출판사 및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② 납본 등록기관의 현실화

- 납본은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30일 이내에 납본을 해야하는데 영상자료, 음성·음향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납본 등록 기간을 현실화하여 납본율을 높여야 함

③ 납본자에 대해서는 납본증서 발급

- 납본자에 대해서는 납본 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납본에 대한 확인과 인류문화 유산의 보존에 인식이 높은 국민 또는 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함
- 자동 분류 시스템이나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의 납본 창구 일반화로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시간 단축
- 출판사들이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자료의 제출 및 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납본 제출된 자료에서 메타데이터(제목, 저자, 출판사 등)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OCR(광학식 문자 인식) 기술이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 및 저작자가 제출하는 메타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표준화하여,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고, 표준 규칙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함
- 납본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확장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확장하여 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음
- 납본 제출된 자료의 형식, 품질, 저작권 등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불완전한 자료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함
- 출판사 자체 시스템에서도 쉽게 자료를 납본시스템에 연동하여 제출하도록 API 및 통합 기능을 제공하여, 출판사들이 편리하게 납본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납본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 정보나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출판사들의 납본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함
- 온라인 납본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납본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접근 제어, 암호화, 보안 프로토콜 등을 사용하여 자료의 안전성과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음
- 출판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UX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들이 납본시스템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자료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관리, 처리가 가능해지며 출판사들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1,100					1,100

세부과제 3-3-2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스템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유통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이유 ✓ 효율적인 자료 관리,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활용, 자료 보안과 저작권 관리, 자료의 지속적인 갱신과 업데이트, 자료 유통 및 연계를 통한 지식 확장, 자료 수집 및 관리의 비용 절감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과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유통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보다 효과적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실행계획

① 시스템 개요

- 온라인 자료 구축 및 활용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 저장, 관리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체계와 시스템
-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과 모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온라인 자료 구축 및 활용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모듈의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기능과 모듈들을 통해 온라인 자료 구축 및 활용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자료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함

②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모듈

□ 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 온라인 자료 구축시스템은 다양한 원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는 기능

- 서로 다른 형식과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고 통합하여 저장 가능

□ 메타데이터 관리

- 자료의 속성, 저작자 정보, 출판사 정보, 키워드 등을 포함하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함

□ 자료 검색 및 이용

- 온라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검색 기능
- 키워드 검색, 필터링, 정렬 등 다양한 검색 옵션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접근 제어 및 보안

- 온라인 자료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 제어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이용자들의 권한에 따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의 경우 암호화와 보호 기술을 적용해야 함

□ 개인 맞춤형 서비스

-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선호와 관심사를 반영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이용자들의 이용 기록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 지원 등의 개인 맞춤형 기능을 제공

□ 통계 및 분석 기능

- 이용 통계를 분석하여 자료 수집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이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최적화

□ 국제 표준 준수

- 온라인 자료 구축 및 활용시스템은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자료의 표준화와 국제적인 연계를 지원하며, 국제적인 자료 공유와 협력을 강화함

③ 납본 확인의 시스템적 관리체계 구축과 유통 시스템 연계

- ISBN · ISSN · 납본시스템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신청 → 출판 여부 확인 → 납본 확인의 시스템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유통 시스템 연계가 필요
-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후 최종 출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미출간에 의한 미 납본 비율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후 납본 대상 자료에 대한 안내 자동 고지(팝업, 이메일 등)와

출판사가 출간 후 출간 확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 검토 필요

- 종이책, 전자책 등의 주요 유통사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⁴⁸⁾과 연계를 통해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후 발행, 유통되는 도서의 정보를 파악하여 납본 수집 대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2,000					2,000

세부과제 3-3-3 표준 보존기술 적용과 보존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아카이빙 대상 폭증에 따른 관리 시스템 과부하 및 보안 과제 ✓ 웹 자원은 대용량 자원으로 수집, 보존, 서비스까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지원이 필수적임 ✓ 국립중앙도서관은 오픈 소스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45만 건(1,007TB)에 달하는 대용량 웹 자원이 축적되어 있음 ✓ 수집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상당한 자원을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원활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

■ 실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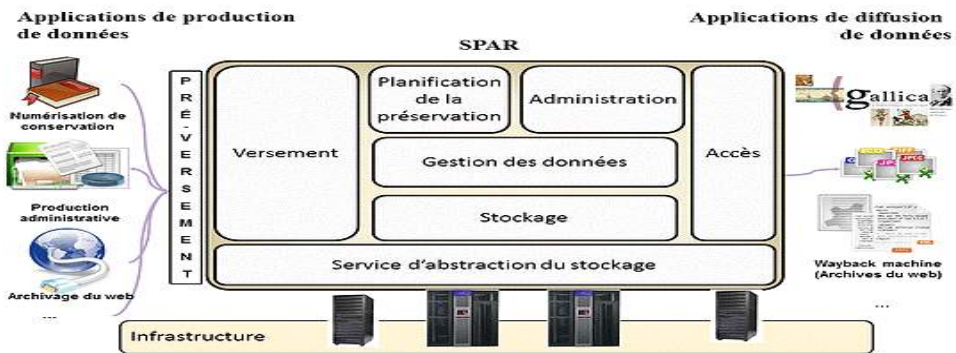
① 분산 보존 및 보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문서가 생성된 기술 및 인적 환경이 변경되더라도 정보가 장기적으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함
- 디지털 문서는 성능이 저하된 후 복구하거나 빈티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사라진

48) 2021년 9월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시작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된 출판유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서비스 플랫폼)으로, 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실시간으로 정보화함으로써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출판유통정보를 통합 관리함. <https://bnk.kpipa.or.kr/>

- 후 다시 읽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 모니터링 및 마이그레이션 작업 수행
- 문서 관리, 증거 목적의 문서 신뢰성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보장 등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의 실현
 - 분실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 문서 사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 정부에서는 디지털 공공 이용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를 조직하고 디지털 아카이빙에 관한 정의 및 법적 프레임워크 지침을 마련



BNF SPAR의 블록 다이어그램

② OAIS의 원칙에 따라 시스템 설계

- OAIS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ISO 14721) 표준은 보존 시스템을 설정하기 위한 어휘, 모델 및 전략을 정의하지만 구체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음
- 라이브러리는 OAIS를 활용하여 상호 운용성 및 시스템 인증을 진행함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1,000					1,000

전략 3	미래형 인프라
핵심과제 3-4	조직과 인력의 확대
세부 과제	3-4-1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3-4-2 온라인 자료 확대에 따른 적정 전문인력 배치 3-4-3 온라인 자료 수집 가버넌스

세부과제 3-4-1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자원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의 웹 자원으로 진화하고 있어 수집 · 보존 · 서비스까지 끊임없는 개발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함 • 국가 도메인 전체와 최근 해외 한국 웹 자원까지 국가 웹자원의 수집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과 조직 등 여건 부족으로 인하여 소멸되기 전의 웹자원을 단순 수집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실행계획

①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 출판유통 채널과 연계를 확대해서 소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납본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규모 있는 예산 확보와 인적 구성,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다양한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소스와 출처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조직 확대는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전문가를 투입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
 - 자료 품질 향상: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각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음
 - 빠른 자료 처리: 조직 확대는 자료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음. 다수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자료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분야별 전문성 강화: 조직 내에서 각 전문가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며 자료를 수집하면, 해당 분야의 자료 품질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 자료 다양성 확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이는 조직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됨
 - 업무 분장 및 효율성: 각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면 업무 분장과 효율성이 증가하게 됨

- 새로운 기술과 전략 도입: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자료 수집과 운영 방법을 현대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됨
- 자료 관리와 유지보수 강화: 조직 확대로 인해 자료 관리와 유지보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다수의 전문가들이 자료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면서 자료의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높은 업무 능력: 전문가들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면 조직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대량의 자료 처리: 대량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세부과제 3-4-2	온라인 자료 확대에 따른 적정 전문인력 배치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자료의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의 증가 및 조직확대 필요 •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자료가 계속 출현하고 있으므로 소멸성, 휘발성이 강한 온라인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는 적극적 수집이 요구되고 있음 • 온라인 자료는 빨리 생산하는 만큼 빠르게 소비되고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순식간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소중한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업무는 물론 시스템 설계, 데이터 분석의 업무가 추가되고, 수집대상 자료가 많아질 수록 관련업무가 증가하게 됨 • 따라서, 이러한 증가된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추가배치는 필수적

■ 실행계획

① 전문인력 수 2배 이상 증가 배치

- 온라인 자료와 신매체의 급속한 증가로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해야 하는 국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업무량의 증가
- 이와 연계하여 시스템 설계, 데이터 분석의 업무가 추가되고, 수집대상 자료가 많아질수록 관련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전문인력의 수를 현재의 2배 정도로 증가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3,000	4,000	4,000	5,000	5,000	21,000

세부과제 3-4-3	온라인 자료 수집 가버넌스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 제도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납본 체계의 효율적 기능을 보장하고 출판 분야에서 새로운 형식이나 미디어가 등장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정책이 필수 요구 사항임 ✓ 납본 관리 사무소의 장기 보존 서비스를 위하여, 기관간 위원회(ICLPS)에 의한 전략적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짐 ✓ 거버넌스 제도는 서비스의 일부로 EU 기관 외부의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EU 기관 또는 그 공식 대리인에 의해 또는 명령에 따라 저작되거나 공개된 모든 자료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함

■ 실행계획

① 적극적인 거버넌스 정책 수립

- 납본 체계의 효율적 기능을 보장하고 출판 분야에서 새로운 형식이나 미디어가 등장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정책 수립
-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EU 기관 또는 그 공식 대리인에 의해 또는 명령에 따라 저작되거나 공개된 모든 자료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함

□ EU 납본 제도의 거버넌스

- 납본 체계의 효율적 기능을 보장하고 출판 분야에서 새로운 형식이나 미디어가 등장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정책이 필수 요구 사항임
- 납본 관리 사무소의 장기 보존 서비스를 위하여, 기관간 위원회(ICLPS)에 의한 전략적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짐
 - 이 그룹은 OP 관리 위원회에서 대표되는 모든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됨
- 거버넌스 제도는 서비스의 일부로 EU 기관 외부의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EU 기관 또는 그 공식 대리인에 의해 또는 명령에 따라 저작되거나 공개된 모든 자료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제도는 출판 사무소가 식별하고 보존할 권한이 있는 EU 기관의 간행물 컬렉션 과 위의 정의에 포함된 EU 기관이 생산한 기타 자료를 보장함
- EU 기관의 자료는 주제, 제작 방법, 편집, 확산 또는 매체(유형 또는 무형)에 관계없이 납본 보존 계획에 포함됨
- EU 기관의 출판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체 목표와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음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	100	100	100	100	500

4] 공생의 협력

전략 4	공생의 협력
핵심과제 4-1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세부 과제	4-1-1 납본·수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1-2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주요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 4-1-3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4-1-4 출판 및 유통 기관과의 협력

세부과제 4-1-1	납본·수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식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국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문화와 지식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유관 기관 협력은 필수점임

■ 실행계획

① 관련 업계와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 전자책의 경우 전자책 홍보를 위한 행사나 홍보 코너를 도서관에 마련하여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②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 출판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출판사가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
- 출판사와의 협약 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납본까지의 일원화
-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온라인 자료 납본률 제고를 위한 납본 홍보 강화

③ 지식 공유를 위한 포럼 운영

- 데이터를 수집, 보존 및 제공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권장

- 소프트웨어 및 도구의 개발 및 지속 가능성 촉진
- 공동 수집, 회의, 워크숍, 교육 행사 및 출판물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인터넷 보존 문제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 고양
- 보관된 인터넷의 사용 및 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 및 연구 네트워크와 직접 협력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70	70	70	70	70	350

세부과제 4-1-2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주요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협동하여 콘텐츠 수집 작업을 진행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함 • 중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인력과 예산 등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자료의 효과적인 수집이 이루어짐

■ 실행계획

①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주요 콘텐츠 수집 방안 개요

-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콘텐츠 수집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수집
- 전문가 그룹 구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콘텐츠 수집 방안을 도출
- 우선적인 주제 및 분야 선정: 유관기관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할 주요 주제와 분야를 선정. 국립중앙도서관의 비전과 목표를 고려하여 중요하고 의미있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
- 자료의 형태와 형식 결정: 콘텐츠의 형태와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수집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 관련 업계와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전자책의 경우 전자책 홍보를 위

한 행사나 홍보 코너를 도서관에 마련하여 홍보를 지원

② 보다 전문적인 방법으로 주요 콘텐츠 수집하기 위한 전략

-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요 콘텐츠 수집 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여 국민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문화를 제공하는데 기여
- **조사 및 분석:** 수집된 자료의 현황, 유관기관과 전문가들과의 협력 상태, 수집 대상 분야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
- **이해관계자와의 상담:** 유관기관, 전문가,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요구와 욕구를 반영하여 전략을 구체화
- **전문가 컨설팅:** 수집 대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수집 전략을 협의
- **목표와 지표 설정:** 목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반영하고, 성공 지표는 전략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사용
- **우선순위와 계획 세부화:** 수집 대상과 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어떤 분야의 콘텐츠를 먼저 수집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디지털화할 것인지 등을 결정
- **저작권 및 법적 쟁점 고려:** 저작권자와의 협의, 라이선스 획득 등을 통해 자료의 합법적인 이용을 보장하며, 법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
- **모니터링 및 평가:** 수집 전략의 실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 주요 콘텐츠 수집의 진행 상태와 성과를 측정하며, 필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함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60					60

세부과제 4-1-3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과의 꾸준한 교류와 공유를 통해 지식의 확장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

■ 실행계획

① 자료 유통 확산과 확보를 위한 공유형 플랫폼의 개발과 협력 강화

□ 데이터 및 지식 공유 플랫폼 개발

- 유관기관들과의 데이터 및 지식 공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기 쉬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료의 교류와 활용을 촉진

□ 자료 유통 및 확산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집한 주요 콘텐츠를 더 넓은 범위의 이용자들에게 유통하고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
-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하여 자료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임

□ 자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콘텐츠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 협력을 통한 상호적인 혜택 등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지역 및 국제적인 협력 강화

- 지역 기관과 국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콘텐츠 수집 범위를 확대
-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적인 문화와 지식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국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자료 교류를 촉진

□ 콘텐츠 수집을 위한 디지털화 전문 인력 양성

- 콘텐츠 수집을 위한 디지털화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들을 양성
-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에 전문적인 인력을 육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수집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

② 도서관과 기록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 도서관, 기록관처럼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제한되거나 폐기를 요청받을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공

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에서는 간행물의 원문 파일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호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술 보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자료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200	100	100	100	100	600

세부과제 4-1-4	출판 및 유통 기관과의 협력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 유통과 지식 협력이 강화됨. 유관 기관과의 꾸준한 교류와 공유를 통해 지식의 확장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

■ 실행계획

① ISBN 등 식별체계 발행현황과 출판유통정보를 연계

- ISBN 등의 식별체계를 활용하여 출판 및 유통되는 모든 자료 납본 확대 및 수집을 위한 노력은 도서관의 컬렉션 확장과 사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전략이며, 이러한 식별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장점이 있음
- **효율적인 자료 식별:** ISBN 등의 식별체계를 통해 출판된 모든 자료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고, 도서관은 출판된 모든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수집할 수 있음
- **다양한 형식의 자료 포함:** ISBN은 책 뿐만 아니라 오디오북, 전자책, 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에도 할당되므로, 도서관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출판 및 유통 정보를 기반으로 수집할 수 있음
- **품질 높은 자료 선별:** 출판 및 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품질 높은 자료를 선별할 수 있음. 출판사, 저자, 출판일 등의 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수집가능

- **시장 동향 파악:** 출판 및 유통 정보를 통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신 자료를 미리 파악하고, 도서관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협력 기회 확장:**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출판된 자료를 납본으로 확대 수집할 수 있음. 출판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특별한 자료를 확보하고 도서관의 컬렉션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음

② 온라인 자료 생산 및 유통 플랫폼사의 협조

- 온라인 자료 생산 및 유통 플랫폼사와의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전략임
- **다양한 자료 확보:** 온라인 자료 생산 및 유통 플랫폼은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온라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신속한 업데이트:** 온라인 플랫폼은 신간이나 최신 자료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를 통해 도서관은 최신 정보와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음
- **품질 높은 자료 선별:** 온라인 플랫폼은 품질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서관은 출판사나 전문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협력 강화:** 온라인 자료 생산 및 유통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료를 확대 수집하는 노력을 협조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정보 획득 및 학습 기회 제공:** 온라인 플랫폼은 교육 자료, 학술 자료 등 다양한 정보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서관은 사용자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음
- **접근성 증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므로, 도서관은 사용자들에게 유연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③ 기관 연계를 통한 우수 온라인 자료 납본 확대 전략 수립

- **제휴 및 협력 강화:** 다른 기관, 대학, 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고 연계. 이로써 다양한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동으로 구축. 역사적

인 문서, 특별한 컬렉션 등을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확대된 자료 제공을 이끌어 냄

- **전문 자료 공유:** 각 기관이 갖고 있는 특정 분야의 전문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다양한 관점에서의 자료를 제공
- **온라인 강좌와 교육 자료:**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 강좌와 교육 자료를 공동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향상
- **자료 플랫폼 개발:** 특정 주제나 분야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자료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음
- **워크숍과 이벤트 개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워크숍, 세미나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자료 활용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
-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라인 자료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고 홍보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100					100

전략 4	공생의 협력
핵심과제 4-2	국내외적 수집 및 이용을 위한 협력
세부 과제	4-2-1 인터넷 자료 보존 국제기구 IIPC와의 지속적 협력 4-2-2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디지털 유산 수집

세부과제 4-2-1	인터넷 자료 보존 국제기구 IIPC와의 지속적 협력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0월 유네스코에서 “도서관을 포함한 유산 기관(heritage institution)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배포·엑세스·유지되는 디지털 정보자원을 보존해야 하며 보편적 접근용이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헌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이 공표 • 이를 계기로 세계 주요 국가도서관을 주축으로 웹 아카이빙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시작됨 • 2003년 인터넷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를 위해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IPC)가 설립됨 • IIPC는 웹 아카이빙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로, 2003년 7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12개 국가도서관이 합심하여 창설하였으며, 웹 아카이빙 도구와 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

■ 실행계획

① IIPC 웹 아카이빙 협업 컬렉션에 참여

- IIPC의 협업 컬렉션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Archive-It 서비스를 사용하여 구축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컬렉션의 주제와 차별화된 주제로 컬렉션 구축에 참여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코로나19 컬렉션에 참여하여 국제 공유 가능한 국내 웹사이트 정보 제공,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등 기타 컬렉션에 업로드 예정이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인터넷 자료 보존 국제기구 IIPC⁴⁹⁾

- 2003년 10월 유네스코에서 “도서관을 포함한 유산 기관(heritage institution)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배포·엑세스·유지되는 디지털 정보자원을 보존해야 하며 보편적 접근용이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헌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이 공표됨
 - 이를 계기로 세계 주요 국가도서관을 주축으로 웹 아카이빙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시작됨
- 2003년 인터넷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를 위해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IIPC)가 설립됨

- IIPC는 웹 아카이빙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로, 2003년 7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12개 국가도서관이 합심하여 창설하였으며, 웹 아카이빙 도구와 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
- **국제 공동 컬렉션** : 우크라이나 전쟁(2022-), 제2015차 세계대전 기념 (2015-2018), 아프가니스탄 정권 교체 (2021) 및 국제적 대응(2021-202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2020-), 국가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 (2016-2020), 올림픽/패럴림픽 컬렉션(2016, 2018, 2022), 정부간 기구 (2015-), 기후 변화 (2019), 인공 지능 (2019), 전 세계 온라인 뉴스 (2018), 유럽 난민 위기 (2015-2016) 등
- **국립중앙도서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2020-), 올림픽/패럴림픽 컬렉션(2018)
- 우리의 전략 계획은 컨소시엄 계약 2021-2025 의 비전, 목표, 주요 프로젝트 및 우선 순위를 설정 하고 계약 서문에 자세히 설명된 원칙 및 목표에 따라 5년마다 수정 및 승인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	100	100	100	100	500

세부과제 4-2-2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디지털 유산 수집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 센터 네트워크는 인터넷 아카이브가 해당 지역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웹의 납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함

■ 실행계획

①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보존 운영

- 프랑스 BnF는 2004년부터 다양한 전국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웹을 보존하기 위해 관련 납본 센터와 협력해 옴
- 이러한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선택하면 선거 문제와 지역 수준에서의 수용을 문서화하여 해당 지역을 더 잘 다룰 수 있음
- 수년에 걸친 선거 컬렉션은 BnF의 귀중한 자료 중 하나가 되었음

49)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② 지역 디지털 유산 수집

-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에는 지역 디지털 유산 수집도 포함됨
- 2013년 스트라스부르 국립 및 대학 도서관의 "Alsatiques en ligne"은 이러한 종류의 첫 번째 컬렉션을 대표함
- 그 이후로 Emile-Zola 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Media Library와 Nancy의 Stanislas Library도 지역적 소명을 가진 사이트를 선택함
- 공유 결정은 인터넷 아카이브에 대한 원격 액세스의 점진적인 구현으로 확장됨
- 원래 BnF에서 서비스되던 이 컬렉션에 대하여 2014년 9월 16일자 문화부의 결정 이후 26개의 프린터 납본 도서관에서 동일한 인증 조건에 따라 승인 서비스됨
- 검색은 사이트의 정확한 주소에서 또는 특정 컬렉션의 경우 자유 텍스트로 수행됨
- 사서 또는 연구원이 개발한 인터넷 아카이브의 "가이드 투어"를 통해, 매일 엄선된 사이트가 소개됨
- 대상 컬렉션의 일부로 선택된 모든 사이트 목록은 BnF API 및 데이터 세트 사이트와 Data.gouv.fr 플랫폼의 오픈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됨
- 종합 카탈로그에는 일부 언론 및 시사 사이트와 문학 블로그만 나열되어 있으며 "인용" 탭을 선택하고 양식에 NUMAI 등급을 입력하여 참조할 수 있음
-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트, 사라질 위험에 처한 사이트 또는 디지털 납본 서비스에 연락하여 자신의 사이트를 신고하여 프랑스 인터넷 보존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5 재창조를 위한 보존

전략 5	재창조를 위한 보존
핵심과제 5-1	장기 보존정책
세부 과제	5-1-1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 5-1-2 온라인 자료 수집과 장기보존 프로세스의 연계

세부과제 5-1-1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의 미흡 및 보완 필요 초기의 보존 정책은 납본 받은 디지털자료에 대한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에 국한하여 개발·수립한 반면, 최근에는 국가차원 가치가 있는 디지털자원을 선별 입수하여 소장하여 장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거시적 정책 및 전략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은 내부적 업무와 전략, 외부적 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에는 기술기반의 단기적 보존전략보다는 국가차원의 비전과 목적달성을 위한 장기적 온라인 자료 보존 개발전략 수립이 개발되어야 함

■ 실행계획

① 온라인 보존 정책 수립

- 개요부분:** ① 디지털 보존을 위한 비전, ② 디지털 보존 정책의 목적, ③ 디지털 보존 정책의 범위
- 실행부분:** ① 디지털 보존 담당조직, ② 이해관리자 관리, ③ 법적 이슈 관리, ④ 정책 프레임워크 관리, ⑤ 수집, ⑥ 비트스트림 보존, ⑦ 장기 보존기술 및 전략, ⑧ 메타데이터 관리, ⑨ 활용을 위한 접근기능 관리, ⑩ 기반시설 관리
- 운영부분:** ① 담당 부서의 임무, ② 연구과 표준개발, ③ 저작권; 4) 지원부분에는 ① 역할과 책임, ② 교육, ③ 협력; 5) 마지막으로 디지털 보존 정책의 개정

② 온라인 수집 자료 보관 방법 수립

- 장기 디지털 저장소인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에 보관함 필요

- 온라인 자료 보관 시스템은 방화벽 및 바이러스 검사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네트워크 링크를 통해 공용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유지 관리
- 분산보관 분산 보관되는 기관에서는 보관된 모든 자료의 전체 복사본을 저장

○ 영국 대영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보존 방법

- 세인트 판크라스(St Pancras), 보스턴 스파(Boston Spa), 애버리스트위스(Aberystwyth) 및 에든버러(Edinburgh)에 4개의 스토리지 노드가 있음

- 분산보관 기관은 자체 점검, 복제 및 수리를 위한 자동화된 루틴을 통해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지속적으로 통신
- 보관 기관 중 하나에 저장된 디지털 파일이 손상되거나 손실되면 다른 노드 중 하나에서 자동으로 복원
- 보관 기관은 두 개 이상의 물리 디스크에 파일을 복사 및 저장하고 디스크 간의 자체 검사 및 복제를 수행하는 기술적 배열을 사용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60					60

세부과제 5-1-2	온라인 자료 수집과 장기보존 프로세스의 연계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에 법적 납본된 모든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됨 • 출판 사무소가 보관소인 모든 자료에 대해 장기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가 제공되어 보관된 모든 자료의 추적 가능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액세스 가능성을 보장함

■ 실행계획

① 장기보존자료 통합 관리 체제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을 위해 납본 원문을 서비스용으로 원문저장소에

보장하여 서비스를 하고 현재 보존용으로 생성하는 것을 장기보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장기보존 포맷으로 전환한 후 장기보존저장소에 저장하여 장기보존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제

② 장기보존저장소에 백업형태로 저장

- 웹사이트와 웹자료는 현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파일 단위의 웹자료는 납본자료와 유사하게 처리하고 웹사이트는 자동으로 수집하여 메타데이터가 생성되어 원문저장소에 저장이 완료되면 특정 시점을 설정하여 연단위로 추가된 데이터베이스본을 장기보존저장소에 백업형태로 저장하며 웹사이트 구성요소의 포맷을 포맷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체제로 운영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500	500	500	500	500	2,500

전략 5	재창조를 위한 보존
핵심과제 5-2	보존환경 및 관리
세부 과제	5-2-1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 관리 5-2-2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 조직 구성

세부과제 5-2-1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 관리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회 창출과 확장된 가치 파생을 위한 환경 구성 필요) 디지털 보존은 단순히 위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창출하고 디지털자료를 보호함으로써 새롭거나 확장된 가치가 파생 될 수 있음을 의미

■ 실행계획

① 포맷 레지스트리 구현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원의 장기보존 포맷 관리를 위해 파일 식별 기술 연구에 있어 가장 많이 참조되고 있는 PRONOM의 오픈소스 DROID의 식별 방법과 포맷 시그니처 표현 규칙을 참조하여 포맷 레지스트리를 구현

②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술 메타데이터 체제 구축

- KOLIS II의 보존 기능, 장기보존시스템과 연계
- 마이그레이션, 인캡슐레이션 등 적절한 보존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기술(technical) 메타데이터를 포맷 레지스트리에 등록,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
- 유효성 검사, 보존 메타데이터 할당, 표현 정보 할당 및 수용 가능한 데이터 구조 또는 파일 형식 확보를 포함하여 개발되어야 함

③ 지속적인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객체 포맷 유지

- 이러한 보존 활동을 통해 디지털 객체가 항상 신뢰성 있고 가용성이 유지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기술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디지털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경우, 획득을 재평가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	◉	◐	●	
추진 예산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세부과제 5-2-2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 조직 구성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보존을 위한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필요) 조직이나 기술의 변경을 포함하여 디지털자원과 관련한 많은 위험은 디지털 보존 활동 및 광범위한 업무 기능 수행 혹은 법규를 준수하는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험관리가 필요

■ 실행계획

① 전담조직체계 구성

- 디지털 장기보존 조직 구성에 관련 사례 및 현황조사 분석결과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중 디지털 장기보존에 관련된 업무가 연구 및 기획, 장기보존운영, 웹보존운영, 디지털지원 등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구성

□ '국' 에 준하는 조직규모 구성

- 디지털 장기보존의 업무 특성 상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며, 자료유형 및 기능의 특성과 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프로세스 상 하나의 독립적 단계라는 업무의 독자성 및 계속성이 존재함
- 따라서 디지털 장기보존 조직의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국' 에 준하여 설정

□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경우 '부' 의 준하는 규모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하부조직인 '부' 조직이 중앙행정기관의 '국' 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 수준의 규모로 디지털 장기보존 조직의 규모는 국립중앙도서관 내 '부' 의 위상에 준하여 설정

■ 추진 일정 및 예산

○: 0~25%, ◎: 26~50%, ◐: 51~75%, ●: 76~100%;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총계
추진 일정	●					
추진 예산	60					60

3.1 온라인 자료 수집 실천 중장기 로드맵

3.1.1 단계별 세부추진 단계

□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에 따른 자료 수집 과제별 시기 선정 이행 로드맵 수립

- 전략적 중요도, 시급성 등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운영 시기를 반영한 이행 로드맵 수립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실천 로드맵은 앞서 제시된 전략을 기반으로 1단계(기반조성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5년간(2024~2028)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제안 (유형별 수집방안 등)

□ 1단계-기반조성단계

- 온라인 자료 수집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단계의 사업을 수행함
-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기본적인 운영 기준 및 정책 수립 및 협의체 등 선행되는 단계로,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임

□ 2단계-확산단계

- 기반조성단계를 통해 안정화된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 및 확장하는 단계임

□ 3단계-성숙단계

- 성숙단계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3.1.2 단계별 세부추진방안

전략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실행시기				
			24	25	26	27	28
			기반조성		확산		성숙
1. 지식문 화유산 의 포괄적 수집	1-1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 책	1-1-1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다양화 정책 수립					
		1-1-2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전략적 파악정 책 및 수집방법론의 다양화					
		1-1-3 수집 온라인 자료의 보상체계 수립					
		1-1-4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1-2 납본수집	1-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관련 지침 정비					
		1-2-2 온라인 자료 납본 프로세스 개선					
		1-2-3 온라인 자료 납본 예산 확보					
	1-3 수증수집 및 자체수집	1-3-1 수증 수집 및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1-3-2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1-4 신매체 자료 수집 확대와 활용	1-4-1 신매체 자료 수집 유형 확대					
		1-4-2 신매체 자료 수집 기반 마련					
		1-4-3 신매체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2.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2-1 데이터 관리와 활용	2-1-1 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 료 통합·관리 전략					
		2-1-2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					
		2-1-3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계 강화					
	2-2 대국민 서비스	2-2-1 온라인 자료 열람서비스 확대					
		2-2-2 온라인 자료 활용 촉진					
		2-2-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 정보 관리 방안					
	2-3 홍보강화	2-3-1 온라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2-3-2 온라인 자료 납본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3. 미래형 인프라	3-1 위원회 운영	3-1-1 관련 위원회 기능 및 역할개선					
		3-1-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자료분과) 운					

		영					
		3-1-3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					
	3-2 제도정비	3-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3-2-2 온라인 자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관 련규정 정비					
		3-2-3 자료보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3-2-4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과 도서관법 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3-3 시스템 구축	3-3-1 납본시스템 고도화 추진					
		3-3-2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스 템					
		3-3-3 표준 보존기술 적용과 보존시스템 구축					
	3-4 조직과 인력의 확대	3-4-1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3-4-2 온라인 자료 확대에 따른 적정 전문인 력 배치					
		3-4-3 온라인 자료 수집 가버넌스					
4. 공생의 협력	4-1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1-1 납본수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4-1-2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주요 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					
		4-1-3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4-1-4 출판 및 유통 기관과의 협력					
	4-2 국내외적 수 집 및 이용 을 위한 협 력	4-2-1 인터넷 자료 보존 국제기구 IIPC와의 지 속적 협력					
		4-2-2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디 지털 유산 수집					
5. 재창조 를 위한 보존 (우주적 보존)	5-1 장기 보존정책	5-1-1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					
		5-1-2 온라인 자료 수집과 장기보존 프로세스의 연계					
	5-2 보존환경 및 관리	5-2-1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 관리					
		5-2-2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 조직 구성					

3.2 예산수립 계획

□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5개년 예산은 다음과 같음

①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 과제	'24	'25	'26	'27	'28	총계
1-1 온라인 자료 장서관리정책	1,120	2,000	2,000	2,000	2,000	9,120
1-1-1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다양화 정책수립	60					60
1-1-2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전략적 파악정책 및 수집방법론의 다양화	60					60
1-1-3 수집 온라인 자료의 보상체계 수립		1,000	1,000	1,000	1,000	4,000
1-1-4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2 납본수집	1,120	1,060	1,060	1,060	1,060	5,360
1-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관련 지침 정비	60	60	60	60	60	300
1-2-2 온라인 자료 납본 프로세스 개선	60			60		120
1-2-3 온라인 자료 납본 예산 확보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3 수증수집 및 자체수집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1-3-1 수증 수집 및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3-2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4 신매체 자료 수집 확대와 활용	12,160	7,000	2,000	2,000	2,000	25,160
1-4-1 신매체 자료 수집 유형 확대	60					60
1-4-2 신매체 자료 수집 기반 마련(법적 근거, 지침 개발, 수집도구 개발, 유관기관 협력 인프라 등),	11,100	6,000	1,000	1,000	1,000	20,100
1-4-3 신매체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5 데이터 관리와 활용	300	200	200	200	200	1,100
1-5-1 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관리 전략	100					100
1-5-2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	100	100	100	100	100	500
1-5-3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계 강화	100	100	100	100	100	500

②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 과제	'24	'25	'26	'27	'28	총계
2-1 대국민 서비스	300	300	300	300	300	1,500
2-1-1 온라인 자료 열람서비스 확대	100	100	100	100	100	500
2-1-2 온라인 자료 활용 촉진	100	100	100	100	100	500
2-1-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100	100	100	100	100	500
2-2 홍보강화	600	600	600	600	600	3,000

2-2-1 온라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100	100	100	100	100	500
2-2-2 온라인 자료 납본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500	500	500	500	500	2,500

③ 미래형 인프라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 과제	'24	'25	'26	'27	'28	총계
3-1 위원회 운영	250	150	150	150	150	850
3-1-1 관련 위원회 기능 및 역할개선	100					100
3-1-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자료분과) 운영	100	100	100	100	100	500
3-1-3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	50	50	50	50	50	250
3-2 제도정비	400	200	50	50	50	750
3-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100	100				200
3-2-2 온라인 자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100					100
3-2-3 자료보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100	50				150
3-2-4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과 도서관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100	50	50	50	50	300
3-3 시스템 구축	4,100					4,100
3-3-1 납본시스템 고도화 추진	1,100					1,100
3-3-2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스템	2,000					2,000
3-3-3 표준 보존기술 적용과 보존시스템 구축	1,000					1,000
3-4 조직과 인력의 확대	4,100	5,100	5,100	6,100	6,100	26,500
3-4-1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3-4-2 온라인 자료 확대에 따른 적정 전문인력 배치	3,000	4,000	4,000	5,000	5,000	21,000
3-4-3 온라인 자료 수집 가버넌스	100	100	100	100	100	500

④ 공생의 협력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 과제	'24	'25	'26	'27	'28	총계
4-1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30	170	170	170	170	1,110
4-1-1 납본수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70	70	70	70	70	350
4-1-2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주요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	60					60
4-1-3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200	100	100	100	100	600
4-1-4 출판 및 유통 기관과의 협력	100					100
4-2 국내외적 수집 및 이용을 위한 협력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4-2-1 인터넷 자료 보존 국제기구 IIPC와의 지속적 협력	100	100	100	100	100	500
4-2-2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디지털 유산 수집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⑤ 재창조를 위한 보존(우주적 보존)

(단위: 백만원)

세부추진 과제	'24	'25	'26	'27	'28	총계
5-1 장기 보존정책	560	500	500	500	500	2,560
5-1-1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	60					60
5-1-2 온라인 자료 수집과 장기보존 프로세스의 연계	500	500	500	500	500	2,500
5-2 보존환경 및 관리	1,060	1,000	1,000	1,000	1,000	5,060
5-2-1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 관리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5-2-2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 조직 구성	60					60

3.3 성과지표

□ 세부 추진과제별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연차별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5개년으로 구분하고, 5년간의 총 성과를 제시함

□ 성과평가 제시 방법

- 전략수립 여부 및 시스템 구축 등 건수를 산출하기 힘들 경우 ‘식’의 단위를 활용하여 제시함
- 예산의 경우 증가 비율 등으로 산출함
- 건으로 구체적인 산출이 가능한 부분은 ‘건’, ‘개’ 등으로 제시함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

-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를 하도록 함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전략	핵심 과제	세부 추진과제	2024	2025	2026	2027	2028	총
1.지식문 화유산 의 포괄적	1-1 온라인 자료 장서개 발정책	1-1-1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다양화 정책수립 (정책수립여부)	1식					1식
		1-1-2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전	1식					1식

수집		략적 파악정책 및 수집방법 론의 다양화 (수집방법론 다양화 정책수립여부)						
		1-1-3 수집 온라인 자료의 보상체 계 수립 (보상체계 수립여부)	1식					1식
		1-1-4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수집확대 유형 건수)(단위: 천건)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2 납본수 집	1-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관련 지침 정비 (관련지침 정비 여부)	1식					1식
		1-2-2 온라인 자료 납본 프로세스 개선 (프로세스 개선 여부)		1식				1식
		1-2-3 온라인 자료 납본 예산 확 보 (증가비율)	10% 증액	10% 증액	10% 증액	10% 증액	10% 증액	평균 10% 증액
	1-3 수증수 집 및 자체수 집	1-3-1 수증 수집 및 납본 대상 온 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수 집 건)	10만건	10만건	10만건	10만건	10만건	50만건
		1-3-2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확 대 (수집 건)	5만건	5만건	5만건	5만건	5만건	25만건
	1-4 신매체 자료 수집 확대와 활용	1-4-1 신매체 자료 수집 유형 확 대 (확대된 신매체 유형 건수)	2개	2개	2개	2개	2개	10개
		1-4-2 신매체 자료 수집 기반 마 련(법적 근거, 지침 개발, 수집도구 개발, 유관기관 협력 인프라 등), (수집기반 마련 여부)	1식 50% 완료	1식 100% 완료				1식
		1-4-3 신매체 자료의 서비스 활성 화 (서비스 건수)	1,000 건	1,000 건	1,000 건	1,000 건	1,000 건	5,000건
	1-5 데이터 관리와 활용	1-5-1 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관리 전 략 (전략수립 여부)	1식					1식
		1-5-2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 (연계 건수)	10만건	10만건	10만건	10만건	10만건	50만건
		1-5-3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계 강 화 (연계 유형)	2개	2개	2개	2개	2개	10개

2.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2-1 대국민 서비스	2-1-1 온라인 자료 열람서비스 확대 (서비스 이용자 수)(단위 천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1-2 온라인 자료 활용 촉진 (온라인 자료 활용 건수) (단위 천건)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1-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 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 안 (방안 수립 여부)		1식				1식
	2-2 홍보강 화	2-2-1 온라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홍보 및 교육건수)	10건	10건	10건	10건	10건	50건
		2-2-2 온라인 자료 납본 기관으로 서의 위상 강화 (전략 수립 여부)	1식					1식
3.미래형 인프라	3-1 위원회 운영	3-1-1 관련 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개선 (개선 여부)	1식					1식
		3-1-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 자료분과) 운영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3-1-3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	2회	2회	2회	2회	2회	10회
	3-2 제도정 비	3-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 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규정 정비 여부)	준비	실행				1식
		3-2-2 온라인 자료 보상체계 개선 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규정 정비 여부)	준비	실행				1식
		3-2-3 자료보전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규정 정비 여부)	준비	실행				1식
		3-2-4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 과 도서관법의 연계성 강화 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규정 정비 여부)	준비	실행				1식
	3-3 시스템 구축	3-3-1 납본시스템 고도화 추진 (자동화 시스템 도입 여부)		1식				1식
		3-3-2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여부)		1식				1식

		3-3-3 표준 보존기술 적용과 보존 시스템 구축 (구축 여부)		1식				1식
	3-4 조직과 인력의 확대	3-4-1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조직 추가 설립 여부)		1개 부서				1개 부서
		3-4-2 온라인 자료 확대에 따른 적정 전문인력 배치 (전문인력 배치 인력 수)		2명				2명
		3-4-3 온라인 자료 수집 가버넌스 구축 (구축 여부)		1식				1식
4.공생의 협력	4-1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1-1 납본수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축 여부)		1식				1식
		4-1-2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주요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 (수립여부)		1식				1식
		4-1-3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구축 여부)		1식				1식
		4-1-4 출판 및 유통 기관과의 협력 (협약 건수) (단위: 건))	10	10	10	10	10	50
	4-2 국내외적 수집 및 이용을 위한 협력	4-2-1 인터넷 자료 보존 국제기구 IIPC와의 지속적 협력 (자료 제공 건수) (단위 :건)	1,000	2,000	3,000	3,000	3,000	12,000
		4-2-2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디지털 유산 수집 (수집 건수) (단위: 천건)	500	500	500	500	500	500
5.재창조를 위한 보존 (우주적 보존)	5-1 장기 보존정책	5-1-1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 (정책 수립 여부)	1식					1식
		5-1-2 온라인 자료 수집과 장기보존 프로세스의 연계 (연계 여부)		1식				1식
	5-2 보존환경 및 관리	5-2-1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관리 (구축 및 관리여부)		1식				1식
		5-2-2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 조직 구성 (구성 여부)		1식				1식

제 VIII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제언

1

결론 및 요약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동향조사,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자료 중장기 수집 전략계획 마련 필요
-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면 관련 법이나 제도의 개선, 출판 현황에 대한 조사 필요

□ 연구 목적

-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확대 및 적용 방안

1.2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의 시사점

1.2.1 납본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1) 문제점 및 필요성

-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2016년 8월 처음 온라인 자료 납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루어짐. 온라인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이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우선, 수집 대상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온라인 자료 수집 지침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

- 도서·비도서 장서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전체 13,805,208책·점 수집되었고 이 중 10,316,372권(74.7%)이 납본 방식으로 수집 되었지만, 온라인 자료는 2022년 12월 기준 총 18,589,753건이 수집되었음에도 납본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가 전체의 약 4%밖에 되지 않음(2017~2022년 납본 수집 현황 기준)

2) 개선방향 및 정책

□ 온라인 자료 납본의 정착을 위한 법률 개정

-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개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납본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현실적인 정의 및 개념화,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 ISSN 등 표준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이후 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납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납본 받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제시하고, 현실을 반영한 납본 비용 및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영구소장과 이용범위)에 대한 기준 등 납본 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률 개정 및 법제화 필요

□ 온라인 자료의 납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온라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변동성이 크고 휘발성이 있음. 이에 ISBN·ISSN·납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납본이 안된 자료는 자동으로 출판사 및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 ISSN 등 표준식별체계를 부여받아 콘텐츠를 생산하는 출판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이후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납본될 수 있도록 안내(1차, 2차, 3차)
- 웹사이트의 폐쇄 등으로 인한 디지털 자료의 소멸로 수집·보존·전송되지 않는 자료 발생. 온라인 자료의 빠른 생산 속도를 따라가고 소멸 전 적시에 수집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납본은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30일 이내에 납본을 해야하는데 영상자료, 음성·음향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납본 등록 기간을 현실화하여 납본율을 높여야 함

1.2.2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 유형의 명확화

1) 문제점 및 필요성

-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환경 변화에 따라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 변동성이 큰 온라인 환경과 신매체-플랫폼 자료가 증가하고 있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함
- 지침에서 명시하는 수집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VIII-1〉 수집 대상 자료

구분		대상자료
웹자료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등) 음향자료(효과음 등) 등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내 웹사이트 및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외 웹사이트
기타		해외소재 한국관련 자료

- 웹자료의 유형의 경우 1인 출판사를 통한 제작 및 유통, 멀티미디어 삽입(동영상, 음악 등), 쌍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유통 및 서비스하는 플랫폼 또한 다양하게 존재함. 이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자료 유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2) 개선방향 및 정책

□ 구체적인 온라인 자료 유형의 명확화

-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의 개정 시행을 통해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집대상 자료에 대한 상세한 예시를 추가하는 등 온라인 자료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자료유형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연이어 신매체가 등장하고 활용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온라인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을 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수집 지침이 필요하다

□ 다양한 신매체 수집의 확대

- 현재 지침은 납본, 기증, 자체수집으로만 온라인 자료 수집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매체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대해서는 자체수집 방식의 수집을 제시하고 있음
- 자체수집은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납본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를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집하는 방식이며, 기타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자체수집을 통한 수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만 신매체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그 속도와 양을 따라가는 데에 한계가 있음. 신매체를 통해 생성되는 온라인 자료의 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침에 명시하고 자체수집 외에 납본 및 기증 방식으로도 최대한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2.3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지침 확대 근거 마련

1) 문제점 및 필요성

-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통해 납본, 자체수집, 수증의 3개 방법으로 수집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 중 납본 수집 지침에 따르면 납본을 통한 수집 자료의 대상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파일로 정함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중에서 납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 ① 파일 내 전자출판물에 대한 ISBN 미기재자료
 - 파일 검증(서지사항, 파일 상태 등 판별)을 위해 ISBN 필수 기재
 - ② 일반적인 자료의 형태 및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
 -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하는 체험판
 - 웹상에서 연재 중인 자료
 - 50면(본문) 미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분량(글자수 등)에 상응하지 않는 자료
-

-
- 특정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OS) 환경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표지 및 판권지(면) 없이 본문만 있는 자료
-
- ③ 출판사항, 형태사항, 파일형식 등은 다르면서 내용이 동일한 자료(복본자료)
- 도서관 소장자료 또는 원문 구축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자료
 - 표지의 서명만 약간 다르고 내용이 동일한 자료
 - 합본으로 발행된 자료를 분책하여 재발행한 자료(개별자료로 나누어 중복제작)
 - 납본 시행일 이전에 발행제작한 전자책의 내용 개정 없이 ISBN만 바꾼 자료
 - 발행주기가 짧거나 내용 수정이 미미하여 일반적인 개정판으로 볼 수 없는 자료
-
- ④ 내용을 반복적으로 복사하거나 편집하여 제작한 자료
- 특정내용 또는 페이지를 반복 복사하여 자료의 전체 분량을 늘린 자료
 - 다른 저작물의 내용을 단순 반복적으로 편집하여 창작적 요소가 미미한 자료
-
- ⑤ 납본 시행일 이전에 발행·제작한 일반도서를 납본 시행일 이후에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료
-
- ⑥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제작한 자료
- 오픈 액세스 자료
 - 문학작품(국내외), 성경, 불경 등 저작권 만료 자료
 - 사전류, 명언집, 속담집, 댓글모음 등
 - 법률, 조례 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⁵⁰⁾
 -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생성된 자료
-
- ⑦ 족보, 영인자료, 단순 스캔자료
-
- ⑧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출판(제작)한 학습·수험·활동 관련 자료
- 학원 수강생 및 특정 집단만을 위해 제작한 학습 교재, 수험 자료, 활동 결과물, 강의 자료, 방문 학습 교재 등
-
- ⑨ 통상적인 유통경로나 판매 방식에 따라 판매·유통·제공되지 않는 자료
-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만 판매·유통·제공하는 자료
 - 소수의 특정대상(회원, 가족, 지인 등)에게만 판매·유통·제공하는 자료
-
- ⑩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자료
- 뉴스 기사, 노래가사 모음집, 논문초록 모음집 등
 - 인터넷상 공개된 인물사진, 작품사진 등
-
- ⑪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한 반려 처리 자료 및 그와 유사한 자료
-
- ⑫ 그 외 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제3조제2항 및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의 납본 제외 기준을 준용한다.
-
- ⑬ 단, 납본 제외 자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

수집할 수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을 우선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전체 온라인 자료 소장 건수 18,589,753건에 비해 납본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4% 수준에 불과함. 반면 기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체의 8.57%, 자체수집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체의 8.45%으로 납본의 약 2배임
- 납본을 우선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나, 온라인 자료의 경우 전자책 출판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으며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출판되고, 더 나아가 게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의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ISBN, ISSN 발급 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본으로는 수집할 수 없음
- 그러나 납본의 기준이 되는 ISBN은 납본 제외 대상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출판이나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료도 다수로, 현재 지침에서 규정된 내용만으로 납본 수집을 진행하기에는 정확한 수집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가 다소 어려움을 겪음

2) 개선방향 및 정책

□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대상의 확보 방안 마련

- ISBN의 발급 대상 자료에는 인터넷상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전자출판물과 인터넷상 또는 물리적 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오디오북 등이 포함됨. 그러나 전자출판물과 오디오북 등 전자책 출판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수집 대상 파악이 어려움
- 믿을만한 전자책 출판 통계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 대상과 근거 마련 시 필요함. 믿을만한 전자책 출판 통계를 근거로 온라인 자료의 수집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을 모색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국내 납본 수집 대상 자료의 발행·제작 현황 파악 기반 조성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의 대상을 각각 세분하여 발행 또는 제작현황을 분석하거나 세계전자책출판물 현황, 최근 5년간 전자출판물 발간 현황 등 통계 기반 현

50)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황을 통해 납본 및 수집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납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1.2.4 디지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선제적 대응

1) 문제점 및 필요성

-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더이상 책에만 국한되지 않음. 이에 맞게 다양한 매체(이미지,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서비스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이용률은 238%(2021년 5월)로, 온라인 자료에 대한 요구는 교육·문화 분야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이용자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 매체로 제공 받고자 함
- 개정 도서관법 시행(2016.8)에 따라 전자출판물(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전자신문 등)이 납본 대상에 포함이 됨. 그러나 ISBN, ISSN을 부여 받지 않은 다양한 웹자료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출판 및 서비스 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수집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양한 온라인 자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2) 개선 방향 및 정책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매체의 주기적 파악

- 국제 표준식별체계, 국내 표준식별체계 등을 부여 받은 자료 및 받지 않은 웹자료(문자 자료,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를 1년 단위로 파악하여 온라인 자료 유형별 및 발행정보 제공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작품현황을 1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신고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양한 매체의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한,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등의 콘텐츠의 범위를 제공(1편 또는 1책)할 수 있도록 공식화 및 형식화된 규칙을 제공하고 통계 사이트를 제공하여 쉽게 현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지속적이고 능동적 수집

- 국립중앙도서관은 방송, 강의, 인터뷰 등 보존가치가 있는 다양한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디지털 장서로 활용하여야 함
-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디지털 장서를 다양하게 수집·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음
- ISSN 미부여 학회지, 대학부설연구소 OA자료 등 보존가치가 높은 학술지 원문 및 서지정보 수집 등 공개된 웹자료 및 회색 문헌 등의 수집을 강화하여 디지털 장서에 활용할 수 있음
- 온라인 자료의 보존 가치에 대한 기준을 온라인 자료의 유형별로 수립하여 웹툰, 웹소설, 음원, 오디오북 등의 새로운 유형의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함

1.3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서비스 전략

1.3.1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확장⁵¹⁾

□ 인식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전 세계 도서관과 함께 웹 아카이빙이라는 도전적인 과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자원 아카이브(OASIS)를 구축하여, 소멸해가는 과거 웹 자원과 현재의 웹 자원을 유일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완전한 수집에 한계가 있음
 - 해외 주요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정책 흐름에 맞춰, 웹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가공하여 웹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시점임
- 생성·소멸되는 웹 자원을 제대로 수집 및 보존, 개방성 확대와 아카이브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다음과 같은 전략 방안이 필요함
 - 외부 공개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웹자원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개발 제공
 - 방대한 웹 데이터에 대한 장벽 없는 개방을 통해 각계각층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51)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 미래 국가 정보 자원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 도서관의 미래 자원으로서, 웹자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집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요 기관 및 중요 주제 관련 웹자원에 대한 선별적 수집과 국가 도메인 웹사이트에 대한 포괄적 수집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외 한국 관련 웹 자원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블로그, 유튜브,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메타버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 새로운 유형의 웹 자원을 수집 및 보존해야 하나, 현재 오아시스 시스템은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픈 소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처리속도와 성능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방대하고 복잡한 웹 자원을 원활히 수집·보존·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원 정책이 요구됨
 - 예산 및 인력, 시스템(H/W, S/W) 등 전반적인 인프라 지원 확대
 - 수집부터 서비스까지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 필요
 - 사서, 정보기술자,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 팀 단위 조직과 장단기적인 협업이 필요

□ 국가 단위의 플랫폼, 오아시스의 위상 강화

- 우리나라 웹 자원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웹 아카이브 구현 방안 모색
 - 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웹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플랫폼으로 개선되어야 함
 - 네이버, 구글 등 상용 엔진과 같은 고성능 검색엔진을 적용하여 과거의 웹 자원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웹 표준에 따라 웹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오아시스 사업과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추진
- 인공지능 기반 웹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스템 도입, 방대한 웹에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지능형 서비스 구축
 - 주제별·시대별 웹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고도화된 웹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구현

1.3.2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 이용자의 독서성향과 도서관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도서관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 해외 도서관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처리정책을 준용하면서도,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정책에서도 잘 드러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도 이를 수집·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보 주체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소장자료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
- 이러한 도서관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도서관 누리집에서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확대 방안

- 맞춤형 추천 서비스의 만족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취향이나 독서성향, 도서관 시설이나 자료 이용 이력 등 다양하고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가 수집·분석되어야만 함
-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는 도서관 이용자의 부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향후 이용자의 자료나 시설 이용 이력, 실시간 위치 데이터, 교육·전시 프로그램의 서비스 참여 이력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별도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하는 방안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

-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개인정보가 발견된 온라인 자료는 수작업으로 이미지를 삽입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미 수집된 자료와 앞으로 수집될 막대한 양의 온라인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개인정보의 패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마스킹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

□ 도서관과 기록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 도서관, 기록관처럼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제한되거나 폐기를 요청받을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에서는 간행물의 원문 파일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호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술 보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자료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안 모색 필요

1.4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1.4.1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범주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및 형태는 크게 웹사이트와 웹자료이고 웹자료는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 소셜 미디어는 기관이나 개인에게서 수집 허락을 받아 기술적인 절차에 의해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에 대해 주기적인 접근을 통해 수집해야 하는 등의 속성은 웹사이트의 수집과 유사하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저장 기술과 방법이 다름
 - 앞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웹사이트와 별개로 수집 관리함
 - XR 기술을 적용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실감콘텐츠는 수집 시 대용량으로 인해 서비스용과 보존용으로 구분하여 수집함
- 현재의 자료 유형 구분에서 소셜 미디어는 웹사이트, 웹자료와 따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고 웹자료 내의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에는 실감콘텐츠를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1.4.2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별 수집 지침 개발 및 제시

- 소셜 미디어의 수집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에 제시해야 함
- 웹자료 수집 지침에 실감콘텐츠 항목을 분리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미지 자료 수집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의 정의를 “이미지자료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화면에 재생 및 표시된 시각 자료로써 사진, 회화 등의 자료를 말한다.”를 2차원으로 제한하고 실감콘텐츠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수집 지침(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4.3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도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소셜 미디어 자료는 특정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 기반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자체수집을 고려하는 경우, 수집 대상이 되는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과 해당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카이빙 도구 등 플랫폼 특성에 맞는 수집 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고려해볼 만한 수집 도구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수집을 허락받은 계정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 활용하여 수집 도구를 개발
 - 소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및 하베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드파티(Third Party) 활용하여 수집
 - 수증의 경우 개인이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셀프 아카이빙 기능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후 국립중앙도서관 기증
 - 일부 플랫폼의 경우(Twitter), 오픈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한국 및 한국 관련 자료의 포괄적 수집에 활용
 - 이미지의 형태로 스크린샷하여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내용을 수집
- 대용량 콘텐츠 추가 수집 및 확대를 위한 넉넉한 스토리지 확보

□ 추가적인 콘텐츠 수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

1.4.4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 소셜 미디어 수집 대상 기관의 수집 허락

- 현재 Twitter 수집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연계 협력하여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수집 허락
- 수집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지닌 추가적인 수집 대상 발굴 및 연계 협력

□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협력

-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실감콘텐츠(메타버스 플랫폼 포함) 생산 현황 파악 및 주요 결과물에 대한 수증을 위한 국가적인 주요 사업 주관기관과의 연계
-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실감콘텐츠의 장기적인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홍보의 장을 제공함
- 예)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연계
-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정부 부처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주요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과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등과의 연계

1.4.5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제고

- OASIS에서 한 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기관(개인) 단위의 디지털 컬렉션 제공
- 대용량의 공공영역에서 자체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 메타데이터 및 원 콘텐츠로 접근 가능한 저장된 서버의 링크를 제공하여 서비스하고 보존용은 시연 동영상상을 제작함

□ 실감콘텐츠 등 e-deposit 시스템의 콘텐츠 확장성 및 사용의 용이성 제고

- e-deposit 시스템에 저장 가능한 콘텐츠의 유형 확대

- 쉽고 간단한 인터페이스 도입을 통해 납본 및 수증력 제고

□ 실감콘텐츠 재현 공간 첨단화 및 구축

- 육안으로 볼 수 있는 3D LED 초대형 스크린 등 재현 공간 구축을 통해 접근 가능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홍보
- 기술 발전에 따른 실감콘텐츠 체험공간(VR 체험공간)의 지속적 개선

1.5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납본 연계 방안

-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가대표도서관은 이에 적극 대응하여 자료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납본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한국서지표준센터의 납본 역할 강화

- 한국서지표준센터는 서지정보의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출판물의 일관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생성된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고 보증하여,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ISBN, ISSN, ISNI 등의 표준번호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한국서지표준번호의 중요성과 장점을 홍보
- 표준화된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기관 및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메타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 도서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방법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킴
- 표준화된 번호를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다양한 표준번호를 기반으로 검색 및 연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생성하는 공개 데이터와 연계하여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정보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킴
- 국제적인 메타데이터 표준 및 표준번호 체계와 협력하여 국내 정보 생태계를 국제 표준과 일치시키고 국제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출판사 및 기관들이 생성하는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및 도구를 제공하여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함
- 한국서지표준센터는 위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품질 개선, 연

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정보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연계

-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을 연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납본을 관리 및 통제할 수 있음
- 매체간의 배타적인 국제표준번호와 ISNI와의 연계
- 출판사 및 콘텐츠 제작자에게 ISBN, ISSN, ISNI 등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활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납본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표준번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유도함
- ISBN · ISSN · 납본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입력 폼에 UCI, ISBN, ISSN, ISNI 등의 표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추가하여, 자료 납본 시 표준번호를 함께 기입하도록 유도함
- UCI, ISBN, ISSN, ISNI 등의 표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번호의 정보를 검증하고 연계하는 표준번호 검증 및 매칭 시스템 개발하여, 올바른 표준번호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연결함
- UCI, ISBN, ISSN, ISNI 등의 표준번호를 기반으로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해당 표준번호로 관련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함께 노출하여 연관성을 강화함
- UCI, ISBN, ISSN, ISNI 등의 표준번호를 기반으로 납본시스템 내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하고 매핑하여, 표준번호를 중심으로 콘텐츠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 자료의 식별성을 강조함
- 표준번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을 구축하여, 표준번호 기반으로 연계된 자료의 정보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의 자체 시스템에서 UCI, ISBN, ISSN, ISNI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출판사들이 표준번호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은 표준번호와 납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자료의 식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연계

-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공통된 식별자로 매칭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공통 필드를 정의 필요.

예를 들어 특정 콘텐츠의 ISBN과 UCI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필드를 메타데이터에 추가함

-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련 정보를 매핑하는 규칙 정의. 이를 통해 ISBN과 UCI 간의 관계를 확립하고, 콘텐츠의 식별 및 검색에 활용할 수 있음
- 국제표준번호와 UCI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여, ISBN과 UCI를 연결하고 검색 및 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표준번호와 UCI 간의 연계를 위한 API를 개발하여, 출판사나 콘텐츠 제공자는 해당 API를 통해 ISBN을 UCI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UCI를 ISBN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함
- ISBN과 UCI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할 때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함. 예를 들어, JSON, XML 등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교환하고 처리할 수 있음
- 국제표준번호와 UCI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통합함. 제목, 저자, 출판사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두 식별체계 간의 관계를 확립함
- 연계된 국제표준번호와 UCI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검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됨
-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여 신규 콘텐츠나 변경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수행함
- 이와 같이 국제표준번호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의 메타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콘텐츠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 납본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납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⁵²⁾
- 연속간행물 출판사들은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은 의무라고 생각할수록, 납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ISSN 발급 대비 납본율이 높았음.
-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및 협력 강화
- 온라인 자료 납본률 제고를 위한 납본 홍보 강화. 온라인 납본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본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자료는 보관과 접근성에서 효율적이기에, 디지털 자료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출판사들도 더 쉽게 납본할 수 있을 것임

52)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 납본가이드 및 정책 문서를 제공하여 납본 과정과 요구사항을 명확한 안내 및 정보 제공. 출판사 대상 납본에 관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을 주최하여 출판과 관련된 최신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출판사들 간의 지식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출판사가 납본 자료의 저작권과 라이선싱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저작권 정보나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출판사들이 법적 문제 없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인 납본을 위해 출판사 및 저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은 출판사들이 납본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자료를 보다 넓은 범위로 확보할 수 있음

□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

- 국가대표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나 인센티브를 개인 저작자나 출판사에 지급할 수 있음. 이는 자료의 저작자 및 출판사의 노력과 창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국가대표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를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열람 및 이용을 제공하는 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납본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 납본된 자료의 저작자나 출판사의 이름을 특별히 표기하여 저작자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납본자의 저작물의 홍보 활동을 통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물의 노출도를 높이고 저작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작가나 저작자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저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술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 납본자들과 협력하여 특별한 출판물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국가대표도서관의 특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납본자들의 동기 부여와 협력을 유도하면서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의 보상을 통해 양질의 자료가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UCI와 ICN의 연계 통합

-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와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의 연계 방안은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성과 저작권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UCI와 ICN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통합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저작권 정보를 일관되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관리하여, 두 체계 간의 연계와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UCI와 ICN을 공통 식별자로 연결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될 때 UCI와 ICN을 함께 부여하고, 이를 활용하여 콘텐츠와 저작권 정보를 연결함
- UCI와 ICN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여 각 콘텐츠의 UCI와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ICN)를 관리하고 연계하여, 디지털 콘텐츠와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시스템을 개발
- UCI와 ICN 간의 연계를 위한 API 및 웹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UCI와 ICN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UCI와 ICN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의하고 관리하여 두 체계 간의 연계를 원활하게 함
- UCI와 ICN을 활용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을 강화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허가, 저작권료 정산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과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나 불법 복제 등을 예방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음
- UCI와 ICN의 연계를 위해 국내·외에서 활용되는 관련 표준 및 규약을 고려하여 협력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연계 방안을 구축 함
- UCI와 ICN의 연계는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성과 저작권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보안, 이용성, 저작권 관리 등을 개선할 수 있음

□ 납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 자동 분류 시스템이나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의 납본 창구 일반화로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시간 단축
- 출판사들이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자료의 제출 및 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납본 제출된 자료에서 메타데이터(제목, 저자, 출판사 등)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OCR(광학식 문자 인식) 기술이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의 정보

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 및 저작자가 제출하는 메타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표준화하여,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고, 표준 규칙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함
- 납본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확장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확장하여 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음
- 납본 제출된 자료의 형식, 품질, 저작권 등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불완전한 자료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함
- 출판사 자체 시스템에서도 쉽게 자료를 납본시스템에 연동하여 제출하도록 API 및 통합 기능을 제공하여, 출판사들이 편리하게 납본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납본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 정보나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출판사들의 납본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함
- 온라인 납본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납본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접근 제어, 암호화, 보안 프로토콜 등을 사용하여 자료의 안전성과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음
- 출판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UX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들이 납본시스템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자료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관리, 처리가 가능해지며 출판사들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

1.6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부분 개선 필요

- 「도서관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식정보가 적극적·창의적·지속적으로 향유되어 더욱 새롭고 유용한 지식정보가 창출되는, 지식문화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기 위함임. 단순히 도서관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지식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만은 아님

- ‘알 권리(right to know)’ 는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음. 그런데, 이 정의의 전제에는 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비공개되는 정보(대외비 정보), 절차적으로 접근이 까다롭거나 기술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정보, 매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유통되는 정보,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고 공개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연시키거나 경시하거나 공개를 꺼리는 속성이 있어왔던 정보, 기타 개인정보나 공공성을 가진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일반 국민이 해당 정보에 가급적 자유롭고 필요충분하게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음
- 도서관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를 대신 확보해주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문화자원인 지식정보를 좀 더 집중화된 곳에서 편리하고 풍부하게 향유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곳임. 행정정보 공공정보는 주로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고, 도서관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공개되어야 할 ‘인문적 속성, 문화적 속성’ 을 가진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알 권리’ 를 「도서관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협소한 목적 설정에 해당하고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 또한 국민의 알권리는 매우 중요하나, 가장 최우선시되는 것은 아님. 창작자나 권리자의 저작권 등과 조화되어야 함. 국민 개개인의 알 권리가 중요한 만큼, 국민 개개인의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임.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민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 알 권리만 강조되고 저작권 등이 보호되지 않으면 알고자 하는 그 지식정보의 창작 의욕 및 창작의 양과 질을 저하시키게 됨
- 목적 규정에서 언급된 ‘알 권리’ 는 납본 제도와 관련이 깊으면서도 저작권 등의 권리와 대립되는 속성이 있음.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를 모색하는 본 연구와도 중요하게 연계되는 부분임
- 따라서 「도서관법」의 목적 규정은 국가와 사회에서 중요성을 갖는 각종의 지식정보를 다원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널리 고르게 제공하고자 하는 본질적 취지(지식정보 활용, 문화자원 향유 등)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부분 개선 필요

- 목적 규정에서 국가 등의 책무를 강조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설정 가능한 내용일 수 있음
- 다만, 거의 모든 행정법류(정책법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책무나 민간자율영역에 대한 관여를 당부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문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목적 규정에서부터 언급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임

- 목적 규정은 법률을 제정하는 이유(입법취지)를 나타내고, 각 조문의 해석을 도와주는 기능 등을 하게 되므로 불필요하고 중복적이며 잉여적인 표현보다는 입법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취지에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도서관은 각종의 지식정보가 유입되고 전시·감상·공연·회의·모임 등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는 바, 그 설립주체, 이용주체, 운영주체 모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시민사회 등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도서관법과 도서관정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다고 목적 규정에서부터 전제해버리는 관제적 관점은 새로운 문화가 꽃피는 도서관의 철학과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음

□ 수단적 사항과 궁극적 사항 배열 개선 필요

- 목적 규정의 규정방식은 ① 입법목적을 밝히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적 사항을 함께 기술(표현)하는 방식, ②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적 사항을 먼저 열거하면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기술하는 방식, ③ 입법목적만을 기술하는 방식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수단적 사항을 법문의 전반부에서 표현하고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법문의 후반부에 배열하는 ②번 형태에 해당하는 입법례가 가장 보편적임
- 그런데, 현재 「도서관법」 목적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중요 사항이 법문의 전반부에 기술되고,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이라는 중요 사항은 법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등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단적 사항과 어수선하게 뒤섞여 배치되어 있음. 즉, ① ② ③번 어느 형태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법문의 전반부에서 표현하고 국민의 도서관 이용 취지와 문화발전 취지를 순차적으로 후반부로 위치시키는 방향으로 질서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도서관의 자료 축적 기능 강조 필요

-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자료 축적(수집과 관리를 아우르는 의미)이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자료 축적’ 기능을 단순히 도서관의 하부 기능 중 하나로 설정하지 않고 목적 규정 첫머리에서부터 비중있게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사명

- 혁신적인 온라인자료 장서개발정책으로 더 높은 차원의 지식 공유와 글로벌 지식 문화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지식 환경을 창조하는 미래 지식 생태계의 선두주자

비전

혁신적 온라인 자료 개발로 글로벌 지식 문화 선도

목표

한국 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평등한 접근성
보장을 통한
지식의 민주화

혁신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생 생태계

핵심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	납본수집	수중수집 및 자체수집	신매체 자료 수집 확대와 활용	데이터 관리와 활용
지식 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다양화 정책수립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전략적 파악정책 및 수집방법론 다양화 ✓수집 온라인 자료의 보상체계 수립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관련 지침 정비 ✓온라인 자료 납본 프로세스 개선 ✓온라인 자료 납본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중 수집 및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매체 자료 수집 유형 확대 ✓신매체 자료 수집 기반 마련신매체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관리 전략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계 강화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열람서비스 확대 ✓온라인 자료 활용 촉진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온라인 자료 납본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미래형 인프라	위원회 운영	제도정비	시스템 구축	조직과 인력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위원회 기능 및 역할개선 ✓도서관자료심의 원회(온라인분과) 운영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온라인 자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자료보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과 도서관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본시스템 고도화 추진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스템 ✓표준 보존기술 적용과 보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온라인 자료 확대에 따른 적정 전문인력 배치 ✓온라인 자료 수집 가버넌스 	
공생의 협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적 수집 및 이용을 위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본·수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주요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출판 및 유통 기관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자료 보존 국제기구 IIPC와의 지속적 협력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디지털 유산 수집 	
재창조를 위한 보존	장기 보존정책			보존환경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 ✓온라인 자료 수집과 장기보존 프로세스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 관리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 조직 구성 	

1.7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1.7.1 온라인 자료 장서관발 정책 도출 프로세스

- 온라인 자료 장서관발 정책 도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함
 - 1단계 :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
 - 2단계 : 국내외 온라인 자료 현황조사
 - 3단계 : 대국민 서비스 방안 및 단계별 도입 전략 제시
 - 4단계 : 온라인 자료 장서관발 정책 최종 확정

1.7.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장서관발정책의 사명, 비전, 목표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장서관발정책의 사명
 - 사명 1: 혁신적인 온라인 자료 장서관발정책으로 더 높은 차원의 지식 공유와 글로벌 지식 문화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
 - 사명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지식 환경을 창조하고 미래 지식 생태계의 선두주자
- 비전
 - 비전: 지속가능한 온라인 자료 개발로 세계 지식 문화 선도
- 목표
 - 목표 1: 한국 온라인 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 목표 2: 평등한 접근성 보장을 통한 지식의 민주화
 - 목표 3: 혁신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생 생태계

□ 성과지표

- 세부 추진과제별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연차별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전략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2024	2025	2026	2027	2028	총
1.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1-1 온라인 자료 장서관리 정책	1-1-1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및 다양화 정책수립 (정책수립여부)	1식					1식
		1-1-2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전략적 파악정책 및 수집방법론의 다양화 (수집방법론 다양화 정책수립여부)	1식					1식
		1-1-3 수집 온라인 자료의 보상체계 수립 (보상체계 수립여부)	1식					1식
		1-1-4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수집확대 유형 건수)(단위: 천건)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2 납본수집	1-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관련 지침 정비 (관련지침 정비 여부)	1식					1식
		1-2-2 온라인 자료 납본 프로세스 개선 (프로세스 개선 여부)		1식				1식
		1-2-3 온라인 자료 납본 예산 확보 (증가비율)	10% 증액	10% 증액	10% 증액	10% 증액	10% 증액	평균 10% 증액
	1-3 수증수집 및 자체수집	1-3-1 수증 수집 및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수집 확대 (수집 건)	10만건	10만건	10만건	10만건	10만건	50만건
		1-3-2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수집 건)	5만건	5만건	5만건	5만건	5만건	25만건
	1-4 신매체 자료 수집 확대와 활용	1-4-1 신매체 자료 수집 유형 확대 (확대된 신매체 유형 건수)	2개	2개	2개	2개	2개	10개
		1-4-2 신매체 자료 수집 기반 마련(법적 근거, 지침 개발, 수집도구 개발, 유관기관 협력 인프라 등), (수집기반 마련 여부)	1식 50% 완료	1식 100% 완료				1식
		1-4-3 신매체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건수)	1,000 건	1,000 건	1,000 건	1,000 건	1,000 건	5,000건
	1-5 데이터 관리와 활용	1-5-1 표준식별체계 UCI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관리 전략 (전략수립 여부)	1식					1식
		1-5-2 국제식별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UCI 메타데이터 활용 확대 (연계 건수)	10만건	10만건	10만건	10만건	10만건	50만건

		1-5-3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계 강화 (연계 유형)	2개	2개	2개	2개	2개	10개
2.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2-1 대국민 서비스	2-1-1 온라인 자료 열람서비스 확대 (서비스 이용자 수)(단위 천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1-2 온라인 자료 활용 촉진 (온라인 자료 활용 건수) (단위 천건)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1-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방안 수립 여부)		1식				1식
	2-2 홍보강 화	2-2-1 온라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홍보 및 교육건수)	10건	10건	10건	10건	10건	50건
		2-2-2 온라인 자료 납본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전략 수립 여부)	1식					1식
3.미래형 인프라	3-1 위원회 운영	3-1-1 관련 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개선 (개선 여부)	1식					1식
		3-1-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 자료분과) 운영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3-1-3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	2회	2회	2회	2회	2회	10회
	3-2 제도정 비	3-2-1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규정 정비 여부)	준비	실행				1식
		3-2-2 온라인 자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규정 정비 여부)	준비	실행				1식
		3-2-3 자료보전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규정 정비 여부)	준비	실행				1식
		3-2-4 만화진흥법, 음악진흥법 등과 도서관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규정 정비 여부)	준비	실행				1식
	3-3 시스템 구축	3-3-1 납본시스템 고도화 추진 (자동화 시스템 도입 여부)		1식				1식
		3-3-2 온라인 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여부)		1식				1식
		3-3-3 표준 보존기술 적용과 보존 시스템 구축 (구축 여부)		1식				1식

	3-4 조직과 인력의 확대	3-4-1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조직 추가 설립 여부)		1개 부서				1개 부서
		3-4-2 온라인 자료 확대에 따른 적정 전문인력 배치 (전문인력 배치 인력 수)		2명				2명
		3-4-3 온라인 자료 수집 가버넌스 구축 (구축 여부)		1식				1식
4.공생의 협력	4-1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1-1 납본수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축 여부)		1식				1식
		4-1-2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주요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 (수립여부)		1식				1식
		4-1-3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구축 여부)		1식				1식
		4-1-4 출판 및 유통 기관과의 협력 (협약 건수) (단위: 건))	10	10	10	10	10	50
	4-2 국내외적 수집 및 이용을 위한 협력	4-2-1 인터넷 자료 보존 국제기구 IIPC와의 지속적 협력 (자료 제공 건수) (단위 :건)	1,000	2,000	3,000	3,000	3,000	12,000
		4-2-2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디지털 유산 수집 (수집 건수) (단위: 천건)	500	500	500	500	500	500
5.재창조를 위한 보존 (우주적 보존)	5-1 장기 보존정책	5-1-1 온라인 자료 보존 정책 (정책 수립 여부)	1식					1식
		5-1-2 온라인 자료 수집과 장기보존 프로세스의 연계 (연계 여부)		1식				1식
	5-2 보존환경 및 관리	5-2-1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관리 (구축 및 관리여부)		1식				1식
		5-2-2 온라인 자료 장기보존 조직 구성 (구성 여부)		1식				1식

□ 정책제언의 방향

- 본 연구에서의 정책제언의 방향은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식문화유산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재까지의 조직구조와 인력구성을 재점검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고, 특히 온라인자료과와 디지털자료과의 재조직을 고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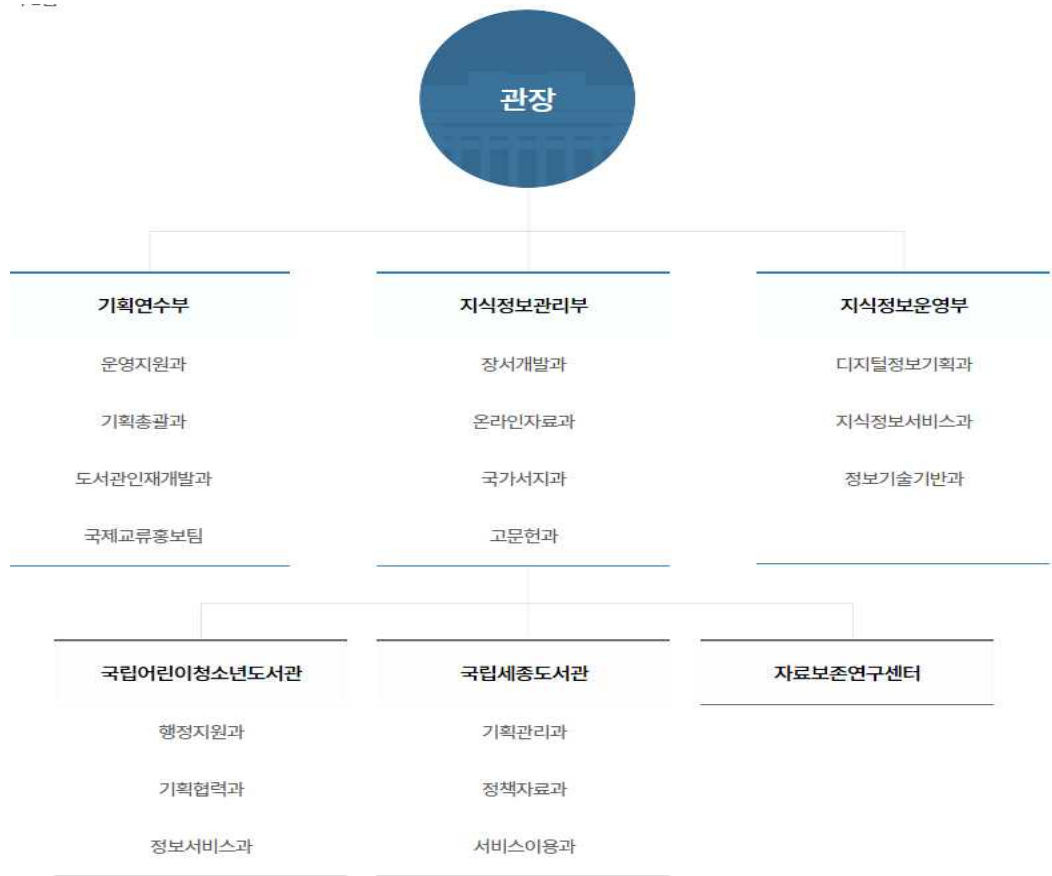
□ 정책제언 내용

- 디지털자료 관련 조직의 재편성
- 법제화 부분의 개편 방향

2.1 디지털자료 관련 조직의 재편성

□ 온라인 및 디지털자료 관련 부서

- 국립중앙도서관 조직을 보면 온라인 및 디지털자료와 관련된 조직이 온라인자료과, 디지털정보기획과, 지식정보서비스과로 흩어져 있음
- 아래 “온라인 자료 및 디지털 자료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표의 각 업무 내용을 보았을 때 온라인 자료와 관련된 업무가 세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VIII-1> 국립중앙도서관 조직 및 기구

상위 조직	부서 명	수집 범위 및 내용
지식 정보 관리 부	온라 인자 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자료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및 보상, 납본증명서 발급에 관한 일 ○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보상, 수집증명서 발급에 관한 일 ○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수집에 관한 일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및 수집, 등록 ○ 온라인 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일 ○ 납본대상자료 조사, 미납본자료 독촉 및 후속처리에 관한 일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온라인자료분과) 구성, 운영에 관한 일 ○ 온라인 자료 수집 통계에 관한 일 ○ 온라인 자료 등록업무에 관한 일

지식 정보 운영 부	디지털 정보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제2호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 자료의 등록정리통계 등에 관한 업무 ○ 국내외 온라인 자료 공유활동 협력·지원 ○ 디지털도서관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획·운영 ○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 소장 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지식 정보 운영 부	지식 정보 서비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본관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관리 ○ 소관 자료 이용 및 참고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 이용서비스 개발.보급 ○ 이용자 개발 및 이용서비스 평가 ○ 연구정보서비스 업무 개발 및 기획 ○ 지식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제공 및 관리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기획 및 운영 ○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운영 및 관리 ○ 사서추천도서 운영 ○ 도서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 자료의 정의

-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의 한 형태이고 디지털 자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디지털 형식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말함

□ 수집부서는 분리하되 서비스 부서를 구분함

- 부서간의 명확한 업무 구분과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자료의 정의를 기반으로 부서간 업무 및 인력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단행본과 연속간행물 구분에서 수집은 분리되나 서비스가 매체별로 구분되지 않고 대출 및 열람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원리)
- 명칭 변경: 온라인자료과 => 디지털자료과

- 수집 및 처리 대상 : 온라인 자료 => 온라인 자료 포함 디지털 자료 전체
- 디지털정보기획과는 디지털도서관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서비스 해야 함
- (조직전문가에게 정책연구 의뢰 필요) 이와 같은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 정책연구 수행 필요

상위 조직	부서 명	수집 범위 및 내용
지식 정보 관리 부	온라인자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료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디지털 자료 납본 수집 및 보상, 납본증명서 발급에 관한 일 ○ 디지털 자료 수집 및 보상, 수집증명서 발급에 관한 일 ○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수집에 관한 일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및 수집, 등록 ○ 디지털 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일 ○ 납본대상자료 조사, 미납본자료 독촉 및 후속처리에 관한 일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디지털 자료분과) 구성, 운영에 관한 일 ○ 디지털 자료 수집 통계에 관한 일 ○ 디지털 자료 등록업무에 관한 일 ○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보존 ○ 제2호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자료의 등록정리·통계 등에 관한 업무 ○ 국내외 디지털자료 공유활동 협력·지원
지식 정보 운영 부	디지털정보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 디지털도서관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획·운영 ○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 소장 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지식 정보 운영 부	지식정보서비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본관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관리 ○ 소관 자료 이용 및 참고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 이용서비스 개발.보급 ○ 이용자 개발 및 이용서비스 평가 ○ 연구정보서비스 업무 개발 및 기획 ○ 지식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제공 및 관리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기획 및 운영 ○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운영 및 관리 ○ 사서추천도서 운영 ○ 도서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위상 확보와 입법불비 사항 해소 필요

- 최근 사회 각 분야별로 기본법들이 정립되어가고 있는 상황임(예컨대 체육분야에서도 다양한 개별법이 난립하다가 지난 2021년에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었음). 도서관법은 도서관(도서관 정책)에 관한 기본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규정 등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 개별법의 난립으로 도서관법은 점진적으로 기본법적 위상이 계속해서 취약해질 가능성이 큼.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규정들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한편, 노후화된 규정들을 보수하는 등 다각적으로 법률 현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기본법적 지위 확보를 위하여 법률 조문 전체에 걸쳐 조문 구성 체계의 적절성 진단 및 조문 체계 재구성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 다른 법률의 도서관법과의 조화와 연계를 당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현재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구분(국-공-사립, 공공-대학-학교-전문)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도서관의 기능의 융복합화, 도서관 기능의 다양화(라키비움), 다른 문화 서비스 제공 기능과의 결합 등의 필요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서관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융합적 문화 창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제4조 도서관의 구분 규정, 제8조 도서관의 협력 규정 등 개정 및 도서관의 융복합적 활용 촉진 규정 등 신설 검토 필요
- 현재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접근성 불편(주차 불편 포함), 도서관 열람 내지 학습 공간과 자리 부족, 도서관 저녁 및 심야 이용의 어려움, 각종 공휴일이나 사서의 부재 등에 의한 빈번한 휴관에 따른 이용 불편, 대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 부수·저장본 등의 한정에 따른 이용 불편 등을 겪고 있음. 작은도서관의 경우 마을 내 일부 소수 이용자들의 독점화 내지 텃세화 현상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식당 등이 없어 부득이 멀리 이석을 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부수적인 불편들도 존재함. 이러한 다양한 이용상의 불편들은 주로 도서관 운영과정에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나, 전국 도서관이 모두 고르게 이용자의 불편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관점에서도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7조 도서관의 책무 규정 개정, 이용자 불편 실태 조사 및 해결 노력 규정 등 신설 검토 필요

- 도서관법은 제11조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와 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는 도서관정책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임. 한편, 도서관법은 제19조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 시설(기관)임. 그런데,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소관 업무상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서관법에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모호한 상태를 방지하지 말고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 설치 규정 및 제19조 국립중앙도서관 설치 규정, 제20조 업무 규정 등 개정 및 신설 검토 필요

- 현재 도서관법은 전체적으로 관 중심 및 공급자 중심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 조문 전체에 걸쳐 수범자 및 이용자 중심으로 여러 법문이나 표현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도서관 이용자의 권한과 더불어 책무 등에 관한 사항도 비중있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규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책무 등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전체에 걸쳐 개정 검토 필요(‘납본’, ‘사서’ 등과 같은 채래적 용어나 일제한자식 용어 개선 필요 / 정부와 도서관의 역할 규정들 이외에 도서관을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사회학술 활동 등을 새로이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

□ 「도서관법」과 다른 법률과의 연계성 강화 방향 검토 필요

- 사회 각 분야별로 보존가치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음. 각 분야별로 개별법이 제정되어 해당 분야 자료에 대한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동향은 문화적 측면, 기록사적 측면 등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도서관법의 관점에서 보면 도서관법의 존재이유가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임. 사회 각 분야별로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개별법을 전수조사하여 도서관법과의 연계점을 발굴하고, 아울러, 다른 여러 관련 개별법들 내에서 도서관법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개별법과 도서관법(해당 분야와 도서관 분야/ 해당 분야 전담기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법 제9조 적용범위 및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체화 등 개정 검토 필요

- ⇒ 애니메이션진흥법, 만화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및비디오물법, 음악산업진흥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집지등정기간행물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개별법 정밀진단 필요⁵³⁾
- ⇒ 대학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국회도서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 인권도서관), 법원조직법(제22조 법원도서관) 등 각 분야별 도서관법제들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연계성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 위와 같은 문화예술 영역이나, 도서관법제 영역과 관련된 법률들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등 다소 이질적인 듯 하지만, 의외로 긴밀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법률들을 다수 발굴하여 도서관법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풍부하게 검토할 필요

53) 이번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료 수집’이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도서관법과 관련 법률 간의 연계점을 발굴해 보고자 한 것임. 이후에는 좀 더 폭넓은 관점, 전면적 다각적 관점에서 도서관법과 관련 법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0호.
- 곽승진, 최재황, 조영주, 류희경(2008).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65-83.
- 국립중앙도서관(2022). 국가 중요 도서관 자료 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3』, 2022. 7
- 국립중앙도서관(202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과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1』, 2022. 5
- 국립중앙도서관(2022). 웹자원 아카이빙(OASIS) 현황 및 사례, 미래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14』, 2023. 3
- 국립중앙도서관(2022). 해외 국가도서관의 전략계획 텍스트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9』, 2022. 2
- 국립중앙도서관(2023).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22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vol. 1, 2021.1
- 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 송민정(2022). 미디어 콘텐츠의 메타버스 플랫폼팅 유형화 및 미래 전망. 방송과 미디어, 27(1), 27-37.
- 이정민, 이정은, 신청룡, 오효정(2020). 지방자치단체의 소셜 미디어 기록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구성요소 도출 연구. 기록학연구, 65, 111-150, 출처: <https://doi.org/10.20923/kjas.2020.65.11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2).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 - 실감형 콘텐츠 분야. 중보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웹진, 65. 출처: https://webzine.tipa.or.kr/tipa/202204_sub03_1.jsp
- 한국저작권보호원(2022). 2022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보고서. 서울: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저작권위원회(2023). XR 기술 산업 현황 보고서.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2023). 실감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전략 연구.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상열(2021). 메타버스 플랫폼 현황과 전망. FUTURE HORIZON, 49, 19-24.
- 한상열, 방문영(2020). 비대면 시대의 국내 XR 활용 동향. MONTHLY SOFTWARE ORIENTED SOCIETY, 75(September), 4-12.
- Cessda(2021). Archiving Social Media Data: A guide for archivists and researchers. CESSDA Work Plan 2020, 10.5281/zenodo.5041072

for Published Heritage. <<https://library-archives.canada.ca/eng/corporate/about-us/policies/collection-development-published-heritage/Pages/collection-development-published-heritage.aspx>>

Library and Archives Canada(2018). Policy on Collection Development

TAHO. 2015. Managing Social Media Records. State Records Guideline No 18.

Techopedia (2023.06. 29.) <<https://www.techopedia.com/definition/3411/platform-computing>>

The National Archive(2014). OPERATIONAL SELECTION POLICY OSP27, UK Central Government Web Estate.

UK Central Government Web Estate. 2014. OPERATIONAL SELECTION POLICY OSP27. TNA.

<http://sts.kahaku.go.jp/>

<http://www.legislation.gov.uk/>

<https://blog.archive.org/>

<https://blogs.loc.gov/>

<https://dea.digar.ee/>

<https://eresources.loc.gov/>

<https://journals.sagepub.com/>

<https://labs.loc.gov/>

<https://laws-lois.justice.gc.ca/>

<https://library-archives.canada.ca/>

<https://ndsa.org/>

<https://netpreserve.org/>

<https://op.europa.eu/>

<https://umap.openstreetmap.fr/>

<https://webarchive.org.uk/>

<https://www.alia.org.au/>

<https://www.bibliotheeknetwerk.nl/>

<https://www.bl.uk>

<https://www.bnf.fr/>

<https://www.canberratimes.com.au/>

<https://www.copyright.gov/>

<https://www.data.gouv.fr/>

<https://www.digitizationguidelines.gov/>

<https://www.dpconline.org/>

<https://www.ifla.org>

<https://www.kb.nl/en>

<https://www.loc.gov/>

<https://www.nla.gov.au/>

<https://www.numerique.gouv.fr/>

<https://www.w3.org/>

<https://www.webarchive.org.uk/>

kahaku.go.jp/

WARC 파일 포맷으로 저장된 웹 페이지들을 보기 위해 인터넷 아카이브(IA)가 개발한
디지털 타임 캡슐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연구주관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수행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도서관문화연구소

발행처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전화 02-590-0500
누리집 <https://www.nl.go.kr/>

발행일 2023년 12월 06일

I S B N 979-11-6513-411-2 (90020) [비매품]
